

第 71 回 博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李 賢 浩

#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Transformation of Jeju Rural Houses

中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建築計劃 및 環境 專攻

崔 載 權

2002年 6月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Transformation of Jeju Rural Houses

이 論文을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6月

中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建築計劃 및 環境 專攻

崔 載 權

崔載權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審査 委員長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審 査 委 員 \_\_\_\_\_ (印)

中央大學校 大學院

建築工學科 建築計劃 및 環境 專攻

崔 載 權

2002년 6월

## <목차>

###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1.1.1 연구 배경 .....	1
1.1.2 연구 목적 .....	3
1.2 연구방법 및 범위 .....	3
1.2.1 연구 방법 .....	3
1.2.2 연구 범위 .....	4
1.3 논문구성 및 연구의 흐름 .....	5
1.4 선행연구 고찰 .....	7
1.5 용어정의 .....	9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2.1 우리나라 농촌주거의 변화 .....	11
2.1.1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특성 .....	11
2.1.2 우리나라 농촌주거의 변화 .....	15
2.1.3 우리나라 농촌주거의 변화요인 .....	19
2.2 제주지역 전통민가의 일반적 고찰 .....	23
2.2.1 제주지역 전통민가의 형성배경 .....	23
2.2.2 제주지역 전통민가의 배치 및 평면분류 .....	28
2.3 농촌주거의 분류 .....	36
2.3.1 농촌주거 분류의 필요성 .....	36
2.3.2 선행연구의 농촌주거 분류 .....	36
2.3.3 본 연구의 농촌주거 분류 .....	38
2.4 농촌주거 연구의 틀 .....	41
2.4.1 근대화와 농촌주거변화 .....	41
2.4.2 농촌주거문화와 주생활양식 .....	43
2.4.3 연구 틀 .....	45

### 제3장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개요 및 현황

3.1 조사의 개요 .....	47
3.1.1 사례선정 .....	47
3.1.2 조사방법 및 내용 .....	49
3.1.3 조사진행 .....	49
3.2 사례 현황 .....	50
3.2.1 농촌마을의 현황 .....	50
3.2.2 농촌주거의 가구현황 .....	59
3.3 농촌주거공간의 현황 .....	62
3.3.1 주거의 배치 .....	62
3.3.2 주거의 공간구성 .....	69
3.3.3 농촌주거공간의 일반적 특성 .....	76
3.4 소결 .....	82

### 제4장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

4.1 좌식지향의 개방적 공간구성 .....	84
4.1.1 주생활행위 .....	84
4.1.2 주생활재 .....	88
4.1.3 주요 공간별 구성 .....	93
4.2 접객·의례중심의 공간구성 .....	97
4.2.1 비 일상 공간사용 .....	97
4.2.2 접객·의례공간 배치 .....	99
4.3 세대분리 가족중심의 공간구성 .....	103
4.3.1 거주형태 .....	103
4.3.2 주동별 공간구성과 생활특성 .....	105
4.4 소결 .....	112

## 제5장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변화

5.1 증·개축에 의한 농촌주거공간의 변화 .....	115
5.1.1 배치의 변화 .....	115
5.1.2 주거공간의 용도별 변화 .....	119
5.1.3 공간구성의 단계별 변화 .....	126
5.1.4 증·개축에 의한 농촌주거공간의 변화 특성 .....	135
5.2 농촌주거공간의 변화 특성 .....	136
5.2.1 배치의 변화 특성 .....	136
5.2.2 주동의 공간구성 변화 특성 .....	139
5.2.3 주요 공간별 변화 특성 .....	142
5.3 소결 .....	149

## 제6장 결론

6.1 요약 및 결과 .....	152
6.2 시사점 및 추후과제 .....	154
■ 참고문헌 .....	157
■ 부록1 .....	163
■ 부록2 .....	169
■ 국문초록 .....	188
■ Abstract .....	190

## 〈표 차례〉

〈표 1-1〉 선행연구 .....	8
〈표 2-1〉 도시와 농촌의 비교 .....	12
〈표 2-2〉 농촌개발 정책의 변화 .....	17
〈표 2-3〉 도시 및 농촌인구의 비율(%) .....	20
〈표 2-4〉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 .....	24
〈표 2-5〉 지역별 폭풍일수 .....	25
〈표 2-6〉 선행연구의 농촌주거분류 .....	38
〈표 2-7〉 본 연구 농촌주거분류 .....	40
〈표 3-1〉 사례지역 및 주거 .....	48
〈표 3-2〉 조사내용 및 방법 .....	50
〈표 3-3〉 가족수 .....	59
〈표 3-4〉 가족형태 분류 .....	59
〈표 3-5〉 세대주 연령 .....	60
〈표 3-6〉 영농형태 .....	60
〈표 3-7〉 경작 형태 .....	60
〈표 3-8〉 영농규모 .....	61
〈표 3-9〉 농기계 및 차량보유 .....	61
〈표 3-10〉 좌향 .....	63
〈표 3-11〉 주동구성 .....	64
〈표 3-12〉 주동배치 .....	65
〈표 3-13〉 주동배치의 사례 .....	66
〈표 3-14〉 마당의 유형 .....	69
〈표 3-15〉 평면형태 분류 .....	70
〈표 3-16〉 실 연결방식에 의한 평면구성 .....	72
〈표 3-17〉 실 인접방식에 의한 평면구성 .....	74
〈표 3-18〉 조사대상 농촌주거공간의 특성 .....	83
〈표 3-19〉 공간구성의 변화 특징 .....	83
〈표 4-1〉 식사 .....	84
〈표 4-2〉 단란 .....	85
〈표 4-3〉 접객 .....	85
〈표 4-4〉 안방사용행태 .....	86
〈표 4-5〉 주생활상 .....	88

〈표 4-6〉 거실의 배치형태 .....	94
〈표 4-7〉 부엌의 배치형태 .....	95
〈표 4-8〉 현관의 배치형태 .....	96
〈표 4-9〉 비 침실 현황 .....	97
〈표 4-10〉 년중 제레횃수 .....	98
〈표 4-11〉 제레장소 .....	99
〈표 4-12〉 주동별 세대간 거주형태 .....	104
〈표 4-13〉 배치형태와 생활분리 .....	107
〈표 4-14〉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 .....	114
〈표 5-1〉 배치의 변화 .....	116
〈표 5-2〉 공간구성 단계별 변화분포 .....	127
〈표 5-3〉 공간구성단계별 변화특성 .....	133
〈표 5-4〉 마당공간의 성격 변화 .....	137
〈표 5-5〉 주동의 공간구성 변화 특성 .....	141



## <그림차례>

[그림 1-2] 농촌주거의 공간구성 .....	9
[그림 2-1] 자녀의 양육기간 .....	21
[그림 2-2] 외부공간 배치 .....	29
[그림 2-3] 올래 .....	29
[그림 2-4] 마당 .....	29
[그림 2-5] 안뒤 .....	30
[그림 2-6] 놀굽 .....	30
[그림 2-7] 우영 .....	30
[그림 2-8] 통시 .....	30
[그림 2-9] 구들 .....	32
[그림 2-10] 구들 .....	32
[그림 2-11] 정지(부엌) .....	32
[그림 2-12] 챗방 .....	32
[그림 2-13] 고팡 .....	32
[그림 2-14] 난간 .....	33
[그림 2-15] 굴묵 .....	33
[그림 2-16] 작은구들 없는 세칸형 .....	33
[그림 2-17] 한칸형 .....	34
[그림 2-18] 정지내형 .....	34
[그림 2-19] 중마루형 .....	34
[그림 2-20] 네칸형 .....	35
[그림 2-21] 문화와 공업화의 변화단계 .....	42
[그림 2-22] 문화변동의 유형 .....	42
[그림 3-1] 사례마을의 위치 .....	48
[그림 3-2] 고내마을 전경 .....	50
[그림 3-3] 고내마을 배치도 .....	51
[그림 3-4] 유수암마을 전경 .....	52
[그림 3-5] 유수암마을 배치도 .....	52
[그림 3-6] 남읍마을 전경 .....	53
[그림 3-7] 남읍마을 배치도 .....	53
[그림 3-8] 명월마을 전경 .....	54
[그림 3-9] 명월마을 배치도 .....	54

[그림 3-10] 금악마을 전경 .....	55
[그림 3-11] 금악마을 배치도 .....	55
[그림 3-12] 신촌마을 전경 .....	56
[그림 3-13] 신촌마을 배치도 .....	56
[그림 3-14] 사계마을 전경 .....	57
[그림 3-15] 사계마을 배치도 .....	57
[그림 3-16] 오조마을 전경 .....	58
[그림 3-17] 오조마을 배치도 .....	58
[그림 3-18] 재래형농촌주거의 평면1(사례N48) .....	77
[그림 3-19] 재래형농촌주거의 평면2(사례U55) .....	77
[그림 3-20] 개량형농촌주거의 평면1(사례G82) .....	79
[그림 3-21] 개량형농촌주거의 평면2(사례M83) .....	79
[그림 3-22] 현대형농촌주거의 평면1(사례G95) .....	81
[그림 3-23] 현대형농촌주거의 평면2(사례N99) .....	81
[그림 4-1] 마루후면 소파배치(사례G73) .....	89
[그림 4-2] 소파와 좌식탁자의 혼용사용(사례G85) .....	89
[그림 4-3] 경조사 시 부엌바닥 사용(사례M83) .....	90
[그림 4-4] 찻방 가구 및 가사물품보관(사례K70) .....	90
[그림 4-5] 기존 굴묵위 벽장에 수납불박이장 설치(사례K61) .....	90
[그림 4-6] 안방의 상징적 장롱배치(사례SA92) .....	90
[그림 4-7] 좌식의 위생행위(사례M83-1) .....	92
[그림 4-8] 욕조에 그릇보관(사례M83-1) .....	92
[그림 4-9] 재래형 가구현황 .....	92
[그림 4-10] 개량형 가구현황 .....	92
[그림 4-11] 현대형 가구현황 .....	92
[그림 4-12] 제사방 배치사례 .....	100
[그림 4-13] 가변형문과 마루후면 접객공간(사례G73) .....	101
[그림 4-14] 재래형 다용도실(사례M67) .....	102
[그림 4-15] 개량형 다용도실(사례G85) .....	102
[그림 4-16] 현대형 다용도실(사례U91) .....	102
[그림 4-17] 다용도실의 배치(사례U91) .....	102
[그림 4-18] 안·밖거리 주거의 공간구조 .....	103
[그림 4-19] 세대간 거주위치 변화 .....	105
[그림 4-20] 세대간 주동의 공간구성 및 주생활과의 관계 .....	108
[그림 4-21] 침실·부엌·마루분리형 (A형) .....	109
[그림 4-22] 침실·부엌분리형 (B형) .....	110

[그림 4-23] 침실분리형(C형) .....	110
[그림 4-24] 침실·마루분리형(D형) .....	111
[그림 4-25] 침실·부엌·마루분리형(A형)의 1, 2층분리 사례 .....	111
[그림 5-1] 내부공간확대와 접합의 사례(사례K70) .....	116
[그림 5-2] 생활공간의 증축(사례G82) .....	117
[그림 5-3] 생활공간의 주동증축(사례M73) .....	117
[그림 5-4] 농기계창고의 증축(사례K65) .....	118
[그림 5-5] 박거리창고를 생활공간으로 용도변경(사례G73) .....	119
[그림 5-6] 박거리생활공간이 창고로 용도변경(사례O90) .....	119
[그림 5-7] 쇠막이 창고로 용도변경(사례N48) .....	119
[그림 5-8] 용도별 변용 .....	120
[그림 5-9] 공간별 증·개축현황 .....	120
[그림 5-10] 고팡의 용도변경 .....	121
[그림 5-11] 부엌의 용도변경 .....	121
[그림 5-12] 내부공간의 확대(사례G50) .....	122
[그림 5-13] 원형에서 면적만 늘어난 확장 .....	123
[그림 5-14] 안방과 작은방의 통합 .....	123
[그림 5-15] 마루후면의 부엌부가 .....	124
[그림 5-16] 생활공간측면의 다용도기능 부가(사례SA77) .....	124
[그림 5-17] 출입문의 제거후 접객공간화(사례U87) .....	125
[그림 5-18] 작은방 미서기문 제거(사례SA92) .....	125
[그림 5-19] 마루후면 챗방문 제거(사례N85) .....	125
[그림 5-20] 마루바닥의 변경후 안방행위가 연장(사례O62) .....	126
[그림 5-21] 마루바닥의 변경후 생활가구가 마루배치(사례N56) .....	126
[그림 5-22] 재래형 제 1단계 사례1 .....	127
[그림 5-23] 재래형 제 1단계 사례2 .....	128
[그림 5-24] 재래형 제 2단계 사례1 .....	128
[그림 5-25] 재래형 제 2단계 사례2 .....	129
[그림 5-26] 재래형 제 3단계 사례 .....	129
[그림 5-27] 개량형 제 1단계 사례1 .....	130
[그림 5-28] 개량형 제 1단계 사례2 .....	130
[그림 5-29] 개량형 제 2단계 사례1 .....	131
[그림 5-30] 개량형 제 2단계 사례2 .....	131
[그림 5-31] 개량형 제 3단계 사례1 .....	132
[그림 5-32] 개량형 제 3단계 사례2 .....	132
[그림 5-33] 현대형 제 3단계 사례 .....	133

[그림 5-34] 농촌주거의 2층 단일화(사례O96) .....	136
[그림 5-35] 2층주거의 1층 부속공간화(사례O96) .....	136
[그림 5-36] 경조사 시 마당의 이용(사례O68) .....	138
[그림 5-37] 경조사 시 창고에서의 음식장만(사례O68) .....	138
[그림 5-38] 현대형 주거의 거실에서의 좌식생활(사례M95) .....	142
[그림 5-39] 부엌의 변화과정 .....	143
[그림 5-40] 부엌에서의 좌식 식사행위(사례K70) .....	144
[그림 5-41] 식탁과 밥상의 혼용사용(사례U67) .....	144
[그림 5-42] 욕실 및 화장실의 측면배치(사례SA92) .....	146
[그림 5-43] 개방적 현관 배치(사례N98) .....	147

# 제1장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1.1 연구 배경

주거는 인간에 의해 변형되어 왔으며 또한 인간의 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변화되고 있다. 라포포트 아모스(Rapoport Amos)는 주거는 구조물이 아니고 복합적인, 일련의 목적을 위해 창조되는 하나의 제도(institution)라 하였고 또한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문화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형태의 조직은 그것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sup>1)</sup>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는 문화적 여건에 대해 적응하려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며 그 지역의 자연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알맞은 형태로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농업위주의 경제생활에서 벗어나 공업위주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경제체제가 바뀌면서 사회제도, 가치체계, 규범 등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근대화에 따른 이러한 사회변화는 도시와 함께 농촌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전통적인 마을의 정주환경과 주거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졌던 주택개량과 마을 환경조성사업으로 인해 농촌주거는 전통적인 주거방식에서 탈피하여 근대적인 주거환경으로의 변화를 겪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농촌주거환경은 근대화에 따른 변화와 전통문화의 지속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구화, 근대화의 요소 속에 전통문화의 이중성이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농촌의 주거환경은 도시지역의 주거환경보다는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훨씬 더 많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King A.D.는 이러한 현상을 제1문화(기존토착문화)에 제2문화(서구문화)가 들어와서 제3의 복합문화가 탄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화에 의해서 서구사회와는 유사하게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의 토착화 과정에서 서구사회와 동일하게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문화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며, 사회현상에서 나타나는 근대화와 전통문화는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서로 상보적인 입장이 되는 것이다.<sup>2)</sup> 특히 전통문화는 근대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전통성이 아니라 지

---

1) Rapoport, A., 이규복 역, 『주거의 형태와 문화』, 열화당, 1995, p. 72.

역성의 개념으로<sup>3)</sup> 이해하여야 하며, 지역의 전통에 대한 이해와 외래문화 수용이라는 문화적 수정(cultural filtering)의 측면으로 농촌주거를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는 그 문화가 생성되는 과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과 전통을 갖기 마련이며 주거의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일은 바로 이러한 지역적 특징을 재발견하고 실현시키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sup>4)</sup>

특히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지역의 풍토, 역사,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상이함을 보이고 있고, 주거환경에 있어서도 제주지역의 특성을 비교적 많이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농촌주거는 도시지역과 다르게 지역성을 유지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제주도 농촌주거의 실정은,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전국단위의 획일적인 주거의 개량사업과 아울러 도시적 특성을 갖는 주택양식이 대량으로 건립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각종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 조성사업들이 농촌주거모형을 오로지 도시화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 것에서 그 문제성을 나타낸다. 또한 주거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도 민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건축 측면의 연구와 농촌주거에 관련된 피상적이고 부분적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민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건축의 연구는 전통주거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현재 농촌주거와는 다소 괴리가 있으며, 또한 기존의 농촌주거와 관련된 연구도 농촌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거를 포괄하는 연구로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거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과거의 주거문화만을 이해하

---

2) King A. D., "Cultural Pluralism and Urban Form", in Rapoport, Amos, ed, The Mutual Interaction of People and their Built Environment, Munton, 1976, pp. 51~76.

3) 근대화는 근대성과 지역성사이의 생태학적 균형의 개념으로 근대성의 반대가 전통이 아니고 지역성이라는 것이다. 임창복, 『한국 도시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pp. 14~15, 재인용.

4) 지역적 측면의 주거연구는 일본에서 상당히 진전되어 왔는데 근대화에 대한 회의와 전통의 지속이라는 명제를 갖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1970년대 고도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로 등장하게 되었다. 시대는 변화하고 변화하는 것은 과연 진보인가라는 진보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즉, 농촌은 뒤떨어져 있고 도시는 발달했다는 견해는 너무 일면적이며 농촌에도 농촌고유의 발전구조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로 북해도의 기후풍토적 관점에서 LDK형 주거를 연구한 足達富士夫, 野口孝博의 『적설한랭지의 주호계획에 관한 연구』(1982)가 있고 지역의 생활문화의 지속측면에서 다다미방의 형태에 주목하고 주택의 지역차를 새롭게 연구한 住田昌二의 『현대주택의 지방성』(1983)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나타나는 주제는 지역의 차이를 각각 독자적인 발전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것이다. 대한주택공사, 『집합주택계획연구사』,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1993, pp. 45~46, p. 277, p. 285. 재인용.

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형태와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1.1.2 연구 목적

위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분석을 통하여 생활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문화적 특성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공간과 주생활의 상호 대응관계를 통하여 주생활양식 측면에서 나타나는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것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대응한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특성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근대화 과정 속에서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지속과 변화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것은 거주자들에 의해 형성되어온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이 어떠한 변화과정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향후 농촌주거 계획 시 방향을 설정하여 주는데 커다란 목적이 있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 1.2.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하여 한 지역의 주거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농촌주거를 문화적 속성으로 파악하여 농촌 근대화에 따른 농촌주거의 변화를 문화변동으로 정의 내리고, 지역문화에 근대적 보편문화가 전개됨으로써 나타나는 전통문화요소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의 틀을 설정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전반적 특징과 농촌주거의 변화와 변화요인을 문헌연구방법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기존의 문헌을 통하여 제주지역 전통민가의 형성배경과 배치 및 평면을 고찰하였다.

둘째, 사례지역에 시 계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농촌주거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주거형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현장연구방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에 위치한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8개 마을 72개 주거의 사례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대상 주거를 직접 방문

하여 실측조사, 관찰조사, 면담조사 등의 현장연구를 실시하였다.

둘째, 실측조사는 대상 농촌주거의 내·외부공간의 물리적 현황을 실측하여 평면도, 배치도를 작성하고 내부의 가구류, 가전제품, 기타 생활용품의 위치와 크기를 평면도에 스케치하였다.

셋째, 관찰 조사는 거주자들의 행위를 직접 관찰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조사 이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넷째, 면담조사는 거주자와의 직접면담(interview)방법을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현장기록과 녹음을 사용하여 녹취한 후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위와 같이 정리된 자료는 연구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집중관찰이 요하는 사항은 재차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모든 자료는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평균, 빈도, 백분율로 단순 통계 처리하여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 1.2.2 연구 범위

첫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해방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이후 줄곧 격동적인 사회적, 문화적 변동을 거쳐왔다. 따라서 사회·문화의 산물인 주거도 그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된 점을 인식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둘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사례대상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북제주 지역과 남제주 지역 마을, 해안과 중산간 마을을 포함할 수 있는 제주도 전지역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주거내의 공간적 범위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구분하여, 주거동, 부속사, 마당과 같은 주거의 외부공간 요소와 방, 마루, 부엌등과 같은 주거의 내부공간 요소로 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농촌의 일반적 개념에서 벗어난 목적에 의해 건설된 주택은 제외하고, 농촌마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단독주택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조사방법의 특성상 주거공간의 시차적 변화과정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의 단면적 시점에서 공간변화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상 건축부분의 정확성이나 시간적 사실보다는 주거와 관련된 공간의 이해가 중시되어야 함으로 실측 조사자료와 거주자의 인터뷰에 의거하여 원형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1.3 논문구성 및 연구의 흐름

본 연구는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각 장별로 유기적이며 위계적인 체계를 지닌다. 논문은 총 6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과 순서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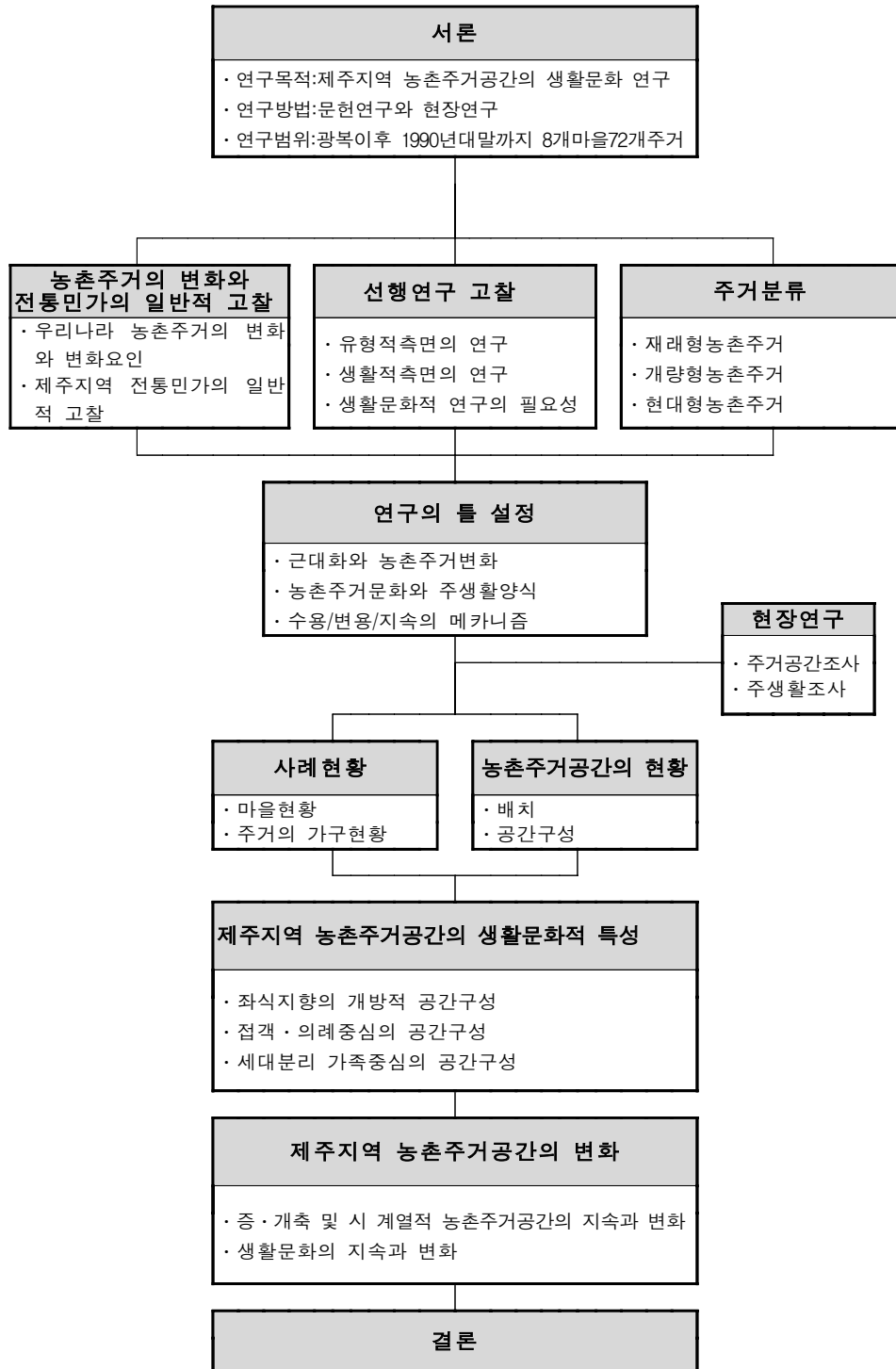
제2장은 이론 및 기존 문헌에 대한 분석의 장으로서, 기존 이론의 고찰을 통해 농촌사회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농촌주거의 변화와 그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문헌 연구를 통하여 제주지역 민가의 형성배경과 배치 및 평면분류를 살펴보았으며 다양하게 나타나는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시 계열적 분류를 통하여 사례분석에 체계화를 도모하였다.

제3장은 사례지역의 일반적 현황을 기술한 장으로서, 농촌주거의 조사방법과 그 내용을 서술하였고 마을 및 주거의 가구현황을 파악하였으며, 농촌주거공간을 배치와 공간구성에 따라 구분하여 농촌주거공간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은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에 나타나는 생활양식적 측면에서 주공간과 주생활을 분석하여 좌식지향의 개방적 공간구성, 집객·의례중심의 공간구성, 세대분리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에 대한 생활문화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5장은 근대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생활문화적 특성의 지속성과 변화성을 증·개축에 의한 변화와 시 계열적 변화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제6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결론의 장으로서, 여기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된 제주도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과 근대화에 따른 생활문화 특성의 지속성과 변화성을 요약, 정리하였다. 동시에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서 정리하였고 추후과제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1.4 선행연구 고찰

지금까지 제주도 지역연구는 그 대상과 관점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동시에 여러 학문분야와 서로 관련이 되어 모든 사회과학, 인문과학 및 환경계획 분야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제주도 주거연구는 건축학,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지리학 등이 그 대표적 연구분야로서 서로 학문적 영역을 공유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도 주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 주거건축 연구는 다양한 변화 속에 원형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건축물의 물리적 변화를 추적하여 특성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로 민가연구나 지역의 건축적 특성 및 원형의 변형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추적하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건축적 형태의 유형적 분류와 구성체계의 변화를 문화적, 지역적 조건을 기준으로 다루며 여기에 공간론적 연구가 가미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 이루어진 제주도주거에 관한 연구는 전통민가의 평면형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제시한 김홍식<sup>5)</sup>, 장보웅<sup>6)</sup>의 연구가 있고 한국민가를 북부형과 제주도형으로 분류하여 비교한 조성기<sup>7)</sup>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물리적 형태의 특징을 중심으로 평면형, 배치형, 입면의 구조 및 의장에 관한 연구가 있다.

입면의 구조 및 의장 연구로 김석윤<sup>8)</sup>은 제주도 반가의 입면 특성과 의장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신석하<sup>9)</sup>는 제주도 민가의 입면을 구조재의 특성과 비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의미적 연구로 정영철<sup>10)</sup>은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구조 특성을 민간신앙의 무속, 건축의례, 통과례로 해석하였다. 생활적 연구로 강행생<sup>11)</sup>은 안·밖거리형 주거의 공간구성과 사회조사를 통하여 부모, 자식세대의 생활관계를 밝히고 있으며, 김석윤<sup>12)</sup>은 19세기 제주도 반가의 변용을 성리학적 예법과 생

---

5)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6)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선제, 1981.

7) 조성기,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권 112호, 1983. 6.

8)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86.

9) 신석하, 『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1987.

10)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1.

11) 강행생, 『제주도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85.

12)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논문,

생활동에 따른 특성으로 파악하였으며, 양택훈<sup>13)</sup>은 제주민가의 공간구성 및 생활의 관련성을 증·개축 측면에서 추적하여 파악하였다. 곽희석<sup>14)</sup>은 제주도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는 부모, 자식세대의 거주형태를 밝히고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유형적 측면에서 제주도 주거의 형태를 분류하거나 주거 특성을 분석한 것과 물리적 조건에 대응하는 생활적 측면에서 거주자의 특성을 파악한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주거의 물리적 형태와 거주자 생활의 상호관련성 면에서 생활문화적 측면의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연구대상이 부분적인 주거에 불과하여 농촌지역에 분포하는 재래주거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근대화된 주거와의 시·계열적 측면에서의 변화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표 1-1〉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방법	게재	년도
곽희석	분가 촌락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세대간의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	성읍민속마을내 주거에서 나타나는 세대간의 공간사용방법연구	현장조사	건축학회	2001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을 성리학적 예법과 생산활동에 따른 특성으로 파악	문헌조사, 실측조사	명지대	1996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의 건축적 연구	제주민가를 근대화의 관점에서 증개축을 통해 변화과정을 파악	현장조사, 실측조사	한양대	1992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제주도 민간신앙을 통해 전통민가공간구조의 상징적 의미를 규명	문헌조사	한양대	1991
신석하	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제주도 민가의 입면의 구조재의 특성과 비례 분석	실측조사	명지대	1987
김석윤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제주도의 후기 조선시대의 반가의 토속 건축의 장소성을 파악	실측조사	국민대	1986
강행생	제주도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의 조사연구	전통 주거형으로서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조를 파악	실측조사, 빈도조사	건국대	1985
조성기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한국민가와 제주도형의 평면형, 배치형을 분류하여 비교	문헌조사	건축학회	1988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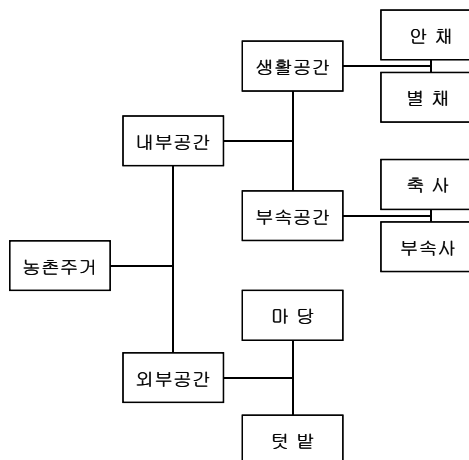
13)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2.

14) 곽희석, '분가 촌락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세대간의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권 1호(통권147호), 2001. 1.

## 1.5 용어정의

건축분야에 언급하는 농촌주거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농촌주택, 농가주택, 농가, 농촌주거 등 용어가 구체적인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 농촌주택은 농촌이라는 지역, 환경을 포함하는 용어이며 농가주택과 농가는 농업이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보다 적당한 용어이다. 농촌주거는 농촌에 있는 주택의 장소뿐 아니라 특정한 지리적 공간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Saegert, 1985)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사회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가 동시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생활공간(이정근, 1986)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주거의 물리적 측면과 생활적 측면을 고려한 거주자 삶을 파악하는 목적의 연구로 주제의 특성상 농촌주거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이러한 농촌주거는 도시주거와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주생활공간 뿐 아니라 창고와 축사 같은 농작업공간이 나타나는 것이다. 공간구성은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으로 분류되며 내부공간은 다시 생활공간과 부속공간으로 나누어진다. 생활공간은 안채와 별채로 분리되어 주로 주생활 행위가 이루어진다. 부속공간은 축사와 각종 농기계 및 농산물 수납 등의 농업용 목적을 위해 만든 부속사로 이루어진다. 외부공간은 농작업을 위한 마당과 부식재배를 위한 텃밭이 일반적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농촌주거의 내·외부 공간은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생활공간을 형성한다.



[그림 1-2] 농촌주거의 공간구성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농촌주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용어들이 낯선 것들이 많아 먼저 용어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연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sup>15)</sup>

- 1) 안거리: 안채 또는 본 채
- 2) 밖거리: 바깥채로서 본 채와 마주 앉은 형
- 3) 모거리: 바깥채로서 본 채와 직각으로 놓인 형
- 4) 안·밖거리형 주거: 한 울타리 안에 안채와 바깥채에 거주하면서 부엌을 각각 두고 경제단위를 분리한 동거주거
- 5) 이문간: 대문간
- 6) 정지: 부엌
- 7) 우영: 울타리 안에 있는 밭, 텃밭, 채소 따위를 갈아먹는 공지
- 8) 놀: 가리, 짚이나 마소의 풀 따위를 차곡차곡 둥그렇게 쌓아올린 더미
- 9) 안뒤: 안거리 뒤에 있는 정적인 공간, 후원
- 10) 올래: 거릿길에서 대문까지 집으로 드나드는 좁은 골목길
- 11) 구들: 방구들의 준말,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구들을 놓고 불을 떼도록 만든 간(間)
- 12) 큰구들: 큰방
- 13) 작은구들: 작은방
- 14) 상방: 마루
- 15) 정지: 부엌
- 16) 찻방: 안방곁에 딸려 있어 식사를 주로 하는방 (찻방 이라고도 함)
- 17) 고팡: 곡류(보리, 콩, 조등)유채등을 담은 항아리를 넣어두는 방 (고방, 꿔팡, 안팡 이라고도 함)
- 18) 난간: 대청방이나 구들방 바깥 옆으로 좁다랗게 마루같이 죽 널을 깔아 놓은 곳. (뽕마루, 난간 이라고도 함)
- 19) 굴목: 구들방에 불을 떼게 만드는 아궁이 및 아궁이 바깥부분
- 20) 쇠왕, 쇠막: 외양간, 농기구 보관 및 헛간으로 사용
- 21) 통시: 돼지우리 겸 변소

15)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어 사전』, 제주도, 1995.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고찰

### 2.1 우리나라 농촌주거의 변화

#### 2.1.1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특성

##### 1) 농촌사회의 특성

농촌의 개념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단일한 개념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모호함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사회로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의 구조적인 성격이 변해가면서 전통적인 농촌의 개념이 파괴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농촌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대부분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농민) 또는 농가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 (이희승편, 1982)이란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농촌은 마을과 농업, 농민 또는 농가를 함축하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16)</sup>

농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 개념으로서 도시와 비교하여 인구, 산업, 사회적, 문화적 기준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의 농촌과 도시의 구분기준은 인구규모나 인구밀도를 엄격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대체로 행정단위를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기관과 사업목적에 따라 농촌의 구분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군부의 지역을 농촌으로 하는 읍의 인구규모를 대략 5만 명을 기준 삼을 때 결국 5만 명 이하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사회가 농촌으로 구분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읍 중 인구 2만 명 이하의 읍과 면을 합쳐 농촌으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은 비교적 도시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으며, 인구 2만 명 이하의 읍은 대체로 농업 중심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면부와 함께 농촌으로 구분함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센서스나 기타 공식자료는 대체로 군부를 농촌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7)</sup>

둘째, 산업에 의한 구분으로 농촌이란 도시지역사회(urban community)와 구별

16) 최양부,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전통농촌의 해체』, 『한국사회학』, 제19집, 1985, p. 125.

17) 홍동식,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1996, pp. 16~25.

되는 농촌지역사회(rural community)로 경제적 기반이 일차산업인 농업을 근거로 성립하는 지역 공동체를 의미한다.<sup>18)</sup>

셋째,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회·문화적 특성인 익명성, 분업, 주민의 다양성, 공식적 인간관계, 지위의 외면적 상징의 다섯 가지 차이를 들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소로킨(Sorokin)의 도농이분법<sup>19)</sup>에 의한 농촌과 도시의 특징을 상세히 비교하면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도시와 농촌의 비교

도시	농촌
전인적 결합관계	목적적 계산적관계
전통지향적	합리성 추구
종교성이 강함	세속적임
가족주의적, 지방주의적	개인주의적, 세계주의적
자급자족적 생산경제	상품생산경제
토지이용의 평면화	토지이용의 수직적 집약적
인구의 지역내 인구이동이 적음	인구이동이 많음
인간관계가 직접적이고 지속적	인간관계가 일시적 간접적
상부상조적	경쟁적이다.
생산과 소비생활의 미분리	생산과 소비생활의 분리
관습의 지배	법의 지배
독립적 폐쇄성	개방성

출처: 최재율, 『농촌사회학』, 예풍출판사, 1999, p. 27

이상에서 농촌의 특징을 도시와 비교하여 본 결과, 농촌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sup>20)</sup>

첫째, 농업을 주생업으로 하는 지역사회로서 토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둘째, 농민은 상대적으로 정착성이 강하며, 조상 대대로 한 마을 한집에서 살고 좀처럼 이동하지 않는다.

셋째, 작은 호수와 인구가 밀집한 공간에서 생활한다.

넷째, 집단부락 형태의 소우주를 형성하여 내부의 결속성과 외부적 폐쇄성의 특징을 갖는다.

다섯째, 농민은 서로 밀집하여 살고 있으므로 친밀성이 강하다.

여섯째, 생업과 일상생활의 이해와 관심의 공통성이 있고 상부상조정신을 발휘

18) 홍동식외, 『농촌사회학』, 법문사, 1984, p. 19.

19) 최재율, 『농촌사회학』, 예풍출판사, 1999, p. 27.

20) ibid., pp. 24~28.



한다.

일급제, 계층분화가 미성숙하고 완만하다.

여덟째, 법보다 관습이나 여론에 의해 사회통제가 이루어진다.

아홉째, 농촌은 아직도 가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잔존한다.

열째, 농촌은 전통사회의 선례가 존중되는 사회로 변화를 바라는 경향이 없다.

## 2) 농촌사회의 변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1960년대 이후 계속된 산업화, 도시화의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농촌지역의 전통적인 가치는 성장위주의 경제주의에 의하여 대치되게 되었다.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난 농촌사회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형태의 변화이다. 즉, 근대사회 이전단계까지만 해도 농업은 인간생존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식량생산 뿐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소재를 스스로 조달하는 자급자족적 경제체제를 유지하며, 획득하는 기초산업이었다. 이것은 가족노동력과 관행적 기술에 의존한 생산방식으로 토지 이용면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식생활에 필요한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는 전통적 소농경제인 자급자족적 생산농<sup>21)</sup>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시장경제의 보편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에 있어서도 자급자족적 농업생산양식은 점차 분해 내지 해체되고 농업의 생산화와 상업적 진전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상업적 농업은 농업생산의 목적이 종래의 사용가치 중심에서 교환가치 중심으로 전환되어 간다는데 기초한다. 일반농가에서 생산지향적인 자급적 또는 농업생산양식에서 채소, 과수, 축산 등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본격적인 상업농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과정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농업경제의 도시 및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영농 및 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현금수요가 크게 증대되어 현금수요 충족을 위해 환금작물(cash crop)또는 경제 작물 중심으로 농업생산을 도모하게 되었다.

둘째, 생활의 변화이다. 즉,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의 농촌은 일상적인 생활상의 필요나 욕구의 충족은 물론 생활물질의 조달 등 대부분의 생산 및 생산활동이 자급자족에 의해 영위되어 왔는데, 이는 농촌의 자연적, 역사적 환경과 조건에 대응하여 기능적이고 창의적인 생활양식을 유지해 왔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하

---

21) 생산농은 농촌의 생산활동 목적이 시장판매를 위한 것보다는 자기식량확보를 유지하는데 있다. 즉, 생산농은 생존이 가능한 최저의 삶(subsistence living)을 위해 일하는 자급적 생산자(subsistence producer)이다.

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농촌의 자급자족적 생활 기능은 점차 해체되고 상품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자본주의 산업이 농촌의 자급자족하던 농업 생산재료와 생활물자 또는 그 대용품을 대량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농촌의 자급자족적 기능을 대치하는데서 기인하게 된다. 주생활측면에서 대표적인 예로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원이 발달함에 따라 변하게 된 전통적 생활방식을 들 수 있다.

셋째, 의식의 변화이다. 즉, 산업화가 일반화되기 전 단계는 농촌사회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농촌의 가치관은 사회전체의 가치관과 거의 일치하였다. 따라서 산업화된 사회에 있어서 농촌의 가치관은 그 사회의 전통적 가치관에 해당되며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의 측면에는 산업사회에서 특이하게 존재하는 가치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은 전적으로 종교적 지향(religious orientation)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농촌의 전통적 가치관은 가족주의, 토지신성시, 보수주의, 자연에의 복종, 유연한 시간개념, 숙명론이 지적되고 있다.<sup>22)</sup>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민주적 가치와 합리성에 바탕을 둔 가치체계로 전통적 가치관이 대치하게 된다.

넷째, 공동체의 해체이다. 즉, 전통사회의 부락공동체나 지역사회 등과 같은 농촌공동체는 지연, 혈연 등과 같은 귀속적 요인을 기초로 형성되며 특별한 이해관계를 기초로 형성되기보다는 정서적인 연대를 기초로 유지되며 그 구성원들의 충원도 귀속적 요인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조직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구성원의 생활전반에 관여하는 다기능적이며, 다목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락의 동질성과 비 이동성이 점차 파괴되어감에 따라 공동체가 가지는 규제력이 약화되고 부락 외부와의 접촉이 많아지게 되면서 외부의 영향에 의해 생겨나는 새로운 결사체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농촌의 조직도 공동체적 성격에서 계층적 이해나 계급 입장에서 선 이익 집단적 성격으로 변하게 되었고, 마을 단위에서 보다 확대된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사회적 통과 의례와 경제적 필요에 의한 사회경제적 협동중심에서 전문화된 기능 중심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생활권의 확대이다. 즉, 전통적인 농촌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영위되는 지역은 마을이라고 불리는 자연부락이었다. 농촌에서 부락이라는 생활공동

---

22) Sanders, Irwin T., "Rural societ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7, pp. 81~86.

체가 성립하는 본질적인 계기는 상호의존하지 않으면 생산할 수 없는 공동사회성(gemeinschaft)과 공동체의 외부에 대한 봉건성(geschlossenschaft)이었다.<sup>23)</sup> 그러나 도시화,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락의 자급적이고 폐쇄적인 생활공동체의 속성은 약화되고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부락의 자족성과 폐쇄성이 지속될 수 있었던 동질성, 안정성, 비 이동성 및 연대감을 파괴한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와 같이 부락이 생활보장의 단위가 되는 생활공동체로서의 성격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주민들의 생활보장은 점차 공식적 관계로 전이된다. 부락은 자급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생활권으로의 기능이 축소되고 농촌생활상의 기본수요나 요구의 충족은 주변 도시지역으로 이전하게 됨으로 농촌사회 전체가 근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차 더욱 폭넓은 체계에 의존하게 되는 부분사회들(part-societies)로 변모해 간다.<sup>24)</sup>

### 2.1.2 우리나라 농촌주거의 변화

농촌사회는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도시와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이것은 건축측면에 있어서 농촌주거가 도시와는 다른 변화의 양상을 갖고 발전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농촌주거는 1960년대 이전까지는 아직 근대화의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재래식 농경생활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고 과거 전통적인 민가의 형태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농촌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5)</sup> 새마을운동 이후 농촌주거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하나는 관 주도로 이루어진 농촌주택이나 취락구조 개선이고 또 하나는 농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변화된 농촌주거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먼저, 관 주도로 이루어진 농촌주거의 변화를 살펴보면,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농촌개발정책이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농촌교도사업에 의해 수행된 시기이고, 농촌진흥청이 발족된 1962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시범농촌건설사업이라는 틀 속에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농촌진흥청에 의해 추진된 시기로 볼 수 있다. 19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제창된 새마을 운동의 도입으로

23) 최재석, 『한국농촌사회연구』, 민중서관, 1966, p. 87.

24) Long, Norman,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ural Development", Tavistock Publications, Inc, London, 1977, pp. 14~15.

25)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p. 197.

26) 최효승, '농촌주택', 『주거론』, 대한건축학회, 1997, p. 520.

마을환경 개선사업과 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이 내무부 행정력을 통하여 활발히 추진된 시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정주생활권개념에 의한 새로운 농촌개발방식이 연구되고 농촌지역 종합개발방식의 정책화를 추진한 시기로 내무부와 농업진흥청에 의해 주택내부개선사업이 꾸준히 추진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1990년대 전반기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농어촌정주생활권계획이 추진되기 시작한 시기로 농수산부와 농어촌진흥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시작하였다. 농촌의 주택이나 취락의 변화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 농촌개발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2-2와 같다.<sup>27)</sup>

관 주도의 농촌주거 개선사업은 농촌의 근대화를 목표로 정부 주도하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마을 환경개선사업이나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마을과 주택의 형태를 변화시켜 농촌생활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였다. 특히 농촌에 들어오기 시작한 가전제품들은 가정생활을 변모시켰고 시멘트, 유리, 슬레이트 등의 근대적 건축재료와 공법들이 농촌주택에 사용되었으며 영농기계화에 다른 농기구들이 새로운 공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sup>28)</sup> 그러나 새마을 사업을 통한 농촌의 근대화는 결과적으로 농촌주거문화를 획일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전통과의 단절을 야기 시키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농민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신축이나 증·개축된 농촌주택의 변화는 획일적으로 진행된 농촌개량사업과는 달리 거주자의 생활측면에서 농촌주거 안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정부도 실적위주의 농촌주거건설을 지양하면서 주민의 자발적 선택을 유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농촌주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는 도시주거와는 구별되는 농촌주거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농촌주거가 농민의 생활양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볼 때 외부의 행정적 규제가 없을 때에는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거주자인 농민의 요구를 보다 더 반영하는 형태로 만들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농촌주거는 도시주거에서 볼 수 없는 생활요소인 농업생산활동과 이전보다 약화된 하였으나 아직도 전통관습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공동생활과 의례생활 등의 요인에 의해 도시주거와는 다른 형태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촌의 근대화에 따른 도시문화의 유입은 도시와 농촌과의 생활의 차이를 좁히게 됨으로써 농촌주거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 도시적 경향을 갖는 농촌주거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27) *ibid.*, p. 514.

28)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pp. 197~201.

〈표 2-2〉 농촌개발 정책의 변화

시행년도	정책과 사업	사업내용
1957	농사교도법 공포	농촌생활개선사업을 농사교도사업의 3대사업의 하나로 규정
1958	농사교도사업시작 지역사회개발사업시작	농촌의 의식주 생활 및 보건 위생등 생활합리화를 위해 농촌주부지도 농촌개발, 사회교육개발, 농민조직육성, 생활개선, 마을 하부구조 개선사업등
1962.3	농촌진흥법공포	농촌진흥청 발족 지역사회개발사업과 농사교도사업을 농촌지도사업으로 통합하여 농촌진흥청으로 종합 이관
1967.2	농촌지붕개량촉진법 공포	농어촌 초가지붕을 기와, 슬래트,함석등으로 개량하여 농어민 생활환경 개선
1970.1	농촌근대화 촉진법 공포	농업진흥공사 설립
1970.10 ~1971.6	새마을 가꾸기 사업실시	지붕개량, 담장개량,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마을안길 넓히기, 농로개선, 마을회관, 창고, 놀이터등 환경개선사업추진(전국33,267마을대상)
1972.3	새마을 사업추진의 기본방침제시	기존환경사업에 정신개발사업, 생산소득 사업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개발사업으로 확대
1974	새마을운동을 범 국민 운동으로 확대	농촌생활환경정비, 새마을소득증대, 도시새마을운동을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1976	농촌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농촌주택개량, 마을구조개선, 공동시설, 도로, 농로, 생산기반정비, 소득개발사업등
1979	새마을사업의 광역화 시도	마을권 개발사업, 마을 간 협동권개발사업, 읍·면개발사업
1981 ~1984	새로운 농촌지역 개발방식 연구	지방 정주생활권의 설정 및 개념에 관한연구 시범 군 정주생활권개발계획수립을 통한 농촌개발방법론 연구(내무부지원) 농촌지역 종합개발방법론 개발(농촌경제연구원)
1985.9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중앙지원단구성	3개 시험사업대상 지역선정결정(공주군, 강진군, 청송군)
1986.3	농어촌종합대책발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방식 및 지역별 예산편성방식 도입 천명 농수산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공사의 농어촌종합개발 기능강화
1988.12	오지개발촉진법제정	생활기반시설, 산업시설, 기반시설설치와 수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 확충
1990.4 ~1990.8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생활환경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등을 확충 정비하고 농어촌 복지향상을 위해 정주생활권개발 농촌개발대상범위를 면 단위로 축소
1994.12 ~1995.6	농어촌 정비법 제정 동시행령 공포	농촌생활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위탁자로 농어촌진흥공사 등 명시 경제사회계획과 물리적 계획을 통합하는 총체적 종합개발 계획
1995.12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정공포	내무부장관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계획에서는 주택 및 부엌, 화장실 개량, 마을하수도 설치등 마을정비계획과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포함

출처: 최효승, "농촌주택", 『주거론』, 대한건축학회, 1997, p. 520.

이상에서 농촌주거의 변화를 시대별 원인과 내용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농촌주거의 변화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시기별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60년대는 농지정리, 도로조성, 수리시설 확충 등 소득기반조성과 농촌근대화사업에 주력함으로써 농촌주택 및 주거환경은 재래의 모습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는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농촌주택이 지붕개량, 부엌개량 등 주택개량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큰 변혁을 맞이했다. 1980년대 중반이후는 농촌경제의 소득수준 향상과 주거에 대한 요구가 변함에 따라 일률적인 주택개량에서 벗어나 농민의 자유의사에 의해 지어진 주거의 형태로 변화되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변화의 내용은 크게 주택규모의 확대, 주택의 실내공간 확대, 시설의 근대화, 거주공간과 영농공간의 분리 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주택규모의 확대에 따라 방의 기능분화 요구가 나타나면서 방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능분화에 따른 가구의 증가와 가전제품 등의 필요에 의해 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둘째, 실내공간 확대는 건축재료 및 설비의 발달로 외부에 있거나 개방적 구조로 되어 있던 공간들이 내실화의 경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마루에 유리문을 설치하여 내부공간화와 거실화 하는 경향이 있으며, 욕실배치도 증가하며 내부공간이 증가하게 된다. 셋째, 시설의 근대화는 급·배수 설비의 계획으로 생리위생공간인 욕실이 내실화 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변소는 주택내부와 외부에 설치되고 있다. 취사와 난방열원이 분리되어 취사 열원은 가스를 사용하고 난방은 보일러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부엌은 입식부엌으로 주택 중에서 가장 많은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식당을 겸용하는 DK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좌식문화인 온돌은 현대적 재료와 기술에 의해 보완·유지되어가고 있다. 넷째, 거주공간과 영농공간의 분리는 농촌의 영농방식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점차 거주성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켜 대지 내 주택의 전용화를 도모하게 되면서 거주공간과 생산작업에 관련된 공간이 분리되고 있다. 즉, 영농시설물들은 주거외부로 이동하거나 농업생산을 위한 부속사의 규모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주거가 대체로 단독주택형으로 규모가 확대되며 거실중심으로 개실이 확보되고 설비가 근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영농공간은 주거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적인 외형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주거는 생활문화적 측면에서 전통적인 관습이 지속되어 도시와는 다른 생활양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 2.1.3 우리나라 농촌주거의 변화요인

우리나라 농촌주거의 변화를 살펴보면,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는 대체적으로 사회적, 문화적으로 전통생활을 유지해오다가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을 기점으로 근대화의 요인들에 의해 기존의 생활방식이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이농현상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 농업의 기계화, 서구적 생활양식과 같은 요인이 농촌주거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농촌주거 변화요인은 연구자의 관점이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sup>29)</sup>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농촌주거의 변화요인은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의식구조의 변화, 주생활의 변화, 재료 및 기술의 변화, 생활연료의 변화,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인구구조 변화 등 8가지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8가지 변화요인 중 생활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재료 및 구조의 변화, 주생활의 변화 등이 농촌주거변화에 가장 강하게 작용한 변화요인으로 파악되어 이를 중심으로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사회구조의 변화

농촌주거의 사회구조변화는 인구의 변화와 농업구조의 변화로 설명되며, 이것은 농촌주거의 공간적 구조를 성격 지우는데 절대적으로 작용하였다. 농촌사회의 변화는 점차 자본주의 구조가 확립되면서 직업 및 경제력에 의한 사회계층구조가 재편성되고 산업화에 따라 농촌지역이 서서히 도시화 되었다. 도시화는 산업의 발달과 사회 서비스의 확대를 수반하여 필연적으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축소를 가져오게 되었다. 과거에는 전통적인 농업국으로서 인구가동이 극히 완만하였으나 1960년대에는 28.0%, 1970년대에는 41.1%, 1980년대에는 57.3%, 1995년대에는 78.5%로 전체 인구의 2/3가 도시에 집중되었다.

농촌인구의 감소는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심화되었으며 또한 농업인구의 연령별 분포가 40세미만은 10%미만, 40~60세 미만은 49%, 60세 이상은 42%로 농업인구의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29) 이계우(1986): 농업근대화, 인구구성, 주거수준

한필원(1987): 가족구조의 변화, 의식의 변화, 생활의 변화, 건축적 상황의 변화

이동락(1988): 농업생산구조의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의식구조의 변화

이봉두(1992): 가치관, 사회구조, 도시화와 인구집중, 가족구조, 재료 및 구조,  
생활연료, 주생활

노병수(1995): 가족구조의 변화, 건축재료 및 기술의 변화, 주생활

〈표 2-3〉 도시 및 농촌인구의 비율(%)

년대 분류	55년대	60년대	65년대	70년대	75년대	80년대	85년대	90년대	95년대
농촌	75.5	72.0	66.4	58.9	51.6	42.7	34.6	25.6	21.5
도시	24.5	28.6	33.6	41.1	48.4	57.3	65.4	74.4	78.5

출처 : 통계청 자료(1970~1995)

농업구조의 변화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의 진행으로 생계를 목적으로 영위되었던 자급자족적 영농이 시장 지향적인 상업적 환금농업방식으로 변화한 것을 말한다. 예로, 제주도의 농업이 생계유지를 위한 밭작물 농업에서 감귤을 중심으로 한 과수농업과 겨울철 채소농업 같은 상업농업으로 변화된 것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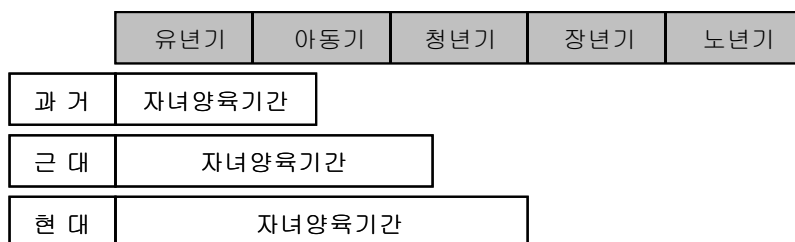
이러한 농업구조의 변화는 영농방식의 변화를 초래하여 농기계 보급의 확대와 주거 내부의 농작업 행위를 농경지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농기계의 사용은 주로 농경지, 방제작업 등 힘든 육체노동을 기계로 대처하고 노동력을 절감하여 상당한 증산효과를 거두고 있어 보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2) 가족구조의 변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구조는 가장중심으로, 가족의 세대구성이 1세대에서부터 3세대까지 분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도시에 비해 농촌은 3세대 구성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은 가족을 전통적으로 하나의 경제단위에 묶어 놓지 않고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야기 시켰다. 특히 산업화에 따라 가족의식이 점차 희박하게 되어 직계가족에서 부부가족으로 가족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근대화는 농촌 가족생활의 변화를 수반하였는데, 자녀들의 양육을 위한 부양기간은 그림 2-1에서와 같이 과거와 비교하여 교육중시 등으로 연장되었다. 따라서 학업 등을 이유로 출타하거나 취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생활에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자녀들의 이동은 농촌지역 젊은 층의 노동력이 급속히 낮아지는 원인이 되며 주거공간의 실사용이 공동화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 자녀의 양육기간

### 3) 생활양식의 변화

주거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일정한 생활양상이라는 의미에서 생활양식은 관습화된 주생활 행동을 말한다. 주생활양식은 가족의 구성, 사회계층, 지역적 특성 등에 의해 달라지며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생활양식은 공간구성, 가구사용 등이 결정요소로 거주자의 주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또한 생활양식은 각 가족 성원간의 프라이버시가 과거 보다 강하게 요구되어 생활의 분리에서 따른 공간의 분화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 분화현상에 의해 각 실의 용도는 거실, 식당, 침실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용도에 따른 개실화가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농촌주거에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좌식생활로 생활공간의 기능분화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고 좌식과 입식이 혼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온돌에서 취침을 하면서도 취사작업이 입식화 되고 있는 혼용식 생활양식이 나타난다.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가구, 집기, 각종설비가 다양화되고 입식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통적 생활관습 사이에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4) 건축재료 및 설비의 변화

전통적인 농촌주거는 대부분 목 구조이며 흙으로 마감된 주거형식이었다. 그러나 농촌의 근대화를 통한 시멘트·유리·슬레이트 등의 사용은 농촌주거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30)</sup> 즉, 초기에 농촌주거의 건축재료는 주로 목구조의 흙벽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멘트 블록구조로 변하게 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주거는 시멘트 벽돌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새로운 건축재료인 유리와 알루미늄 제품의 대중화되면서 문이나 창문 등 채광식 창호를 개량시켜 외

30) 강영환, op. cit., p. 201.

부와 관련이 높았던 주거가 내실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붕은 초가에서 슬래트, 기와, 슬라브 등의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생활연료에 있어서도 주로 농경의 부산물인 쪼, 겨 등의 펄갸 등을 채취해 사용하였으나 산업화의 영향으로 연탄이나 가스사용이 늘어났으며, 최근 농촌에서는 가스를 취사연료로 사용하고 석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보일러실과 같은 새로운 공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연료변화는 취사난방 겸용에서 취사난방분리로 부엌을 입식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부엌 바닥의 고저차를 없애고 입식 부엌개량을 유도하여 가사노동 감소의 편리성을 추구하였다.

## 2.2 제주지역 전통민가의 일반적 고찰

본 절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제주민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민가의 형성배경과 전통민가의 배치 및 평면분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 설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이해와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다.

### 2.2.1 제주지역 전통민가의 형성배경

제주지역 전통민가의 형성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민가형성과 보다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자연·환경요소와 인문·사회적 요소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자연·환경적 배경

자연환경적 요인으로 위치, 지형, 기후 세 가지를 파악하였다.

첫째, 제주도의 위치는 경도 126. 10'에서 126°58' 사이로 우리나라 서남방에 위치하고 위도는 북위 33°12'에서 33°34' 사이로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다. 본도의 면적은 1,820.05km<sup>2</sup>며 전국면적의 1.8%로 가장 적은 도(道)이다. 지도상의 모양은 타원으로 동서73km, 남북41km 일주도로 길이 181km, 해안선 258km 9개 유인도와 40개의 무인도 등 40개의 부속도서를 지닌 한국최대의 도서이다.<sup>31)</sup>

둘째, 지형은 주 봉인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매우 완만한 경사(3~5. )를 이루고 있으나 남북 방향에서는 약간 급한 경사(5°내외)를 갖는다. 전체적으로 보아 실크화산에서 볼 수 있는 아스피테형 화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모양은 제주도를 형성하는 화산분출이 전반기에는 황성분출이었으나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백록담 화구로 한 중심 분출이었다는데 기인한다.<sup>32)</sup> 그리고 주봉인 한라산에서 사방으로 흐르는 하천은 복류를 하여 지하수를 이루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건천을 이룬다. 이런 지하수는 해안부근에서 해수에 밀려 용출하기 때문에 제주도의 취락은 이 용천을 중심으로 해안에 치우쳐 큰 집촌을 이루게 된 것이다. 본도 전면적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현무암류는 온 섬을 덮어 석다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현무암은 구멍이 많고 점착성이 있으며 검은 빛깔을 띠며 가옥이나 담

31) 임호진, 『제주도 전통주거의 온열환경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1, p. 14.

32)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2, pp. 12~13.

장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셋째, 제주도의 기후는 난대류성 기후를 이루어 기온은 연중 온난하여 연평균 14.6℃ 최난월(8월) 25.9℃ 최한월(1월) 4.5℃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연교차가 적은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sup>33)</sup> 연평균 습도는 서귀포 80%, 제주시 77%로 서귀포가 현저하게 높다. 연 강수량은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최다우지로 연평균 강수량은 북제주 1,439.9mm, 서귀포 1,675.7mm로 북부 내륙지방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34)</sup>

〈표 2-4〉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

계절 지역	봄	여름	가을	겨울	합계
제주	244.2 (16.9)	594.5 (41.2)	406.2 (13.5)	195.0 (13.5)	1439.9 (100)
서귀포	494.2 (29.4)	737.0 (43.9)	285.1 (17.0)	159.4 (9.5)	1675.7 (100)
서울	210.0 (16.6)	751.5 (59.6)	227.5 (18.0)	70.1 (5.5)	1259.1 (100)
부산	341.3 (24.7)	610.1 (44.1)	322.1 (23.3)	107.9 (7.8)	1381.4 (100)
대구	177.3 (18.1)	498.4 (50.8)	235.9 (24.0)	67.7 (6.9)	979.3 (100)
중강진	146.9 (18.3)	472.6 (58.8)	153.5 (19.1)	39.5 (4.9)	802.5 (100)

《출처》 기상연구소, 1983, 단위mm, ( ):구성비(%)

또한 겨울의 강설은 해발 200m이하의 해안 저지대에서는 눈이 내리자마자 녹아버려 쌓이지 않지만 1000m이상의 한라산에 쌓인 눈은 이듬해 5월까지 잔설로 남아있다. 풍다(風多)로 알려진 제주도는 바람이 연중 불며 특히 겨울철에는 북서 계절풍이 심하게 불어 10m/s를 넘을 때가 많으며 때로는 20m/s까지 분다.<sup>35)</sup> 북제주의 경우 폭풍 일수 만을 봤을 때는 오히려 울릉도, 여수, 부산보다는 적은 117일로 나타나지만 17m/s이상의 태풍을 고려한다면 명백하게 북제주가 다풍지역에 속한다. 1940년~1982년까지 43년 간의 북태평양 상에 발생하여 이동한 태풍자료에 의하면 울릉도가 108회 통과하여 연 2.5회를 보이거나 제주에는 110회로 연 2.6회를 보여 10m/s이상의 폭풍일수 중 풍속이 강한 태풍일이 많음을 시사해

33) 임호진, op. cit., p. 16.

34) 김미령, '제주도의 기후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호 통권111호, 1998. 1, p. 223.

35) 임호진, op. cit., pp. 16~17.

준다. 평균 풍속은 남제주 3.8m/s, 북제주 4.7m/s로서 울릉도 4.8m/s를 제외하면 최대치를 보여준다. 제주도가 다풍지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태풍의 이동통로가 된다는 점과 절해고도라는 위치인자에 의한 것으로 동일한 풍속이라도 내륙이 아닌 도서에서는 일반적으로 2배의 위력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라산 이남지역인 서귀포는 겨울 계절풍의 바람 그늘이 되어 폭풍 일수가 단 7일밖에 되지 않는다.<sup>36)</sup>

〈표 2-5〉 지역별 폭풍일수

지역 \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합계
제주	32 (27.3)	21 (17.9)	21 (17.9)	43 (36.7)	117 (100)
서귀포	3 (42.8)	- (0.0)	- (0.0)	3 (42.8)	7 (100)
울릉도	55 (30.7)	37 (20.6)	37 (20.8)	48 (26.8)	179 (100)
서울	23 (32.3)	13 (18.3)	13 (18.3)	24 (33.8)	71 (100)
부산	32 (26.2)	25 (20.4)	25 (20.4)	41 (33.6)	122 (100)
여수	36 (27.3)	16 (12.1)	32 (24.2)	48 (36.4)	132 (100)
대구	20 (35.7)	9 (16.0)	9 (16.0)	19 (33.9)	56 (100)

《출처》 폭풍진로연구, 기상연구소, 1983, 지역별폭풍일수  $\geq 10\text{m/s}$ , ( ):구성비(%)

따라서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부는 시간이 가장 길고 비도 많이 오는 곳이 된다. 날씨는 변덕스러워 한해에 줄잡아 겨우 오십 일쯤 활짝 개고 백이십 일쯤은 비가 오는데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까지 9월 상순에서 하순에 대체로 장마가 진다.<sup>37)</sup> 천기일수(1981년~1990년)는 제주시 쾌청 48일, 흐림 168일이고 서귀포시 쾌청 67일 흐림 129일이며 1990년도를 기준으로 제주도의 월평균 일조시간은 162.7시간이고 서귀포는 181.3시간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지형적 영향과 계절순환의 기후적 영향권에 위치하여 주거형성에 강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라산의 지형지세에 순응하여 각 지역마다 주택의 방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과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해양성 기후는 다습하고 바람의 영향이 주거형성에

36) 김미령, op. cit., pp. 222~223.

37) 임호진, op. cit., pp. 14~17.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마당을 중심으로 한 별동배치, 상방의 개방구조, 낮고 완만한 경사의 지붕, 목 구조 외부에 쌓은 석조 덧벽, 창호를 보호하기 위한 판장, 덧문 등을 나타나며 주거의 재료로 사용한 현무암은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주거형성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 2) 인문·사회적 배경

인문·사회적 배경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파악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건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인식되는 의식구조, 가족제도, 농업형태를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민의 의식구조는 한국의 부분 문화적 성격으로 도서문화 양상을 나타낸다. 도서성을 구성하는 환경이란 해수의 장애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고립된(relative isolation)관계, 한정된 지역(limited territory)을 말한다.<sup>38)</sup> 따라서 제주 문화는 고립과 한정된 영토라는 도서환경에 의한 생활문화의 특성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민간신앙으로 제주문화의 저변을 형성해온 지배적인 사상을 이룬다. 무속은 제주민의 생활속에 기능하고 있으며 가족과 공동체를 의탁하여 자연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필수적 방편으로 주거공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의식구조를 지배해 왔다. 또한 무속신앙은 이후에 들어온 유교사상과 결합하여 조상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독특한 양상을 나타냈다. 즉, 조상은 단순히 먼저 살다간 자가 아니라 자손의 길흉화복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절대자로서 신격화된다.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관행은 한국 사회의 공통적인 문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가족에서 행해지는 조상 제사가 부계의 가계계승 의지를 핵심 원리로 하는 것이라면 제주도의 조상제사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고자 하는 동기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sup>39)</sup> 이러한 제사는 각 가정마다 돌림제사, 분할제사의 형식으로 제사문화가 일반 가정에 보편적인 생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은 주거 내 의례장소를 위한 공간의 고려와도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결국 제주문화는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문화적 특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제도는 철저한 분가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핵가족 형태를 나타낸다. 제주도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38) 이기욱,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9, pp. 295~335.

39) 이창기,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출판부, 1999, pp. 331~334.

원리를 달리하는 부분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계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비 부계적 특성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육지부 가족제도는 주자가례에 의한 예의 규범이 전파되면서 충효 중심의 사회관습이 발전되었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제주민들은 이러한 유교정신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실제의 생활에서는 절충적 생활을 해 왔다. 가족제도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차남 이하는 물론 장남이라 할지라도 일단 결혼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분가를 한다. 자식이 한 울타리 내에 분가할 경우에는 밖거리에 생활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어 식침을 분리하여 별거한다. 이때 양 가족은 부역을 따로 사용하여 취사를 달리 할 뿐만 아니라 밭 경작지도 나누어 경제단위도 분리된다.

제주도의 분가 유형을 보면 육지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독립해 나가는 경우와 부모가 살던 집을 자식에 물려주고 부모가 분가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으로 부모가 새로 집을 장만하여 미혼 자녀를 거느리고 이사를 나가는 경우이다. 육지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나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많은 사람이 이 방식을 따른다. 또한 자식을 모두 성출시킨 부모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한 울타리 안에서 각각 별개의 독립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직계가족이지만 외형상으로는 비 직계가족으로 보인다. 즉, 주거단위로 보면 한가족의 구성이나 한 울타리 안에 각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하는 두 가족이 하나의 주거에서 생활하는 특유한 가족제도를 갖는다. 이러한 안·밖거리 주거는 각 세대별 침실, 부엌, 개별 창고를 갖는 독립채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안거리와 밖거리의 공간적 위계성은 매우 적다.

셋째, 농업형태는 전작(田作)중심의 농업을 영위해 왔다. 제주도는 온대 남부, 아열대에 위치하여 농업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바람이 많고 화산회 토양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강수를 저장하지 못하는 지질로 수도작이 불가능하여 왔다. 따라서 제주도는 전작 중심의 영농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지면적 중 밭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sup>40)</sup> 이것은 바닷가에 있는 마을인 경우에도 어업보다는 농업을 기본으로 한 농업사회의 기본 성격을 갖는다.<sup>41)</sup>

40) 북제주군 문화공보실, 『북제주군지』, 북제주군, 2000, p. 102.

41) 제주도 마을의 농업 사회적 성격은 마을이 중산간과 해안지대의 용천수가 나오는 장소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중산간 마을은 반농반목(半農半牧)이, 해안마을은 반농반어(半農半漁)가 행해져 전체로 볼 때 농업이 기반이다.

전통적으로 육지부가 관개수리 사업과 가축의 힘을 토대로 한 남성노동 중심의 미작 농업을 발전 시켜온 반면 제주도의 농업은 전작농업과 나잡 어업으로 여성노동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성원의 수가 많고 구성이 복잡한 친가 중심의 가부장적 집계 가족 보다는 부부중심의 핵가족형태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것이 제주사회가 육지부의 사회와 상이한 문화 양상을 지니게 되는 주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농업형태에서 복합적 생산 방식은 무엇보다도 가부장제를 가능케 한 육지부의 집약농경의 생산양식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경제활동에서의 여성 주도적 역할은 가족 내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이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 속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평등사회의 속성을 지닌 제주사회를 가능케 한 요인이다.<sup>42)</sup> 따라서 남녀의 내외법도는 희박하며 가사나 가례 등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조된다. 이러한 특성은 주거에 반영되어 공간구성에서 남녀의 위계성은 적었다. 공간사용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영역은 타지방에 비하여 더 많은 공간이 할애되어 있다.

이상에서 제주지역 주민의 의식구조, 가족제도, 농업형태는 주거형과 공간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도서성이라는 한계성과 척박한 토양의 특수한 환경은 주생활에 영향을 주어 소박하고 합리적인 공간을 형성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가족제도는 주공간 구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로 보여진다.

## 2.2.2 제주지역 전통민가의 배치 및 평면분류

제주지역 전통민가는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배치와 평면구성에 있어서 타 지역과는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민가의 특징은 시대적 변화 과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농촌주거에 영향을 주고 있음으로,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파악되어진 사항을 중심으로 배치 및 외부공간, 주요공간별 특징, 평면구성으로 각각 분류하여 정리한다.<sup>43)</sup>

### 1) 배치 및 외부공간

제주지역 전통 농촌주거 배치형식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대칭형과 주거동의 별동 배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의 배경에는 무속신앙과 풍수지리, 기후에 대한 대처, 가족제도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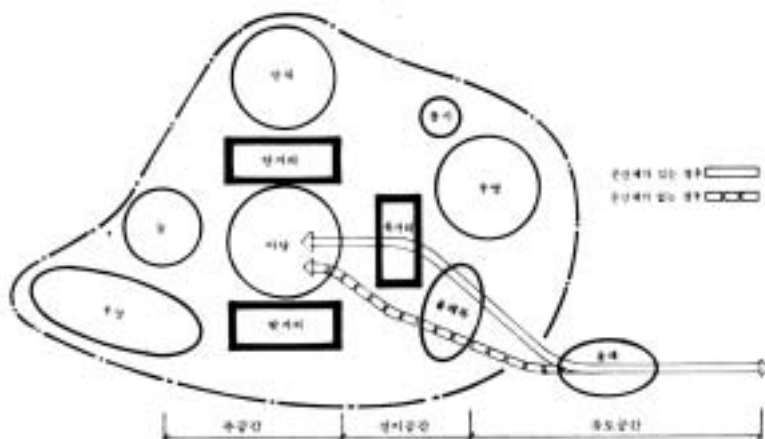
42) 이기욱, op. cit., pp. 331~332.

43) 제주도, 『제주도 문화재 유적 종합보고서』, 제주도, 1973, pp. 267~328. 재인용.



배치형식에 따라 생성된 외부공간은 집 밖에서부터 주택 내부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공간기능에 따른 질서체계를 이루어서 거릿길, 올래, 올래목, 마당, 안뒤 순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완급과 폐쇄, 트임의 공간적 변화를 가진다.<sup>44)</sup> 또한 제주도 주거는 일자형 겹집을 기본으로 한 평면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별동으로 집을 짓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이것은 주택의 배치가 별동으로 형성되게 된 원인으로, 주거의 외부공간들은 다양한 공간감을 갖게 한다.

다음으로, 주거의 배치는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마당을 중심으로 집의 채수에 따라 외거리형, 두거리형, 세거리형, 네거리형으로 분류되며 점차 口자 형태로 주거를 구성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외부공간의 구성은 올래, 마당, 안뒤, 놀굽, 우영, 통시로 구성되어 있다.<sup>45)</sup>



[그림 2-2] 외부공간 배치



[그림 2-3] 올래



[그림 2-4] 마당

올래는 주거로 출입하는 진입로로서 폭은 2.1~3m이고 길이는 9~15m정도로

44) 김석윤, '전통가옥', 『제주도 민속자료』, 제주도, 1987, pp.141~143.

45) 제주도, 『제주의 전통문화』, 제주도교육청, pp. 136~138. 제정리.

형태는 I, L, S자형태를 나타낸다. 올래의 입구는 어귀라고 부르고 안쪽에 어귀돌이 놓여지는데 여기서부터 올래의 안과 밖이 구분된다. 올래는 곧지 않고 끝부분이 구부러져 있는데 이것을 올래목이라 부른다. 마당은 주거의 중심공간으로서 마당은 안거리, 밖거리의 중심에 위치한다. 마당은 건물과 공존하면서 상호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통로, 작업공간, 의례공간 등 다용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안뒤는 마당 반대에 위치하며 주동의 뒷부분에 위치하여 상방 뒷문으로 출입한다. 여기는 주로 외부와 시선적으로 차단이 되고 나무 등이 심어져 있으며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음(陰)의 공간을 연출된다. 놀굽은 탈곡하기 전 농작물을 단으로 묶어 쌓아두거나 탈곡하고 난 짚을 난가리로 썩워 쌓아 놓는다. 이 놀자리는 마당면으로부터 40~50cm높게 돌로 단을 놓고 평평하게 했다.



[그림 2-5] 안뒤



[그림 2-6] 놀굽

우영은 주거 공간 내에 채소를 등을 재배하여 부식을 자급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집 주위의 여유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통시는 변소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곳은 건물주변에 있는 일종의 우잣공간에 설치된다. 부엌과 반대쪽에 밖거리 옆에 위치하며 마당에서 직접보이지 않도록 배치되고 있다.



[그림 2-7] 우영



[그림 2-8] 통시

## 2) 주요 공간별 특징

제주지역 주거평면은 일자형의 겹집으로 곶은(곶은) 집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육지의 겹집과는 달리 취사와 난방용 아궁이가 분리되어 있고 굴뚝이 없어서 자유로운 공간구성뿐만 아니라 공간분화가 뚜렷하다. 제주지역 전통농촌주거의 평면특징은 한반도의 민가형과는 달리 정지라고 불리는 부엌이 있으며 그 주요기능은 취사, 식사, 실내작업장, 건조장, 수장공간으로 다채롭게 이용된다. 취사용 아궁이만이 독립되어 있어 침실의 난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 육지부의 민가와 크게 다른 점이다.<sup>46)</sup>

주요공간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큰구들이라 불리는 침실은 부엌과는 반대쪽 단부에 있으며, 굴뚝이라 불리는 온돌 난방용의 아궁이가 붙어 있다. 그리고 큰구들 뒤편에는 수장공간인 곶방이 있으며, 작은구들이 있는 경우는 보통 부엌 쪽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큰구들은 부모가 사용하고 작은구들은 자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밖거리 구들은 장성한 자식이나 자식부부, 노부모 등이 거주한다. 정지공간은 가변성이 많은 공간으로 세칸집의 경우 정지 내부에 작은구들이 덧붙여지기도 하며 네칸집은 작은구들과 챗방이 추가된다. 상방은 3칸형이나 4칸형에서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주택의 중앙부에 있는 마루방이며 가족의 단란, 휴식, 작업 등 다목적공간으로서 혼용성이 많고 다른 방과 비교하면 개방적 공간이다. 특히 상방은 건물 전체면적에서 정지와 더불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관혼상제가 행해지는 공적공간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전면, 후면의 외부공간과 직접 면하고 있다.

정지는 바닥이 흙바닥이고 벽은 돌로 쌓아 흙을 바르며 천장은 노출되어 있다. 솔은 대개 외벽측에 솔의 크기에 따라 걸어 놓고 사계절 취사한다. 솔이 걸린 벽에는 1~2개의 광창을 만들어 채광과 연기가 나가는 기능이 되도록 하였다. 정지는 취사와 수장기능을 가지며 경우에 따라 별동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정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2칸형에서는 1/2, 3칸형에서는 1/3, 4칸형에서는 1/4가 일반적이다.

---

46) 조성기,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권 112호, 1983. 6, p. 29.



[그림 2-9] 구들



[그림 2-10] 정지(부엌)

챗방은 상방과 같은 마루방이다. 평소에는 식사공간으로 활용되거나 수장공간으로 사용된다. 의례행사시는 배선실 성격의 공간으로서 부엌+챗방+마루로 연결되어 있어 공간별 기능분화가 잘되어 있다.

고팡은 주로 곡물을 저장하는 수장공간이다. 흙바닥이거나 우물마루의 바닥에 벽은 토벽이고 천장은 노출 반자이다. 환기를 위해 한, 두 개의 작은 창을 내고 부엌과 떨어져 상방을 사이에 두고 큰구들 후면에 위치한다.



[그림 2-11] 챗방



[그림 2-12] 고팡

난간은 상방과 마당사이의 완충공간으로서 외부에 개방되어 있으며 상방 기능의 질을 높여주고 비바람과 일조를 여과하며 외부와 내부공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다. 굴목은 난방을 위한 공간으로 굴목의 입구에는 연료를 보관하거나 세간을 보관하는 장소로 쓰인다. 굴목의 상부는 벽장으로 사용되고 그 밑은 아궁이를 설치한다.



[그림 2-13] 난간



[그림 2-14] 굴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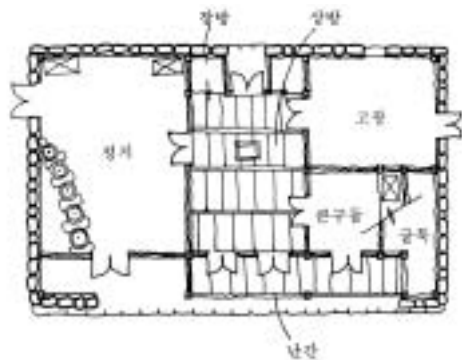
### 3) 평면구성

제주지역의 전통농촌주거 평면유형은 크게 막살이형, 3칸형 그리고 4칸형으로 분류되며, 이들 각 평면의 특징 및 각 실의 구성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막살이형은 2칸형이면서 상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간살이는 평면을 양분하여 한쪽은 정지 다른 한쪽은 앞으로 못뚝(퇴), 구들, 고팡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고 구들 한쪽에 굴목이 설치되어 있다. 부엌은 전체공간의 1/2을 차지한 장방형으로 바닥은 흙바닥이고 벽은 돌벽에 흙마감이며 천장은 제치장 반자이다. 부엌 앞에는 주출입 문인 부엌 앞문이 있고 부엌 후면이나 측면에 부 출입구인 부엌 뒷문이 있다. 그리고 방과 동선을 연결하는 샛문이 있고 고팡과의 연결을 위한 고팡 문이 있다. 토간의 부엌에는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바닥에 짚을 깔아 두는게 보통이지만 판상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이를 정지마리라 한다. 이 유형은 제주도 민가의 원형적 가옥구조를 갖는다.

다음으로, 3칸형은 구들, 상방, 정지의 3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칸집에서 상방이 분화되어 나타나 형식이다. 3칸형은 작은구들 없는 세칸형과 작은구들이 있는 세칸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작은구들이 있는 세칸형은 다시 한 칸형, 정지내형, 중마루형으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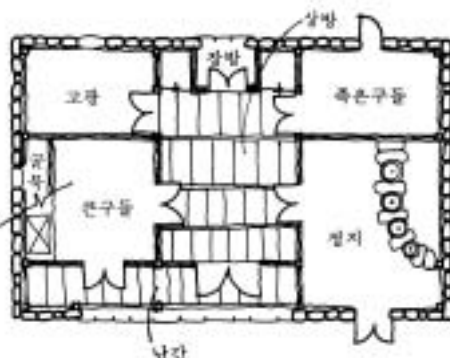
작은구들이 없는 세칸형은 구들이 하나만 배치되는 평면구성을 나타낸다. 가운데에 상방을 두고 왼쪽으로 정지, 오른쪽으로 앞뒤에 큰구들과 고팡이 위치한다. 상방과 큰구들 앞에는 난간



[그림 2-15] 작은구들 없는 세칸형

이 있으며 큰구들 옆에 굴묵이 위치한다. 그러나 가운데 칸인 상방을 중심으로 평면의 좌우가 바뀌는 수도 있으며, 두 칸형과 세칸형이 다른 점은 정지와 구들 사이에 상방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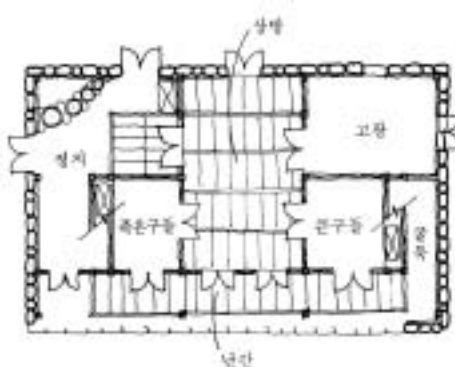
작은구들이 있는 세칸형은 상방을 가운데 두고 왼쪽 앞뒤에 큰구들과 고팡, 오른쪽 앞뒤에 정지와 작은구들이 배치되는 평면구성을 나타낸다. 큰구들과 상방 앞에는 난간이 있으며 큰구들 옆에 굴묵이 위치한다. 이 형태도 다른 형태와 같이 좌우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며, 정지와 작은구들의 위치가 바뀌어서 정지가 뒤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작은구들이 있는 세칸형을 세부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6] 한칸형

한 칸형은 작은구들이 없는 형에서 정지공간의 1/2정도를 작은구들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지의 앞쪽, 뒤쪽이 서로 바뀌어서 배치되기도 한다. 상방에는 장방이 설치되고 굴묵공간은 다른 평면형에 비해 1/2크기로 구성된다. 난방방식은 외벽 측에 출구를 두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작은구들은 정지에서 아궁이를 설치하여 해결한다.

정지내형은 작은구들 없는 세칸형 평면의 정지 안에 작은구들을 꾸민 평면형로 작은구들의 구조는 건물의 구조와 별개로 된 평면이다. 평면구성은 작은방 없는 세칸집과 같은 간살로 하되 다만 정지 앞쪽(또는 뒤쪽) 구석에 붙여 작은구들을 설치하는 것만이 다르다. 이 때 작은구들은 상방 옆쪽에 붙으며 그 옆은 정지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난방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림 2-17] 정지내형

이 곳을 쓰고 있다. 즉, 큰구들의 난방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불편한 점과는 다르게 정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작은구들이 없는 세칸형에서 발전해 가는 첫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네칸형으로 발

중마루형의 평면구성은 정지내 형과 같은 간살로 하되 작은구들을 상방에 붙이지 않고 거꾸로 상방 반대쪽에 붙여 상방과의 사이에 생기는 공간에 마루를 깔아 이용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 유형은 정지가 왼쪽 또는 오른쪽에 배치된다. 난간, 상방, 큰구들, 고평과 굴목은 그것의 위치, 크기, 각 변의 비, 마감이 모두 작은구들이 없는 세칸형과 같다. 정지는 정지내 형과 달라서 뒤쪽을 완전히 작은구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므로 바른 네모꼴에 가까운 평면을 갖는다. 작은구들은 정지 뒤쪽에 붙여서 배치하며 벽장은 정지 쪽 또는 그 반대쪽에 설치되며 굴목도 정지 쪽이나 그 반대쪽에 배치된다. 크기는 큰구들보다 작다.

- 35 -

## 2.3 농촌주거의 분류

### 2.3.1 농촌주거 분류의 필요성

본 연구 사례 지역의 농촌주거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요인에 의하여 구조, 평면형태, 입면형태들이 상호 관련되어 다양성을 띠고 있었다. 특히 과거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해 온 자연발생적인 마을은 그 마을의 역사만큼 다양한 주거형이 분포하고 있다. 과거 전통마을의 민가가 거의 변화 없이 기존의 형태가 지속되어 왔던 것에 비해, 현재의 농촌마을의 주거는 기존 주거가 증·개축에 의해 변형되거나 새로운 형태의 주거건축이 나타나는 등 매우 다양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주거형은 한 마을의 여러 장소에 산재되어 분포되어 있다.

위와 같이 하나의 마을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거형이 분포되고 있는 현황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주거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주거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농촌주거 연구는 명확한 주거형의 분류 기준 없이 연구자 나름대로 규정한 분류를 통해 재래형 농촌주거<sup>47)</sup>, 개량형 농촌주거<sup>48)</sup>, 표준형농촌주거<sup>49)</sup>, 신축형 농촌주거<sup>50)</sup>등으로 정의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농촌주거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주거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 2.3.2 선행연구의 농촌주거 분류

기존 농촌주거 연구의 유형분류는 그 기준이나 용어에 있어, 연구자별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2-6참조). 무에 건축연구실(1986)은 주택의 구조와 주택의 재료를 기준으로, 비교적 격식을 갖춘 전통한옥, 전통적 재료와 구조로 지어진 일반적 농가인 재래농가, 새로운 구조나 재료를 사용하여 지어진 개량주택으로 분류하였다. 강영환(1987)은 건축시기, 평면형태 및 구성, 구조와 재료에 따라서

47) 한필원, 『농촌지역 농가주택의 이용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임춘삼, 『농가주택의 공간이용변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89.

최병숙, 『거주자 요구에 의한 농촌주택 개량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5.

48) 엄인섭, 『농촌주거공간 이용실태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91.

49) 박장혁, 『농촌주택 평면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충북대 석사논문, 1997.

50) 유복희, 『경남지역 신축 농촌주택의 건축적 특징 및 주생활에 관한 연구』, 울산대 석사논문, 1992.



전통민가형, 민가에서 증·개축을 한 개조형, 새로운 구조와 재료로 지어진 현대형으로 분류하였다. 박경옥(1987)은 주거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1차적으로 건축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2차적으로 재래주택(증·개축에 의해 변화한 전통적 농촌주거), 개량주택(1978년 내무부 고시 표준주택을 변형한 농촌주거)으로 분류하고 3차적으로 각 주거형별 형태에서 다시 세부 평면유형을 분류하였다. 장성준(1989)은 전국에 걸친 농촌개량의 과정에서 나타난 주거형을 구조, 출입형식, 외장재료, 지붕형태에 따라 순수 재래주택형, 재래주택형, 표준설계 농촌주택형, 도시사업주택형으로 분류하였다. 순수 재래주택형은 기존의 전통주택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재래주택형은 순수재래주택 형식으로 새로운 재래주택형으로 새로운 건축자재와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며, 표준설계 농촌주택형은 정부간여에 의하여 주택형 선택의 폭이 외부적 요인으로 제한된 주거형이다. 도시사업 주택형은 도시적 주거형과 건축재료 광범위하게 사용한 주거형이다. 김성우(1995)는 평면형태를 홑집과 겹집으로 나누어 전통형, 개량형, 새마을형, 도시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홑집이고 현관이 없는 전통형과 개량형은 재래식 농촌주택에 해당이 되고 겹집이고 현관이 있는 새마을형과 도시형은 근대식농촌주택에 해당이 된다. 이들은 건축시기로 볼 때 전통형 농촌주택, 개량형 농촌주택, 새마을형 농촌주택, 도시형 농촌주택 순으로 변천하여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윤정숙(1997)은 시대별 구조변화를 목구조, 시멘트 블럭조, 붉은 벽돌조,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구분하고 안채의 공간구성에 따라 재래형, 과도기형, 도시형으로 분류하였다. 엄인섭(1997)은 건축시기와 평면구성, 동선에 따라 전통주거가 증·개축에 의해 변화된 재래주택, 표준평면도에 의해 건축된 개량주택, 농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건축된 현대형 주택으로 분류하였다. 최장순(2000)은 영동지역의 농촌주택을 시대별로 재래농촌주택, 개량농촌주택, 농촌개량주택, 농촌자조주택 네 가지로 분리하였다. 재래농촌주택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된 전통주거를 말하며 개량농촌주택은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개축 및 개·보수가 이루어진 주거를 말한다. 농촌개량주택은 농촌개량사업이 일환으로 작성된 농촌주택개량 표준도면에 따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집단적으로 축조된 주거로 15평형, 18평형, 20평형으로 나누어진다. 농촌자조주택은 80년 중반 이후부터 농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새로이 축조되기 시작한 농촌주거를 말한다.

이상의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농촌주거의 분류기준은 건축시기, 건축구조, 건축재료, 평면형태, 평면구성, 주택면적, 지붕재료, 외장재료, 동선체계, 출입형식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주거형은 농촌 근대화이전의 주거를 재래농가, 전통

민가형, 재래형, 재래주택, 재래농촌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이후 건축된 농촌주거는 개량주택, 개조형, 과도기형, 개량형 농촌주택, 개량주택으로, 1970년대 후반 이후 표준설계도에 의해 건축된 주거는 새마을형 농촌주택, 표준주택, 표준설계농촌주택, 농촌개량주택으로, 1980년대 중반이후 거주자 자유의사에 의해 건축된 주거는 현대형, 도시형, 도시형 농촌주택, 도시사업주택형, 현대형 주택, 농촌자조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6〉 선행연구의 농촌주거분류

연구자	논문	분류기준	주거형 분류	년도
무애건축 연구실	남부지방 농어촌주거 실측조사보고서	주택구조 주택재료	전통한옥 재래농가 개량주택 (새마을주택포함)	1966
강영환	한국 농촌주거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시기 평면형태 구조 및 재료	전통민가형 개조형 현대형	1987
박경옥	농촌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건축시기 주택면적 평면형태	재래주택 표준주택 개량주택	1987
장성준	농가개선사업에서의 주택형 선택과 문화적 다양성	구조 출입형식 외장재료 지붕형태	순수재래주택형 재래주택형 표준설계농촌주택형 도시사업주택형	1999
김성우 외 2인	경기도 지방의 재래식 농촌주택의 근대화과정에 관한 연구	건축시기 구조체 평면형태	전통형농촌주택 개량형농촌주택 새마을형농촌주택 도시형농촌주택	1996
윤정숙 외 1인	도시근교 농촌주택의 변화에 관한 연구	건축시기 구조체 평면구성	재래형 과도기형 도시형	1997
엄인섭	농촌주택의 주거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시기 평면구성 동선체계	재래주택 개량주택 현대형주택	1997
최장순	영동지역 농촌주택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건축시기 건축구조 건축재료	재래농촌주택 개량형농촌주택 농촌개량주택 농촌자조주택	2000

### 2.3.3 본 연구의 농촌주거 분류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주거형의 분류기준을 통하여 본 연구에 적용 가능한 분류기준은 시 계열적 측면에서 건축시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다음으로 근대화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재료, 그리고 실 구성의 4가지로 분석되었다. 분류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시기에 의한 분류는 1971년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새마을 운동이전에 건축되어진 농촌주거와 새마을운동 이후 근대적 개념이 도입된 농촌주거로 분류하였다.<sup>51)</sup> 그리고 1986년을 기점으로 거주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건축된 농촌

주거로 분류하였다.<sup>52)</sup> 단, 본 연구의 대상 농촌에서는 표준설계도에 제시된 새마을형 농촌주거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sup>53)</sup>

둘째, 건축구조에 의한 분류는 기본골격이 목구조 농촌주거, 시멘트 블록조 농촌주거, 시멘트 벽돌조 농촌주거로 분류하였다.

셋째, 건축재료에 의한 분류는 석벽으로 마감된 농촌주거와 블록벽으로 마감된 농촌주거, 벽돌 위에 타일 등을 사용한 농촌주거로 분류하였다.

넷째, 실 구성에 의한 분류는 현관의 위치, 유무에 따라 난간으로 출입하는 농촌주거, 개방적 현관을 나타나는 농촌주거, 현관이 형성되는 농촌주거로 분류하였으며, 욕실 및 화장실의 위치에 따라 외부에 배치되는 농촌주거와 내부에 배치되는 농촌주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부엌이 재래식부엌에서 증·개축을 통해 개량부엌이 된 경우와 건축시점부터 완전한 부엌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기준을 통하여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과도기적인 사례도 나타났으나 일차적으로 건축시기, 이차적으로 건축구조를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 제주지역 농촌주거에 나타나는 주거형을 재래형 농촌주거, 개량형 농촌주거, 현대형 농촌주거<sup>54)</sup>로 분류하였다. 이 3가지 주거형은 시기적으로 재래형 농촌주거, 개량형 농촌주거, 현대형 농촌주거의 순으로 연결되며 분명한 시간적 흐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sup>55)</sup>

51)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p. 197.

52) 유복희, 『경남지역 신축농가주택의 건축적 특성 및 주생활에 관한 연구』, 마산대 석사논문, 1992, p. 2.

53) 내무부고시 농촌형 표준설계도집(1979-1984년)에서는 제주80-18, 제주80-20, 제주80-25 3가지 유형이 나타나지만 해당 부서 공무원 면담결과 실제 제주도 농촌에 적용된 사례는 극히 적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문헌을 통해 파악한 결과 표준설계도에 제시된 표준설계안이 주변경관 및 기존주택과의 조화를 이루는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다. 제주도 연구단,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방향』, 제주도 내무국, 1990, p. 11.

54) 본 연구에서 농촌주거형의 용어정의는 역사성, 근대성, 도시화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즉, 역사를 두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온 전통민가가 새로운 구조 속에 적응 내지는 진화 해가는 형태로 인식하여 재래형 농촌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전통적인 농촌주거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 정부주도의 근대적 주거형식으로 나타난 합리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형태로 인식하여 개량형 농촌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농촌의 도시화에 따라 거주자의 자유의사가 반영되어 다양한 평면형태가 나타나는 비교적 근래에 출현한 주거형으로 인식하여 현대형 농촌주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이 용어들을 재래형주거, 개량형주거, 현대형주거로 명칭 한다.

55) 분류된 주거형중에서 주로 재래형농촌주거와 개량형농촌주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거주자의 주생활변화등에 의해 부분적인 증·개축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표 2-7〉 본 연구 농촌주거분류

주거형 항목		재래형 농촌주거	개량형 농촌주거	현대형 농촌주거
건축시기		1971년이전	1971-1985년	1986-1999년
건축구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시멘트벽돌조
외벽재료		석벽	블럭벽	벽돌벽
실 구성	현관	개방형	개방형	독립형
	욕실 및 화장실	외부	외부	내부
	부엌	개량입식	개량입식	완전입식

## 2.4 농촌주거 연구의 틀

### 2.4.1 근대화와 농촌주거 변화

농촌주거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의 제반조건에 따라 일반 농민들에 의해 축적된 생활을 표현한다. 즉, 농촌주거는 일정지역을 반영하는 주거문화의 체계이므로 특정지역에 나타나는 공통된 주거문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56)</sup>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는 여러 부분들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지역에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라 부분문화(sub-culture)로 나눌 수 있다. 부분문화의 측면에서 농촌주거는 지난 30년간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거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역 특유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면서 도시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본격적인 농촌 근대화를 통하여 종래의 폐쇄적 농촌사회는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농촌의 구조 변화 속에 생활의 주체인 농민의 삶의 방식(mode of living)은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영농 및 생활전반에 걸쳐서 자급자족적 생활기능이 약화 내지는 소멸되고 생활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증대되어 근대화된 생활양식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양상은 사회변동으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이것은 근대화에 따른 일련의 필연적 진행과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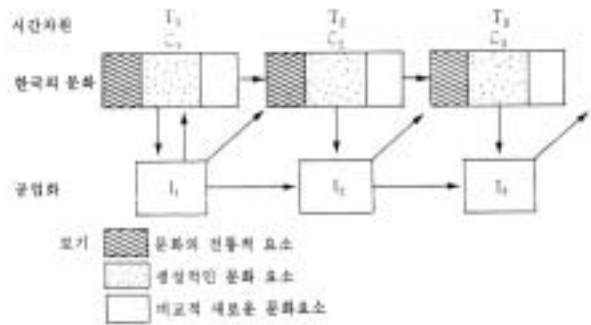
근대화된 생활양식은 일방향적인 발전과정으로서 제3세계 사회의 전통적 요소를 근대적 요소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는 오히려 근대성과 전통성의 상호 관입 상태로 보아진다.<sup>57)</sup>

이러한 전통문화와 근대화의 측면에서 김경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화를 제시하고 있다.<sup>58)</sup> 하나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뿌리박고 남아 있는 문화유형으로써 전통 요소이고 다음은 전통 요소이었던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질되면서 새로운 것과 혼용되어 생성된 요소이며 세 번째는 과거부터의 전통과는 상관없이 도입된 새로운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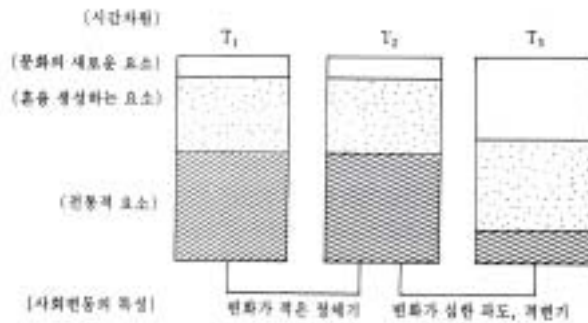
56) 최장순, 『영동지역 농촌주택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시립대 박사논문, p. 1.

57) 최재필, '우리나라 근대 주거의 변화', 『주거론』, 대한건축학회, 1997, pp. 160~163.

58) 김경동, 『한국사회변동론』, 나남출판, 1995, pp. 173~176.



[그림 2-20] 문화와 공업화의 변화단계



[그림 2-21] 문화변동의 유형

위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은 시간  $T_1$ 과  $T_2$ 사이의 정태기에는 세 가지 문화의 요소들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중이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격변의 과도기에는 그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새로운 요소와 전통 요소의 크기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격변기에는 그림에서 보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요소가 소개되고 그 중 어느 것은 근대화된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기도 하고, 어떤 요소는 일관성으로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요소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통문화라는 것이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화하고는 상호작용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대화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자들간의 여러 의견이 있으나<sup>59)</sup>, Poggie와 Lynch는 상호관입적 접근(interpenetration approach)을 주장하

59) 첫째, 문화사적 접근으로 Schumpeter의 경제학적관점, Mannheim의 사회학적관점에서 근대화는 서구문명사의 큰 줄기라는 관점이다. 둘째, 단계론적 접근으로 Lerner의 사회학집관점, Rostow의 경제학적 관점, Lipset와 Almond의 정치학적 관점에서 근대화가 전통적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리라는 가정을 둔 접근이다.

면서 근대화는 사회에서 근대성과 지역성 사이의 생태학적 균형(ecological balance)의 개념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근대성(modernity)의 반대가 전통(tradition)이 아니고 지역성(locality)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근대화는 탈지역화의 특징을 띠게 되는데 탈지역화가 생태학적 균형에 의해 점진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때 과거 전통사회에서 있었던 요소로서 아직도 그 적합성이 받아들여져 활용되는 지속 요소의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변용된 요소라 해서 그것이 모두 외래의 것으로 부정해야할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구화 또는 합리화의 단편적 사고에 의한 결과물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근대화에 따른 필연적인 변화이므로 이에 대한 선별적인 안목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sup>60)</sup>

따라서 근대화과정은 근대적인 것이 전통적인 것을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근대적인 것과 함께 전통적인 요소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주거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생활문화요소의 파악을 위한 연구의 틀을 설정하고자 하며 이것은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두도록 노력해야하는 정체성(identity)의 확보와 아울러 문화적 통합성(integration)의 측면으로 농촌주거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 2.4.2 농촌주거 문화와 주생활 양식

문화라는 용어는 사회학, 인류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 학술용어로서 한 집단이나 사회의 가치, 믿음, 관습, 형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 지식체계라 할 수 있다. 즉, 어떤 그룹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 또는 물건을 만들게 하는 숨은 조종장치(control mechanism)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계획안, 비법, 규칙, 교훈 등으로 나타난다. 왜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저런 식으로 짓는가 할 때 그 그룹이 속에 갖고 있는 식을 문화라 할 수 있다.<sup>61)</sup> 이러한 문화는 공유, 학습, 축적 체계를 이루고 항상 변화한다.<sup>62)</sup>

---

셋째, 근대 세계체계론적 접근으로 Wallerstein에 의해 주창된 관점에서 산업화된 자본주의 국가와 개발도상국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넷째, 상호관입론적 접근으로 Poggie와 Lynch에 의해 주창된 관점으로 근대성과 지역성 사이의 생태적 균형을 주장하고 있다. *ibid.*, pp. 160~163.

60) 임창복, 『한국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pp. 11~12.

61) 이회봉, '인간회복의 도시설계를 위한 부분문화 이론과 방법', 『국토계획』, 대한국토학회지 23권 1호, 1988. 3, p. 3.

문화의 다양성은 인간사회의 한 특성으로서 각 집단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상의 문제들을 다른 식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이에 관련된 다른 문제 요소들이 그런 특성의 관습을 허용하게끔 짜여져 있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문화는 여러 부분들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고 한 사회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 및 계층별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라 문화를 나눌 수 있다.

문화를 행동과 사고에서 나타나는 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이라고 볼 때 이러한 계층 간, 연령 간, 지역 간 혹은 직업별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을 부분문화라고 부른다.<sup>63)</sup> 또한 부분문화는 신념, 가치, 규범, 관습이 보다 큰 사회나 문화 속에서 부분적으로 체계화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64)</sup> 부분문화의 개념은 한 사회집단의 각 부분들 또는 영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양식 및 사고양식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포함하고 그것들 간에 각기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며 왜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는지 주의를 돌리는데 있다.

이러한 총체적 생활 속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사회집단 또는 특정한 지역이나 시대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삶의 방식을 도출하여 생활양식으로 규정하는 바 생활의 총체적 과정 속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체계적 행동으로 나타난다.<sup>65)</sup>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문화는 농촌사회에서 특유한 또는 농촌에서 흔히 보여주는 행동방식, 생활양식의 총칭이며<sup>66)</sup> 문화의 구체적인 형성은 생활양식으로 나타난다.<sup>67)</sup> 촌락사회의 생활양식은 관습에 의한 체계(문화)이고 도시사회는 기능에 의한 체계(문명)라고 봄으로써<sup>68)</sup> 생활양식은 문화와 동일한 의미로 의. 식. 주, 의식 등 생활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된다.<sup>69)</sup>

이상의 견해들을 통하여 문화의 표출은 주생활양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 주생활양식은 생활과 공간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활행위의 양식 차원이 아니라 생활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주공간이 어떻게 구성, 배열되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주생활의 의미가 부여되고 정해진 기능을 갖는 주공간이 어떻

62)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9, p. 6.

63) ibid., p. 74.

64) 강대기, 『현대도시론』, 민음사, 1987, p. 163.

65) 吉野政治, 『生活様式の理論』, 光生館, 1987, p. 82.

66) 최재율, 『농촌사회학』, 예풍출판사, 1986, p. 219.

67) 정지웅, 『한국의 농촌-그 구조와 개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p. 321.

68) 山邦郎, 『都市化する農村地域構造』, 『農村計劃論』, 農山漁村文化協會, 1984, p. 227.

69) 박서호, '농촌계획의 개념과 계획기법', 『농촌지역종합개발연구의 과제』, 한국농촌계획연구원, 1985, p. 55.



게 구성되고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느냐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sup>70)</sup>

김종인(1982)은 이러한 주생활양식은 변증법적으로 발전된다고 보고 주공간이란 주의식을 포함한 주생활과의 대응 관계 면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주택계획의 목적은 주공간의 계획임과 동시에 생활에 대응하는 공간, 의식요구에 대응되는 공간의 계획이라 하였다. 즉, 주거계획에서 주공간(dwelling space)과 주의식(dwelling consciousness)과 주생활(dwelling activities)의 대응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sup>71)</sup> 따라서 본 연구는 주거를 문화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주생활 문화가 표출되는 주생활양식을 주공간과 주생활의 상호대응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농촌주거 거주자의 주생활 의식을 파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2.4.3 연구 틀

앞에서 전술한 이론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생활문화적 측면의 연구 틀을 정립한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부분문화적 개념의 지역성은 지역전통문화의 회귀나 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요소와 전통문화요소를 대립의 개념이 아닌 수용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다.

지역문화의 전개과정은 지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근대화에 따른 보편적 문화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문화는 근대화에 의해 새로 수용된 문화요소, 근대화에 의해 변형된 문화요소, 과거 전통이 지속되는 문화요소등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나고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 지역문화가 변화한다.<sup>72)</sup>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역문화에서 존재하는 지역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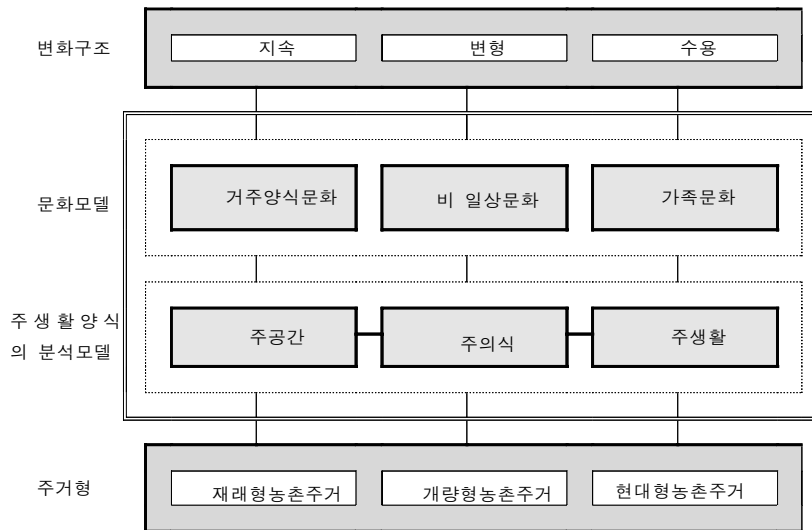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틀은 그림 2-24에서와 같이 주거를 시 계열적 측면의 변화에 해당되는 재래형 농촌주거, 개량형 농촌주거, 현대형 농촌주거로 분류한다. 문화의 표층적 측면인 주생활양식의 주공간과 주생활을 분석하고 심층적 측면인 주의식을 파악하여 생활문화적 특성을 규명한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주양식문화는 좌식지향의 개방적 공

70) 허영숙, 『아파트 거주가구의 주생활양식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7, pp. 10~12.

71) 주의식의 개념을 김종인(1982)은 주생활과 주공간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의식이라고 정의하였고 김정규(1988)는 西山英三의 주거론(1970)을 기초하여 생활가운데 주요구가 늘어남을 촉진하는 심리적, 정신적 기반이며 주요구의 신장방법, 방향, 강도, 성격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72) 제주도건축사회, 『제주건축』 제2집, 1992, p. 5.

간구성으로 파악하여 주생활행위, 주생활재 사용, 주요공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비 일상문화는接客·의례중심의 공간구성으로 공간사용과 배치를 분석하고 가족문화는 세대분리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으로 거주형태와 공간구성 및 생활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또한 생활문화 특성의 지속성과 변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거공간의 증·개축에 의한 공시적 변화와 시 계열적 변화를 배치, 공간구성, 주요공간별 특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2-22] 농촌주거 연구틀

## 제3장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개요 및 현황

### 3.1 조사의 개요

본 절에서는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주공간과 주생활 특성분석을 위하여, 사례지역을 행정권별, 지리적 특성별로 구분하여 사례를 선정하고 사례마을의 전반적인 현황을 2절에서 분류한 주거기준에 의해 농촌주거 공간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3.1.1 사례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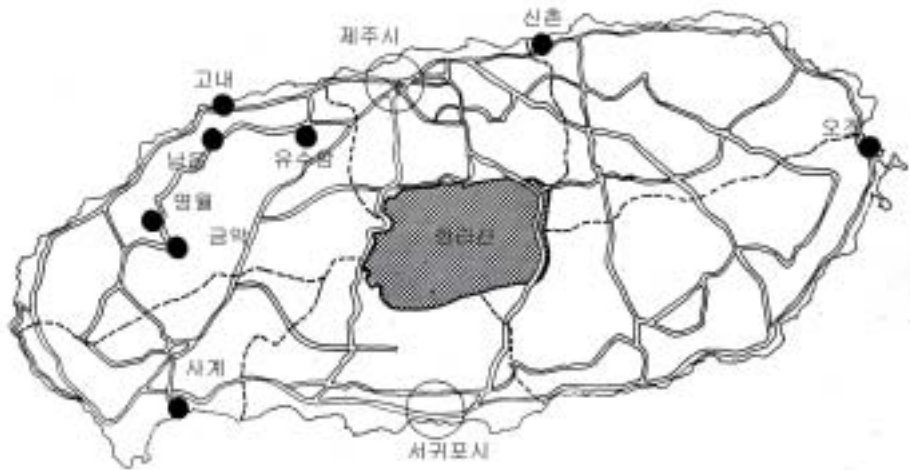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특성과 주공간과 주생활의 지속과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주거현황과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로 사례 지역과 분석을 위한 주거를 선정하였다.

사례지 선정은 대규모 취락구조 개선사업 같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마을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마을로 한정하였다. 또한 행정구역상 농촌지역의 마을로 비교적 다른 마을에 비해 주민의 전·출입이 적은 지역과 제주지역의 지리적, 관습적 특성 측면을 고려하여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사례에 선정된 전체 8개 마을은 행정권별 구분으로 제주시 권인 북제주 지역의 고내, 유수암, 남읍, 명월, 금악, 신촌의 6개 마을, 서귀포시 권인 남제주 지역의 사계, 오조 2개 마을로 분류된다. 또한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마을의 구분은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로 나누었는데 중산간 마을은 유수암, 남읍, 명월, 금악의 4개 마을과 해안 마을은 고내, 신촌, 사계, 오조 4개 마을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사례 주거의 선정은 연구자가 직접 현장조사하여 주거형태로 골고루 선정하였고, 주거에 따라 선정된 가구수는 재래형 농촌주거 23호, 개량형 농촌주거 29호, 현대형 농촌주거 20호이다. 대상주거의 선정은 행정관서의 협조를 받아 세대주가 마을주민으로서, 동 마을에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생활과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사례는 가구연대 및 가족구성의 측면에서 제주지역의 보편적 유형으로 신뢰정도가 높은 가구로 선정하였고 신뢰도의 검증을 위해 마을의 이장과 마을 원로의 협조를 받았다. 사례의 지역 및 주거는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사례지역 및 주거

사례지역			마을구분	사례 주거			사례수
군	읍,면	리		재래형	개량형	현대형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	해안	G45,G65, G50, (3)	G73,G75,G78, G81,G85 (5)	G90,G95, G95-1 (3)	11
		유수암리	중산간	U55 (1)	U81,U83 (2)	U87,U88, U91,U93 (4)	7
		남읍리	중산간	N48,N56 (2)	N78,N84, N84-1,N85 (4)	N97,N98, N99 (3)	9
	한림읍	명월리	중산간	M49,M60, M67 (3)	M73,M78, M78-1,M83, M83-1,M83-2,M8 3-3,M84, M85 (9)	M95 (1)	13
		금악리	중산간	K61,K62, K65,K70 (4)		K94,K96 (2)	6
	조천읍	신촌리	해안	S48,S50,S60 (3)	S71,S83 (2)	S98,S98-1 (2)	7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해안	SA51,SA62, SA64, (3)	SA77 (1)	SA92 (1)	5
	성산읍	오조리	해안	O60,O62, O67,O68 (4)	O71,O74,O77, O80,O81,O83, (6)	O86,O90, O93,O96 (4)	14
합계				23	29	20	72



〔그림 3-1〕 사례마을의 위치

### 3.1.2 조사방법 및 내용

조사에 사용된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실측, 현장관찰, 면담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제주도 및 타지역 농촌주거 연구에서 분석된 사항을 파악하고 연구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현장조사에서는 주공간 현황 및 변화사항과 주생활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사례조사는 본 연구자와 연구의 내용을 숙지한 보조원과 함께 예비조사에서 파악된 대상 주거를 직접 방문하여 실측 조사와 관찰조사<sup>73)</sup>, 면담조사<sup>74)</sup>를 실시하였다.

관찰조사에서는 거주자들의 행위를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에 물적 증거들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행위의 부산물(byproduct of use)이나 공간의 변용(adaptation)을 분석하는 물적추적방법<sup>75)</sup>을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는 물적추적과 관찰에서 파악하기 힘든 사항에 대하여 거주자와의 직접면담(interview)방법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미리 작성된 표준화된 질문과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적합한 질문을 하나가는 개방형 질문(open ended question)형태를 취하여 정보를 찾아내어 다음 질문으로 연결해 나가는 방법<sup>76)</sup>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조사된 실측자료, 관찰자료와 면담내용자료의 분석은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평균, 빈도, 백분율로 단순 통계처리 하였다.

### 3.1.3 조사진행

본 연구의 진행은 첫째, 문헌을 통하여 마을의 역사 현황을 파악하고 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 수와 농업규모 등 행정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둘째, 물리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의 배치와 주거의 방위를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셋째, 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례주거의 주공간을 실측하고 생활재의 현황을 도면에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실측분석은 농촌주거의 내·외부공간의 물리적 현황을 실측하여 배치도, 평면도를 작성하고 내부의 가구류, 가전제품, 기타 생활용품의 위치와 크기를 평면도 위에 스케치하였다. 또한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세부적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이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넷째, 거주자의 생활실태 및 주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기록이 불가능한 부분은 녹취 후 면담내용을 기록하여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섯째, 현장분석을 통하

73) Spradley James P., 이희봉 역,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74) Spradley James P.,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9.

75) Zeisel, John, "Inquiry by Design. Monterey", Calif: Brooks Cole, 1981.

76) Spradley James P., 이희봉 역, op. cit., 1996.

여 파악된 주공간의 스케치 도면은 1차로 세밀하게 채수정 도면화 하였고 2차로 트래싱지에 잉킹하여 정리하였다.

이상 정리된 자료는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분석의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집중관찰이 요하는 사항은 재차 방문하여 분석하는 현장연구방법(field study method)<sup>77)</sup>을 사용하였다.

〈표 3-2〉 조사내용 및 방법

구분	분류		조사대상 및 지역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명	조사기간			
1차 조사	문헌조사	1999.8.10~ 1999.10.2	제주도 전 통 농 촌 주 거 및 기 타 지 역 농 촌주거	농촌주거의 도면수집 및 농촌관련 자료수집	관련자료분석 및 문헌조사
	예 비 조 사 및 문헌조사	1999.10.15~ 1999.11.5	명월리 금악리	분석대상주택의 분포 및 주거현황 파악	대상지역 및 기 타지역에 대한 방문조사
	본조사 및 문헌조사	1999.11.18~ 2000.4.20	남읍리 사계리 오조리	거주자 및 주택의 일반사항 주공간현황 및 변화사항 주생활실태파악	실측조사 관찰조사 면담조사
2차 조사	본조사 및 문헌조사	2000.6.20~ 2001.2.30	유수암리 명월리 신촌리 남읍리 오조리	거주자 및 주택의 일반사항 주공간현황 및 변화사항 주생활실태파악	실측조사 관찰조사 면담조사
3차 조사	본조사 및 문헌조사	2001.6.20~ 2001.11.11	유수암리 고내리 남읍리 신촌리	거주자 및 주택의 일반사항 주공간현황 및 변화사항 주생활실태파악	실측조사 관찰조사 면담조사

## 3.2 사례 현황

### 3.2.1 농촌마을의 현황

#### 1) 고내 마을

고내 마을의 지리 및 자연환경은 본동과 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주시로부터 서쪽으로 19km지점에 있는 해안마을이다. 고려시대 때에 이미 촌락이 형성되었으며 바다수심이 깊은 해안선과 바다를 전망할 수 있는 고내봉이 있어 옛부터 전략적 요충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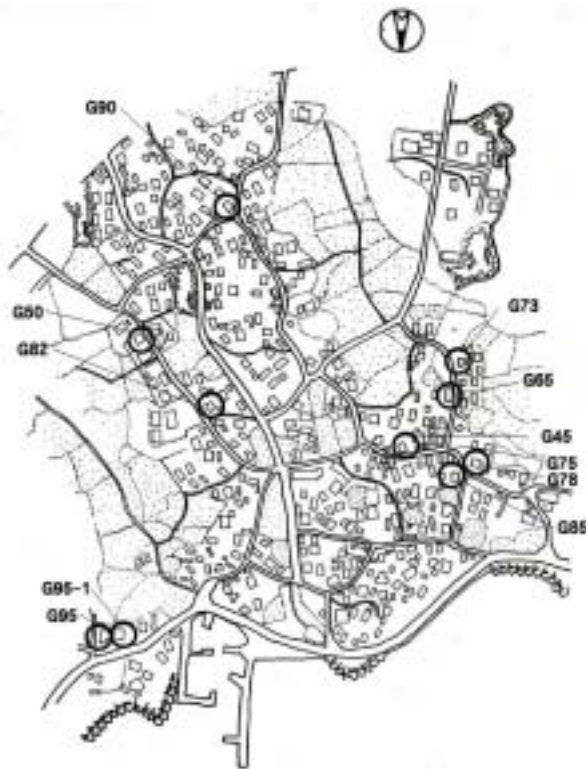
77) Lee, Hee-Bong, "Space, Form and Subculture" : The use of a Field Study Method, Ph. D. Dissertation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동쪽으로는 신엄이 3.5km 거리에 있고, 서쪽은 애월이 1.5km 거리에 있다. 남쪽으로 고내봉이 있으며 남동쪽에는 하가리와 2km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남서쪽에는 상가리와 2.5km 거리를 두고 위치하며 북쪽은 바다이다.



[그림 3-2] 고내마을 전경

인문 및 사회환경으로 고내 마을은 명칭이 말하듯이, 높을 고(高)와 안 내(內)이므로 고지대(高地帶) 속(內)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뜻이다. 고내 마을의 설촌은 확실치 않으나 고려 원종 11년에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와서 애월성을 구축하였을 때부터 사람이 살았고 지세적으로 보아 외적을 방어하는 현촌으로 설촌된 것으로 전해져 온다. 고내 마을의 경작면적을 보면 밭이 145ha, 과수원이 16.8ha, 임야가 88ha이고, 답이 0.9ha, 기타가 21.1ha이다. 고내리 항포구의 어선과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동력선이 17척이며, 무동력이 4척이 있다. 그리고 어부가 27



[그림 3-3] 고내마을 배치도

인이고, 잠수부가 40인이다. 세대수는 361가구이며 전체인구는 1,026명으로 가구당 인구는 2.84명이다. 남자는 504명 여자는 52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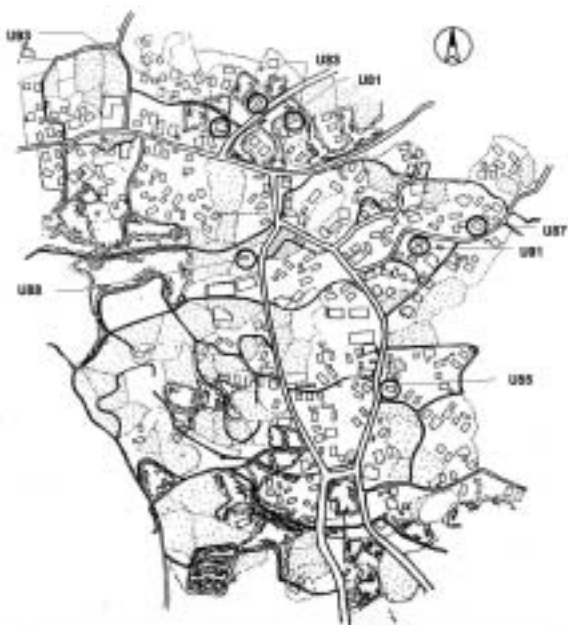
## 2) 유수암 마을

유수암 마을의 지리 및 자연 환경은 제주시에서 남서쪽으로 1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200~250m 높이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로서 마을 구성은 유수암, 거문덕이, 개척단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항몽유적지를 거쳐 고성리, 광령리가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소길리와 장전리에 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수산리, 하귀리와 접하여져 있다. 남쪽은 서부산업도로를 지나 국유지와 인접되어 있다. 제주시에서 마을까지 직선거리로 18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인문·사회환경은 물이 흐르는 언덕이란 연유로 유수암이란 지명이 생겼다. 700여년 전 고려 원종12년(1271) 항몽 삼별초군이 항파두성에 웅거할 때 이 마을에 주민이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여몽 연합군에 의해서 삼별초를 토벌한 원나라는 탐라에 10개소의 목마장을 설치

하여 금덕봉 아래 관리를 위해 집단으로 모여 살게 하였다고 전해진다. 조선 초기 명조 때 사람들이 이주하여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여 마을의 형태를 갖추었다. 강, 이, 변 3성이 주종을 이루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수암 마을은 총면적은 1,970.8ha이고 밭은 182.1ha, 과수원 63.9ha, 임야 1,199.6ha, 기타 525.2ha이며 농업형태는 감귤 75%, 축산 10%, 기타 15%이다. 전체 가구 수는 271세대이며 인구수는 797명으로 가구 당 인구는 2.94명이다. 남자 420명과 여자 37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4] 유수암마을 전경



[그림 3-5] 유수암마을 배치도



### 3) 납읍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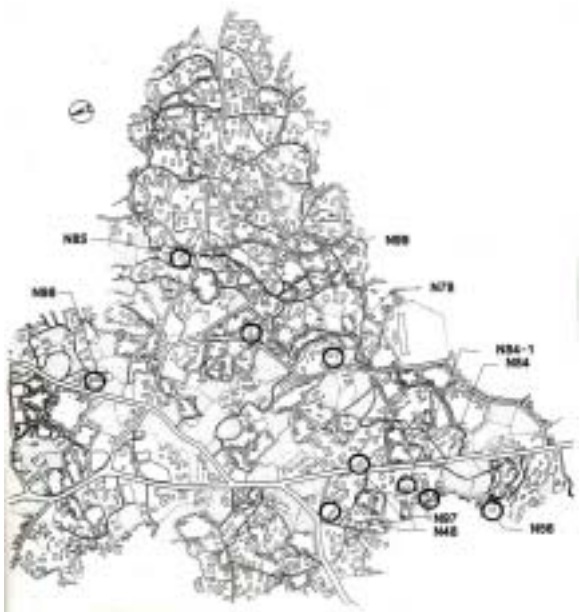
납읍 마을의 지리 및 자연환경은 백록담에서 서북쪽 30km 아래에 위치하며 북쪽 해안에서 2.5km 위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동북쪽은 애월이 있고 남쪽은 금산이 있다. 서북쪽은 능선으로 이어져서 마치 병풍을 두른 듯하며 마을의 터는 광활한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다. 능선너머로는 서쪽에 143m 높이의 어도봉(於道峯)이 있고 동북쪽으로는 175m의 고내봉(高內峰)이 있다.

인문 및 사회환경에서 마을은 서상동, 서중동, 서하동, 동상동, 동중동, 동하동 등 6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납읍리에는 일만 평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 난대림식물 200여종이 서식하고 있는 금산공원이 있다. 납읍 마을의 설촌 연대는 660년 이전으로 납읍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 2km 반경내에 괘지, 애월, 고내, 상가, 하가, 어음, 봉성 등 7개 마을이

병립되어 있어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입주하여 마을의 형태를 이룬 것으로 納邑(납읍)이라는 읍(邑)자를 쓴 것으로 보아 추측하고 있다. 납읍 마을 농업형태는 주로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총 세대수는 463가구이며 인구는 1,409명으로 가구당 인구는 3.04명이다. 여자는 696명 남자는 713명이다.



[그림 3-6] 납읍마을 전경



[그림 3-7] 납읍마을 배치도

#### 4) 명월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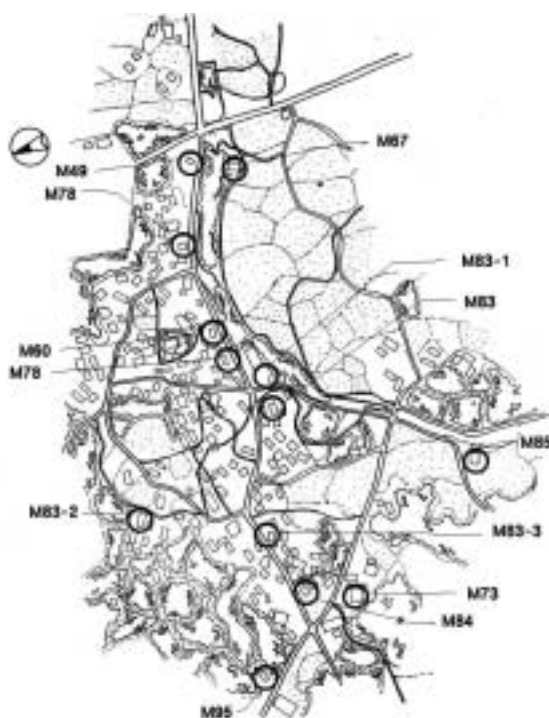
중산간 마을로 명월 마을의 지리 및 자연환경은 북쪽으로 한림 앞 바다가 있으며 서쪽으로 비양도가 있다. 동쪽에 한라산이 있고 남쪽으로 오름과 숲으로 둘러있다. 특히 마을 어귀에는 국내 최대의 400~500년 된 팽나무 군락지와 명월성지, 명월대가 있다. 명월리는 웃명월, 동명월, 서명월 등으로 나누어지며 웃명월은 현재의 상명리, 서명월은 명월리, 동명월은 동명리로 분리되었다.

인문 및 사회환경에서 마을 이름은 건천인 쌍계수가 항상 흐렀다하여 수류촌이라 불렀다 하며 서기 1300년 고려 충렬왕 26년에 제주에 동서현을 설치하면서 이 마을의 산세가 좋으므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리라 하여 마을 이름을 청풍명월의 뜻인 "明月"이라 했다. 또 마을의 형태가 반달과 비슷하다 해서 명월이라 했다고 한다. 명월에는 500년 전 제주 고씨(濟州高氏)가 거주하면서 오씨, 강씨, 김씨, 양씨, 홍씨, 진씨 등이 주성(主姓)을 이루고 있다.

명월마을의 농업은 감귤, 마늘, 잡곡, 채소, 축산 등을 주로 경작하고 있다. 총면적은 539.9ha로 이중에서 경지면적은 315.4ha이다. 현재의 가구 수는 266세대로 총인구는 764명이며 남녀 인구수는 남자 394명, 여자 370명이다.



[그림 3-8] 명월마을 전경



[그림 3-9] 명월마을 배치도

## 5) 금악 마을

기생화산인 금악봉 주변에 위치한 금악마을의 지리 및 자연환경은 한라산 서남쪽 해안과 산록지대 사이에 펼쳐있는 광활한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주변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있는데 대부분 건천으로 금악봉과 누운오름사이에 고인물들이 흘러내려서 금악리와 명월리, 동명리를 거쳐서 건남천(乾南川)을 만들었고 마을 북쪽에 신내와 가린내가 있고 마을 남쪽에는 황모소리내가 있다.

인문 및 사회환경에서 금악마을은 한림읍에서는 최고 산간지대로 해발 230m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이다. 누운 오름 일대에 축산단지가 생겨 축우, 양돈, 면양 등 축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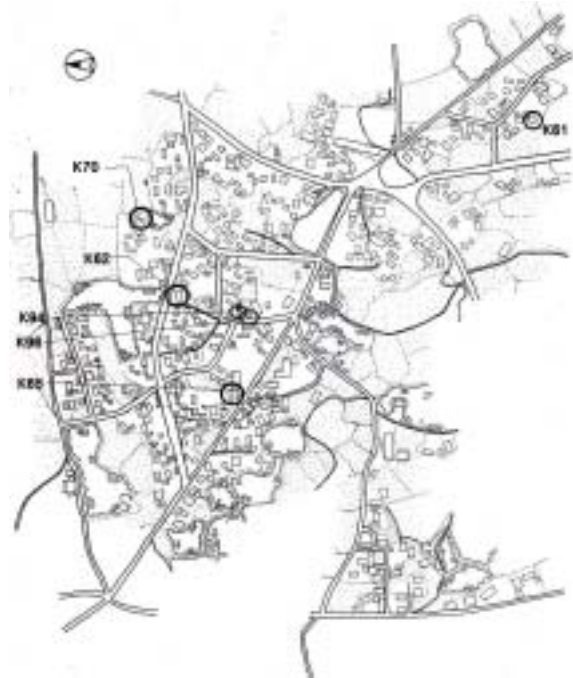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마을 안길포장, 배수로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때부터 축산업분야도 양돈, 낙농우, 번식우, 비육우등을 육성하기 시

작하였다. 1980년대부터는 복합영농으로 축산업과 감귤, 채소농사를 시작하였다.

금악 마을의 농업형태는 축산을 제외한 주 농업은 배추, 맥주보리, 잡곡을 재배하는 근교 농업형태를 띄고 있다. 전체 인구는 1,135명이며 가구 수는 401세대이다. 남녀 인구수는 남자558명, 여자 577명이다. 마을의 면적은 2,869.2ha이며 경지면적은 411.4ha이다.



[그림 3-10] 금악마을 전경



[그림 3-11] 금악마을 배치도

## 6) 신촌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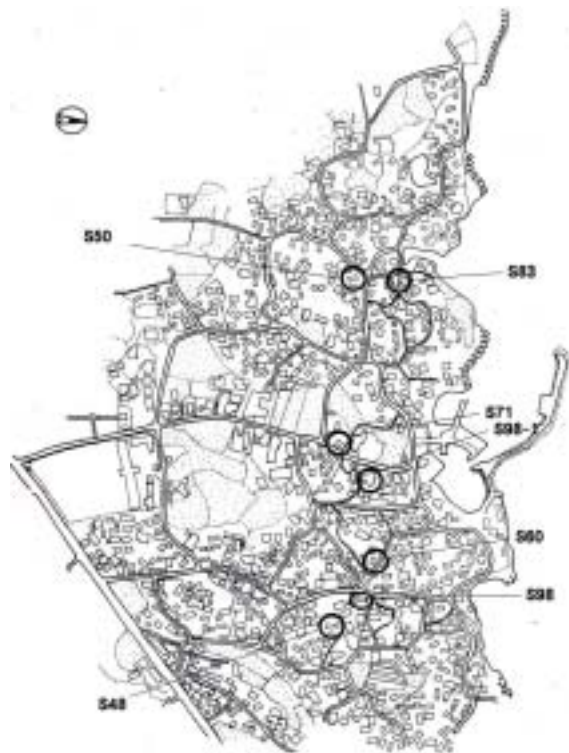
지리 및 자연환경에서 신촌 마을은 제주시 동쪽으로 10km 지점에 삼양(三陽)동과 경계를 삼고 읍소재지인 조천리에서는 1.5km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국도 남, 북쪽으로 넓게 펼쳐진 들판은 예부터 진드르라고 하여 제주도에서도 드물게 넓고 긴 평야를 형성하고있다.

하천은 종인천(宗仁川) 문서천(文敍川)이 있는데 냇물이 고이지 않는 건천이다. 마을은 해변가에 군집되어 해안마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인문 및 사회환경은 400여년 전 설촌(設村) 당시에 큰물을 사용하기 위해 해안가에 이동하였으나 해일이나 태풍, 폭우를 피하기 위해 윗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설촌에 대한 신화나 전설이 전해져 오는 게 없다. 제주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지리적 여건으로 도시 근교 농업지역으로 유명한 곳이다. 주농업은 여름철 수박과 겨울철 배추 등의 재배 단지로 주소득작물은 노



[그림 3-12] 신촌마을 전경



[그림 3-13] 신촌마을 배치도

지감귤, 시설감귤, 시설채소, 단감, 수박, 월동배추, 화훼 등이 있다. 마을의 면적은 769ha이며 밭이 354ha, 과수 247ha, 임야 111ha, 기타 57ha이다. 신촌마을의 가구 수는 1,219세대이며 인구는 4,008명으로 남여 인구수는 남자 2,016명, 여자 1,992명이다.



## 7) 사계 마을

사계 마을의 지리 및 자연환경은 안덕면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동쪽으로는 산방산, 북쪽으로는 단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형제섬과 송악산, 가파도가 있고, 서쪽으로는 대정읍 상모리(산이수동)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2.7Km 해안선을 따라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인문 및 사회환경에서 사계마을의 명칭은 명사벽계(明沙碧溪)라하여 사계(沙溪)리라 하였다. 이 마을은 본디 사계리, 덕수리, 동·서광리를 포함하는 자단리(紫丹里)에 속했다가 분리되어 금물로리(今勿路里), 거물로(巨物路)등으로 분리되었다. 그 후 다시 동사계리와 사계리로 나뉘었으며 일제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을 재편하면서 한 마을로 통합되었는데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이 마을을 맨 처음 설촌한 이가 김(金)씨임을 잊지 않으려는 뜻으로 구염조(具念祖)가 유학의 거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호를 따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도 한다. 사계항이 위치하여 어업이 활발하며 용머리, 산방산 및 형제섬 등 천연관광 자원을 갖춘 곳으로 매년 1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어 관광과 농, 어업이 골고루 발전하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세대수는 787가구이며 인구수는 2,519명으로 안덕면 총인구수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여 인구 구성비율은 남자 1,224명 여자 1,295명으로 가구 당 인구수는 3.2명이다.



[그림 3-14] 사계마을 전경



[그림 3-15] 사계마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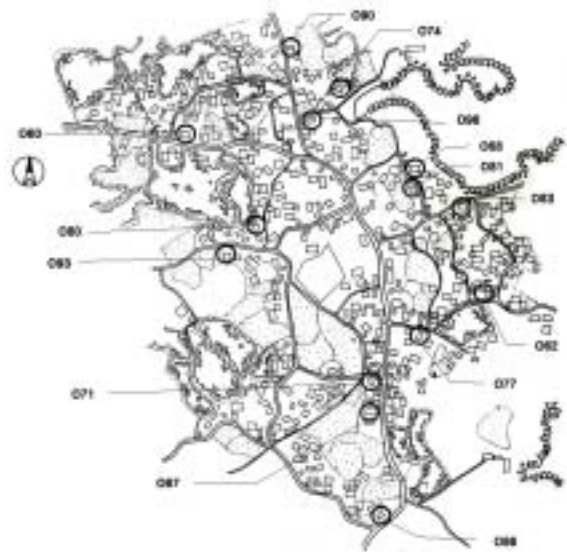
## 8) 오조 마을

오조 마을의 지리 및 자연환경은 제주 10경중인 하나인 일출봉에서 서쪽으로 800m거리에 위치한 제주 섬의 동쪽 바닷가에 위치한 해안마을이다. 동쪽에 우도가 있고 동남쪽에 성산포와 일출봉이 마주 보이며 마을 동쪽엔 식산봉이 있다.



[그림 3-16] 오조마을 전경

오조 마을은 제주 섬의 동쪽 끝에 위치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43km거리에 있다. 동쪽에 우도가 있고 동남쪽에는 성산포와 일출봉이 있고 마을 동쪽에 해발 45m의 식산봉이 위치한다.



[그림 3-17] 오조마을 배치도

인문, 사회적 환경에서 마을 이름인 오조(五照)는 성산 앞바다 일출봉 건너에서 떠오른 해가 햇살을 퍼면 가장 먼저와 닿은 마을이라 하여 지어진 것이라 한다. 이 마을은 고려조 말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조선조 성종 무렵에는 안가름

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여 오조촌(吾照村)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마을은 제주도 동쪽 해안마을로 잠수(潛嫂)들이 주로 배를 타고 나가 어장에서 조업하는 뱃물질이 성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마을의 세대수는 271호로 총인구는 1,052명 남녀 인구수는 남자 504명 , 여자 548명이다. 오씨, 강씨, 고씨 성의 집성촌이며 강씨는 현재 이 마을의 최다 성씨이다. 오조 마을의 면적은 607.4ha 전169ha, 과수원101ha, 임야199ha, 기타138.4ha이다. 농업 세대수는 119가구, 어업 155가구 기타 63가구이다.

### 3.2.2 농촌주거의 가구현황

#### 1) 가족 수

가족 수는 3~4인 가족이 32%(23/72), 5~6인 가족이 50%(36/72)로 나타났으며 사례의 평균 가족 수는 4.6명으로 나타났다.

〈표 3-3〉 가족수

분류내용	1-2인	3-4인	5-6인	7-8인	9인 이상	계
가족수(%)	6(0.8)	23(32)	36(50)	7(10)	0	72(100)

#### 2) 가족형태

가족의 세대구성에서는 3세대의 가정이 전체의 68.1%(49/72)를 나타내고 2세대의 가족형태와 부부 또는 독신의 경우를 합할 경우 1세대, 2세대 가정이 전체의 31.9%(23/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복합가족의 거주형태는 대부분 안·밖거리 별동으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각각 취침과 취사가 분리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가구의 가족생활주기는 자녀가 결혼과 함께 분가한 가정이 74%(53/72)로 나타났고, 큰 자녀 대학 및 자녀결혼이나 결혼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25%(18/72)로 나타났다.

〈표 3-4〉 가족형태 분류

구분		가족구성	사례수
단순가족	S	1인가족	1
	sC	부부	2
	sCb	부부+큰자녀4세이하	
	sCi	부부+큰자녀7세이하	
	sCj	부부+큰자녀10세이하	3
	sCk	부부+큰자녀13세이하	1
	sCa	부부+큰자녀16세이하	
	sCs	부부+큰자녀19세이하	1
	sCm	부부+큰자녀20세이상 남,녀	12
	sS	부부중 한쪽이 결혼(자녀있음)	1
	sSo	부부중 한쪽이 결혼(자녀없음)	1
복합가족	cC	두쌍의 부부(자녀있음)	17
	cB	두쌍의 부부중 한쪽이결혼(자녀있음)	22
	cBo	두쌍의 부부중 한쪽이결혼(자녀없음)	8
	cBB	두쌍부부 모두결혼(자녀있음)	2
	cBBo	두쌍부부모두결혼(자녀없음)	
총계			72

### 3) 세대주연령

세대주 연령은 30대가 0.6%(4/72)에 불과하고, 40대 20%(14/72), 50대 42%(30/72)로 50대 세대주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60대 24%(17/72), 70대 0.8%(6/72)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사례의 세대주는 주로 장년층이 있었으나 점차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제주도의 산업구조 특성상 2차 산업이 극히 적고 관광과 농업, 축산 등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비교적 젊은 세대가 농촌에 거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거주자 세대별 주거패턴은 현대형 주거로 갈수록 40대 전후의 장년층이 많고 재래형 주거로 갈수록 노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세대주 연령

연령분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사례수(%)	0	4(0.6)	14(19.4)	31(43.1)	17(23.6)	6(0.8)	72

### 4) 영농형태

영농형태는 농업 70%(51/72), 농어업 6.9%(5/72)로 나타났다. 도시근교에 위치한 마을(신촌리, 고내리, 유수암리)의 경우는 비농업 12.5%(9/72)로 다른 지역 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표 3-6〉 영농형태

영농형태	농업	농,어업	농,축산업	농,자영업	어업	축산	무직	비농업	계
사례수(%)	51(70.8)	5(6.9)	4(5.6)	1(1.4)	0	1(1.4)	1(1.4)	9(12.5)	72

### 5) 경작 형태와 영농규모

경작형태는 순자작이 66%(47/72), 자작 겸 소작 14%(10/72)이고 자작 겸 임대는 10%(7/72)로 나타났다. 순자작의 분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순소작이나 임대인 경우는 극히 소수이며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표 3-7〉 경작 형태

내용	순자작	순소작	자작겸 소작	자작겸 임대	임대	무	계
사례수(%)	47(66)	1(1)	10(14)	7(10)	2(3)	4(6)	72



제주도의 영농형태는 밭농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근대에 들어와 감귤재배를 중심으로 하는 과수농사가 크게 발달하였다. 따라서 해안가를 제외한 중산간의 농촌은 대부분 과수농사와 밭농사를 겸하고 있었으며, 해안마을의 경우 밭농사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밭농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규모는 밭농사인 경우 2천 평 미만에서 4천 평 미만을 경작하는 분포도가 높았으며, 과수농사인 경우 3천 평 미만에서 4천 평 미만이 분포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주거의 영농규모는 소규모 자작농이라 할 수 있다.

〈표 3-8〉 영농규모

평수 영농분류	5백평미만	5백 ~ 1천 평미만	1천 ~ 2천 평미만	2천 ~ 3천 평미만	3천 평 ~ 4 천평미만	4천 평 ~ 5 천평미만	5천 평 ~ 6 천평미만	계
밭농사	3	6	13	7	25			67
과수농사		1	6	8	26			66

## 6) 농기계보유

농기계의 보유실태는 농사종류에 따라 소유한 농기계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운기는 55가구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었으며, 과수농가 46가구 중 예초기 71.7%(33/46), 파쇄기 78.3%(36/46), 관리기 76.1%(35/46)로 농기계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밭작물에 필요한 트랙터는 43.8%(7/16)로 보급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농업용 트럭은 58.3%(42/72)로 보유율이 높았다. 생활향상과 함께 차량의 보급이 점차 일반화되어 차량의 보급률은 승용차인 경우 58%(42/72)로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9〉 농기계 및 차량보유

농기계 및 차량	종류	보유수(%)
농기계	경운기	55(77)
	트럭	42(58)
	관리기	14(19)
	파쇄기	3(4)
	예초기	14(19)
	트랙터	7(10)
차량	승용차	42(58)
	오토바이	12(17)

### 3.3 농촌주거공간의 현황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은 이전의 전통적인 형태에서 근대화이후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따른 시 계열적 측면에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본 절에서는 농촌주거공간의 현황을 주거배치, 공간구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주거배치는 안거리 좌향, 배치, 주거와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간구성은 첫째, 형태적 측면으로서 평면형태를 파악하고 둘째, 동선체계와 실 연결 관계를 통한 평면구성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안방, 부엌, 마루를 중심으로 실 인접 방식에 의한 평면구성을 파악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근대화이전부터 현재까지 나타나는 시 계열적 변화과정을 파악한다.

#### 3.3.1 주거의 배치

농촌주거는 도시주거와 다르게 하나의 대지 안에 생활공간과 농작업 공간인 부속공간이 배치되고 있다.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배치형식을 취하고 생활공간과 부속공간이 별동으로 각각 나누어진다. 이러한 주거의 생활공간은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로 구성되며 부속공간은 창고, 축사 등으로 구분되어 대지조건에 따라 동수를 달리하면서 다양한 배치를 나타낸다. 본 절에서는 주거의 배치를 좌향, 배치, 주거와 외부공간과의 관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1) 좌향

주거배치는 일반적으로 배산임수의 남향배치가 이상적인 상태로 알려지고 있으나, 표 3-10과 같이 분석대상 주거의 안거리 좌향은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좌향의 지역별 분포는 마을 단위로 일정한 범위에 집중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제주지역의 지리적 조건이 육지와 다르게 섬 중앙에 한라산이 솟아있는 특수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주거의 배치에서 지형과 기후에 부합되는 다양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좌향의 분포는 북제주 지역의 주거인 경우 동향 21%(11/53), 서향 30%(16/53), 남향 9%(5/53), 남제주 지역의 주거인 경우 동향 16%(3/19), 서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남향 74%(14/19)로 북제주 지역의 주거는 동향, 서향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낸 반면 남향은 적게 분포되었으며, 남제주 지역의 주거는 남향배치가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마을별 좌향의 분포는 북제주 지역의 마을 중 북쪽에 위치한 고내 마을, 유수

암 마을, 남읍 마을, 신촌 마을은 동향, 서향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서쪽에 위치한 명월 마을, 금악 마을은 동향과 서향과 함께 남향의 비율이 높았다. 남제주 지역의 사계 마을과 오조 마을은 남향의 좌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주거의 좌향은 지역별 차이가 있을 뿐 주거형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건축구조나 재료의 영향보다는 전통적인 관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좌향

지역	좌향 사례 수	재래형								개량형								현대형							
		동	서	남	북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동	서	남	북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동	서	남	북	북동	북서	남동	남서
북 제 주	고내	11	2	1						4	1							2						1	
	유수암	7						1	1	1						1	1				3				
	남읍	9		1		1				3						1					1				2
	명월	13			2	1				3		3	2				1	1							
	금악	6		3			1											2							
	신촌	7	1			1			1	1					1			2							
	합계	53	3	5	2	2	1	1	2	8	5	3	2		1		3	1	7			4		1	2
남 제 주	사계	5			2			1			1								1						
	오조	14	1		3					2	4							1		3					
	합계	19	1		5			1		2	5							1		4					

지역적 좌향의 차이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사면의 남제주 지역은 겨울의 북서풍을 한라산이 막아주고 한라산을 등지고 바다를 조망하게 주거가 배치됨으로써 남향률의 분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한라산 북사면의 북제주 지역은 주거의 배치방향이 남사면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동향과 서향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라산 북사면에 위치한 북제주 지역 주거는 배산임수의 입지를 선택할 경우 북향이 되고 그 북향은 풍수설과 관습상으로 지향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제주군 지역은 10월에서 2월까지 주로 북서계절풍이 불어 풍해가 심하므로 주거 좌향은 동향과 서향이 보편화되고 있어 일조보다는 바람의 영향에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78)</sup>

## 2) 배치

제주도 주거는 마당을 중심으로 한 구심적 대칭 배치형식과 별동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속신앙, 풍수지리, 기후, 가족제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배치형식에서 생성된 외부공간은 집 밖에서부터 집안으로

78) 김미령, 『제주도의 기후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8, pp. 34~35.

이동하는 사이에 완급, 폐쇄, 트임으로 공간체험의 충실도를 높여 주고 있다.<sup>79)</sup>

배치는 대문을 기본으로 살림채와 부속채로 나누어지며 살림채는 안거리, 밖거리, 모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안거리는 방과 부엌으로 구성되어 주생활 기능을 위한 공간이다. 밖거리와 모거리는 방과 창고로 구성되어 주생활 기능과 농작업 기능을 갖는 복합적 공간이다. 부속채는 작업장, 창고 등의 부속사나 축사로 구성되며, 주로 농작업에 관계된 공간으로 대지조건에 따라 다양한 주동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1〉 주동구성

주동 유형	안	안+밖	안+밖 +모	안+밖 +모+ 부	안+밖 +부	안, 밖, 부(2)	안+밖 +부(3)	안+밖 +부(4)	안+밖 +부(5)	안+부	안+부(2)	안+부(3)	안+부(4)	계
재래형		2		2	9	4				3	2	1		23
개량형		10	2	1	7	3	1	1	1	2		1		29
현대형	6	5		1	1	1				4	1		1	20
총계	6	17	2	4	17	8	1	1	1	9	3	2	1	72

《범례》 안:안거리, 밖:밖거리, 모:모거리, 부:부속사, ( ):부속사 개수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주동 수는 한거리 8%(96/72), 두거리 36%(26/72), 세거리 31%(22/72), 네거리 19%(14/72)로 안+밖형의 두거리와 안+밖+부형의 세거리가 전체 주거의 67%로 제주도 농촌주거의 일반적인 주동구성은 두거리나 세거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농촌주거의 주동구성은 초기부터 한 대지에 여러 채의 주거가 배치된 것이 아니라 영농이나 생활의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채 이외의 건물을 첨가하면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표 3-11과 같이 주거형별 주동구성에서 재래형 주거는 안+밖+부 30%(9/23), 안+밖+부(2), 17%(4/23), 안+부13%(3/23)이며 개량형 주거는 안+밖 35%(10/29), 안+밖+부 24%(7/29), 안+밖+부(2) 10%(3/29)이고 현대형 주거는 안거리 단독형이 30%(6/20), 안+밖 25%(5/20), 안+부 20%(4/20)으로 나타났다.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의 경우 건물의 동 수가 많으나, 현대형 주거의 경우 주동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주동구성측면에서 보면, 안·밖거리에 생활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안·밖거리 생활채의 구성 중 안·밖거리를 사용

79) 김석윤, '전통가옥', 『제주도 민속자료』, 제주도, 1987, p. 143.

하는 세대의 사례는 재래형주거 65.2%(15/23), 개량형주거 72.4%(21/29), 현대형주거 45%(9/20)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동구성의 분석결과, 농촌주거는 안거리 이외에 밖거리가 창고,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사례에서 밖거리가 창고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어 안거리, 밖거리에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 분리하여 거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현대형주거는 기존의 대지에 안거리를 신축한 경우가 90%(18/20)로 기존에 있던 밖거리를 생활공간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영농방식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점차 별동이 소멸되고 주동구성이 단일화되고 있었다.

주동배치는 대지 내에 지세의 흐름을 보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안거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대지의 물리적 조건 및 지역의 미 기후 등의 풍토적 특성에 따라 밖거리, 모거리, 부속채의 위치가 정해진다. 밖거리, 모거리는 주로 안거리의 좌, 우측이나 전면에 배치되어 주거공간의 보완적 기능을 한다.

주동배치유형은 표 3-13와 같이 배치형태에 따라 일자형, 병렬형, 꺾임형, 병치형, ㄷ자형, ㄱ자형, 기타형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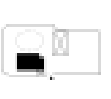


사례분석 결과, 주동배치는 표 3-12와 같이 ㄷ자형 31%(22/72), 병렬형 25%(18/72), 꺾임형 16%(12/72) 순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병치형과 ㄱ자형은 매우 적게 나타났다.

〈표 3-12〉 주동배치

주동배치 주거형	주동배치유형							계
	일자형	병렬형	꺾임형	병치형	ㄷ자형	ㄱ자형	기타	
재래형		7	3		9	1	3	23
개량형		9	5	1	10	1	3	29
현대형	6	1	4	2	4		3	20
합계	6	18	12	3	22	2	9	72

〈표 3-13〉 주동배치의 사례

배치형	주동배치						
일자형							
병렬형							
꺾임형							
병치형							
ㄷ자형							

배치형	주동배치						
ㄱ자형							
기타형							
							

《범례》 안거리: ■, 밖거리: □, 부속사: ⊠, 마당: ○

주동배치에서도 좌향과 같이 지형과 일사, 풍향, 관습 등의 제요인이 작용하여 그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는 안채에 대하여 바람을 막아주는 위치에 아랫채나 부속사를 배치한 결과로서 지역에 따라 일정한 풍향과 미기후가 주동 배치형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에서는 대체로 ㄱ자형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열악한 자연환경을 이겨 나가기에 더 적합한 배치로 북제주 지역과 남제주 지역은 안거리의 좌향뿐 아니라 배치형식에 있어서도 그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ㄱ자형 보다 ㄴ자형이 북제주군 지역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제주도내에서도 자연환경이 더 열악한 북제주군 지역에 ㄴ자형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이겨 나가기에 더 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80)</sup> 그러나 현재 주동배치는 전통적인 자연환경적 배치보다 근대화에 영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의 측면이 아니라 근대화에 따른 측면을 중심으로 주거형별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거형별 주동배치에서 재래형주거는 병렬형 30.4%(7/23), ㄱ자형 39.1%(9/23)를 나타내었고, 개량형 주거는 병렬형 31.0%(9/29), ㄱ자형 34.5%(10/29)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대형 주거는 일자형 35%(6/20), 격입형 20%(4/20), ㄱ자형 20%(4/20)로 나타났다.

표 3-12와 같이, 주거형별 주동 배치의 분포도는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에

80) 김미령, op. cit., pp. 37~38.

서 ㄷ자형, 병렬형이 가장 많았다. 주동배치가 기후의 영향에 대응한 배치로 ㄷ자형과 병렬형의 분포가 높게 나타났으나 현대형 주거의 주동배치는 지역에 관계없이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형의 단독배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기존의 부속사와의 배치관계가 약화되거나 부속사를 줄여 1, 2층으로 생활공간과 부속공간을 단일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독 일자형태 주동배치가 나오게된 이유는 감귤, 채소 등과 같은 환금작물의 재배가 활발하여 부속사를 농지에 신축하여 주거 외부로 이전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주거내 주생활과 영농을 분리하려는 경향으로 점차 주거를 생활공간화 시키는 의식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창고는 중요한 부속공간으로 농기계 및 농기구보관이나 생활재 보관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

#### 4) 주거와 외부공간

주거는 외부공간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마당주위에 둘러싼 안거리, 밖거리, 부속사의 구성형태에 따라 표 3-14와 같이 개방공간, 반개방공간, 준 폐쇄공간, 폐쇄공간으로 분류한다.<sup>81)</sup> 안거리 외에 건물들이 마당주위에 배치되므로 외부공간의 개방정도가 달라진다. 분석결과, 개방공간은 안거리의 마당 전면 3방향이 개방되어 있고, 반개방공간은 안거리의 측면이나 전면 2방향으로 개방된다. 준폐쇄 공간은 마당의 1방향만 개방되어 있으며 폐쇄공간은 마당주위에 건물이 전부 둘러싼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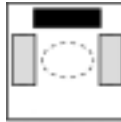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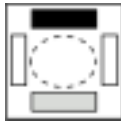
주거형별 마당유형에서 반개방공간은 주거형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나타내고 있었으며, 준 폐쇄공간은 재래형 주거로 갈수록 주동수가 많아지고, 반 개방형은 개량형 주거에서 많이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의 근대적 영농방식의 변화와 주생활의 요구로 인해 외부공간의 마당은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었다. 즉, 마당은 주동과 관련성이 높은 폐쇄형에서 주동과의 관련성이 적은 개방형으로 변화하였다.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의 마당은 출입이나 각 건물과의 연결통로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모든 내부공간이 마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주거형태의 변화로 마루가 내실화 됨에 따라 마당은 건물과 분리되는 변화를 나타내며 주거 내부공간과의 상관성이 약화되고 농작업 등 영농기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형 주거의 마당은 흙마당과 시멘트재료의 사용이 축소되고 거주자의 주거성을 높이는 녹지공간과 잔디나 나무를 심어 정원을 꾸미려는 정서

81) 이상정, 『한국남부해안지역의 지역성에 적응하는 주거건축의 적정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8, pp. 72~80, 재인용.



적 욕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표 3-14〉 마당의 유형

주거형	마당	개방형	반개방형		준폐쇄형	폐쇄형
			A	B		
형태						
재래형			6	3	12	1
개량형	1		12	8	9	
현대형	10		1	5	4	

《범례》 안거리: ■, 밖거리: □, 마당: ○

### 3.3.2 주거의 공간구성

본 절의 주거의 공간구성 분석은 1)내·외부공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평면형태, 2)동선체계와 실 연결방식을 통한 평면구성, 3)안방, 부엌, 마루의 실 인접방식에 의한 평면구성을 분석하였다. 단, 평면형태와 평면구성의 분석은 평면형태의 두드러진 특징만을 파악하였다. 즉, 증·개축으로 인한 주거의 변형부분은 제외하고 형태의 원형을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절의 분석방법은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현상적인 측면의 파악보다 공간구성상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 유형학<sup>82)</sup>과 위상학<sup>83)</sup>적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82) 유형학적 분석 방법은 주거의 평면형상을 대상으로 그것이 취하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과 구성원리를 분류하고 평면유형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경향과 공간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건축 평면형상은 그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공간적인 성격과 그것이 담는 기능을 간접적으로 표출해준다고 할수 있다. 건축평면의 형상을 파악하여 그 특성이 지니는 유사성과 차이점에 근거하여 공간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방법은 그 분석의 속성상 유형적 형태학(Morphology)이 취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건축학에서의 형태학은 형태의 원형(Archetype)을 발견하고 이들의 변형들 속에서 다양한 관련성을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전체 평면구성이 취하는 유사성과 지속성을 발견해내는 방식이며 비 치수화된 표현을 통해 평면이 취하는 기본형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손세관외, 평면의 형상으로 본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3호, pp. 36~37, 재인용.

83) 위상학적 분석방법은 평면구성상의 위상학적 특성에 대한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의 적용에 의해서 평면유형이 취하는 형태조직의 상태와 정주패턴을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형태조직의 분석을 통해 건물이 수용하는 공간적 기능의 물리적 구조를 단위공간으로 표현하여 그 연결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간배열의 합리적 대

---




















안을 전개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끌어낸 공간 구성의 논리적 성격은 공간배열 전개의 원리로서 적용될 수 있다. 고인룡, 『한국주거건축의 평면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5, pp. 79~83, 재인용.

## 1) 평면형태

건축에 있어서 공간구성의 특징은 우선적으로 건축이 지니는 평면적 형상에 의해서 표출된다는 사실을 감안해보면 평면형상의 성격을 파악한다는 것은 주택이라는 분석대상물의 형태를 인식하고 특징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주거평면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특징에 따라 평면형태를 분류한 결과는 일자형, ㄱ자형, ㄱ자변형, 부정형으로 분류되었다.<sup>84)</sup> 이상과 같은 분류를 통하여 72개 사례 평면형태를 분석한 결과 표 3-15와 같이 나타났다.

〈표 3-15〉 평면형태 분류

주거형 평면형태	대표사례	주거형			계
		재래형	개량형	현대형	
 일자형		23  (100%)	22  (75.9%)	4  (20%)	49  (68.1%)
 ㄱ자형			7  (24.1%)	2  (10%)	9  (12.5%)
 ㄱ자변형				9  (45%)	9  (12.5%)
 부정형				5  (25%)	5  (6.9%)

분석결과를 주거형별로 보면, 재래형주거는 사례전체가 일자형이었고 개량형주거는 일자형 75.9%(22/29), ㄱ자형 24.1%(7/29)로 나타났으며, 현대형주거는 일자형 20%(4/20), ㄱ자형 10%(2/20), ㄱ자변형 45%(9/20), 부정형 25%(5/20)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래형 주거에 있어서는 일자형, 개량형 주거는 일자형과 ㄱ자형,

84) 1, 2층의 주거인 경우 살림채가 있는 층이나 기준층인 1층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현대형주거는 ㄱ자변형과 부정형이 대표적 주거형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주거형별 평면형태의 특성을 분석하면, 재래형 주거의 경우 일자형은 개방적 구조를 유지하기 쉬운 장점과 함께 마당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이다. 전통적으로 3칸형의 주거평면에서 장방형과 같이 정형화, 대칭화의 경향이 강한 것은 주거의 중앙에 마루가 위치하고 양쪽에 각 실이 배치되는 내부공간의 단순한 배치가 외관 형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의 전면부 공간은 단순연장 형식으로 개방된 난간을 통하여 각 실로 연결되며 주거와 마당과의 단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sup>85)</sup> 개량형 주거의 경우 재래형 주거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변화는 없으나, 평면구성상 일자형의 평면에서 안방이나 거실이 외부로 돌출된 ㄱ자형의 평면변화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개량형 주거의 ㄱ자형은 일자형 평면과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평면형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주거의 개량으로 실 공간이 내실화 되면서 현관이 배치되어 마당과 주거내부와 의 관계가 서서히 분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량형 주거에서 마당과 주거의 연결관계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외부연장방식으로 1~2단 둘러쌓는 테라스가 등장하고 있으나 주거내부와 마당공간의 연계가 강한 경향을 나타내고있다.

현대형 주거의 경우 ㄱ자변형과 부정형은 각 실의 공간배치가 자유로운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정형의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부정형은 전체적인 공간구성에서보다는 방이나 마루의 일부가 확장된 형태나 다용도실이 측면에 결합되는 형태가 부정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당과 주거내부와 의 연결관계에서 단순연장형은 줄고 레벨을 높여 계단을 둔 외부 테라스의 연계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내부공간은 테라스의 매개공간을 통하여 마당과 연결되어 주거 내부와 마당의 기능적 관련성이 약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평면형태는 여러 변형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형태는 일자형의 평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고정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적인 제주도의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마당과 주거의 접촉면을 증가시켜 개방화하려는 기본적인 구조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과거의 제주도 전통민가의 형태가 근대화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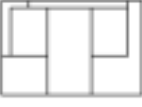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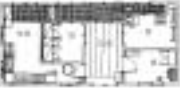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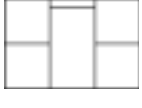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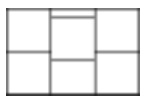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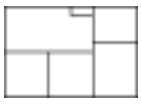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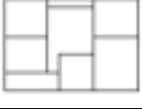



85) 높이가 15cm 내외의 현무암으로 매우 낮아 기단으로서 성격이 모호하다.

## 2) 실 연결방식에 의한 평면구성

본 절에서는 동선체계와 공간간의 연결관계를 통하여 각각의 유형을 구분하고 분석된 유형들을 동선과 공간과의 관계, 그리고 공간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평면구성분류의 기준은 동선과 주거내 각 실의 연결방식을 동시에 고려하여 홀형과 거실형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홀형은 전후가 개방된 마루 공간구조를 나타내는 형태이고 거실형은 다른 실에 의해 거실공간이 위요된 공간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 유형을 다시 세부적으로 난간·홀형, 현관·홀형, 거실중심형, 거실단부형, 거실중심·복도형의 5가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3-16〉 실 연결방식에 의한 평면구성

실의 연결		주거형	대표사례	주거형			계
				재래형	개량형	현대형	
홀형	 난간·홀형		23  (100%)	3  (10.3%)			26  (36.1%)
	 현관·홀형			15  (51.7%)	5  (25%)		20  (27.8%)
거실형	 거실중심형			11  (38.0%)	9  (45%)		20  (27.8%)
	 거실단부형				2  (10%)		2  (2.8%)
	 거실중심·복도형				4  (20%)		4  (5.6%)

사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주거형별 평면구성에서 재래형 주거는 난간·홀형에 전체사례가 해당되고, 개량형 주거는 현관·홀형 51.7%(15/29)와 거실중심형 38.0%(11/29)로 나타났으며, 현대형 주거는 거실중심형 45%(9/20), 현관·홀형 25%(5/20), 거실중심·복도형 20%(4/20), 거실 단부형 10%(2/20)등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평면구성은 난간·홀형에서 현관·홀형, 거실 중심형으로 마루가 점차 미분화되어 거실화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즉, 마루 중심의 좌우에 실을 배치하는 평면에서 마루의 후면이 미분화하여 방이나 챗방, 부엌이 배치되고 복도나 통로가 생겨 각 실로 연계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주거형별 평면구성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래형 주거의 난간·홀형은 마당에서 난간을 통하여 각 실로 연결되는 형태를 나타낸다. 특히 마루는 방과 마당과의 매개 공간 역할을 하며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는 마당과 개방적 관계를 갖는다. 재래형 주거에서 나타나는 난간·홀형은 기본적으로 3칸 겹집형의 평면으로 안방과 수납공간인 고팡이 조합되고 작은방과 부엌이 조합되어 마루를 중심으로 가사공간영역과 안방공간영역으로 분리된다. 취사난방이 분리된 형태로 안방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겹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둘째, 개량형 주거는 건축재료의 발달로 난간 전면이 창호로 되어 있어 마루가 실내화된 형태를 취하는 현관·홀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거실중심형의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주거형은 지금까지 마루를 중심으로 전후가 개방된 평면구성에서 마루 후면에 실이 배치되는 형태의 거실화 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후면의 실은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변적 형태나 부엌, 챗방이 배치되고 있었다. 주거의 내실화가 진행됨으로서 마루가 마당과의 관계보다 안방과 침실, 부엌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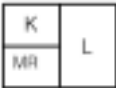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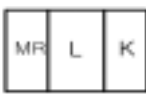
















셋째, 현대형 주거는 현관·홀형, 거실중심형, 거실 단부형, 거실중심·복도형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마루중심의 평면구성인 현관·홀형은 지속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후면의 폐쇄성이 높은 거실중심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후면에 부엌이나 방이 배치되어 반 개방적 형태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거실이 측면으로 이동한 거실 단부형과 복도가 생성된 거실중심·복도형의 사례도 나타나고 있었으나, 평면형태의 전반적인 다양성은 적게 나타났다. 현관이 정착됨으로서 주거 내부와 마당과의 관계는 분리가 진행되며 외부에 있던 욕실과 화장실이 실내화 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근대화 이후 제주지역 농촌 주거공간은 그 공간구성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음에도 마루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3칸형의 개방적 구조는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 3) 실 인접방식에 의한 평면구성

본 절에서는 근대화에 따른 주거내부에서 각 공간들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안방, 부엌, 마루의 연계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3-17〉 실 인접방식에 의한 평면구성

주거형 실의 인접	대표사례	주거형			계
		재래형	개량형	현대형	
 완전인접형			24  (82.8%)	8  (40%)	32  (44.4%)
 안방 · 부엌분리형			5  (17.2%)	7  (35%)	12  (16.7%)
 부엌 분리형		21  (91.3%)		3  (15%)	24  (33.3%)
 안방분리형				1  (5%)	1  (1.4%)
 완전분리형				1  (5%)	1  (1.4%)
 부엌별동형		2  (8.7%)			2  (2.8%)

《범례》 MR:안방, L:거실(마루), K:부엌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전통적인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평면구성이 근대화 이후 변화과정을 명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 연접에 따른 평면구성은 안방, 부엌, 거실의 인접과 분리정도에 따라 완전인접형, 안방·부엌분리형, 부엌분리형, 안방분리형, 완전분리형, 별동형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완전인접형은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 부엌이 연결되어 있고 안방과 부엌이 벽을 사이에 두고 중합되어 있는 경우, 안방·부엌분리형은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부엌분리형은 안방과 거실은 연결되어 있으나 부엌이 다른 실이나 통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안방분리형은 부엌과 거실은 연결되어 있으나 안방이 다른 실이나 통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 완전분리형은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 부엌, 거실이 다른 실이나 통로로 각각 분리되는 경우, 그리고 별동형은 부엌이 본 채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별채로 이동한 경우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주거형별 평면구성에서 재래형 주거는 부엌분리형 91.3%(21/23), 별동형 8.7%(2/23)로 나타났다. 개량형 주거는 완전인접형 82.8%(24/29)과 안방·부엌분리형 17.2%(5/29), 현대형 주거는 완전인접형 40%(8/20), 안방·부엌분리형 35%(7/20), 부엌분리형 15%(3/20)와 드문 사례로 안방분리형, 완전분리형이 나타났다. 이상의 주거형별 평면구성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래형 주거는 취사·난방이 분리된 배치형태로 안방과 부엌은 분리되어 있으며, 안방은 후면의 고팡과 인접되어 부부공간으로 사용되며 난방은 측면의 굴목을 통하여 개별난방을 한다. 부엌은 작은방과 인접되어 배치가 되며 마루는 찻방을 통하여 연결된다. 취사는 난방과 관계없이 정지 외벽 쪽으로 숯 받침대인 화덕이 설치되어 있어 취사난방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취한다.<sup>86)</sup> 별동형은 부엌이 살림공간인 안거리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별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생활 문화의 차이에 따른 특이한 형태이다.

둘째, 개량형 주거는 새마을 운동 이후 주거의 개량으로 전통적인 주거의 취사난방분리에서 벗어나 구들이 만들어지고 부엌에서 취사와 난방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안방, 부엌, 거실이 연결되는 완전인접형이 나타났다. 따라서 부엌과 인접된 방이 안방이 되었으며 부엌에는 부뚜막을 설치하여 안방을 주로 난방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안방·부엌분리형도 이 시기에 나타나는데 1980년대 연탄보일러가 나오고 취사연료가 석유나 가스로 바뀌면서 취사난방이 분리되던 시기에 건축되어진 주거에서 주로 나타났다.

86) 김홍식, 『제주의 민속 IV』, 주생활편, 1996, p. 509.



셋째, 현대형 주거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한 난방방식과 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취사방식의 도입으로 취사난방분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주거 평면구성에 영향을 미쳐 안방, 부엌, 거실의 배치방식이 자유로워지고 또한 부엌이 주거후면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통적인 제주도의 농촌주거는 취사난방 분리의 구조로 부엌은 작은방과 인접되었으나 근대화 이후 부엌에 인접된 방이 안방이 되고 부엌이 주거의 측면 배치에서 후면 배치로 변화됨에 따라 부엌은 마당과의 관계보다 마루와의 개방적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근대화에 따라 가사작업공간은 입식화의 경향을 나타내며 DK화 하였다.

### 3.3.3 농촌주거공간의 일반적 특성

본 절에서는 주거분류를 근거로 사례마을에 분포하는 재래형 농촌주거, 개량형 농촌주거, 현대형 농촌주거의 특성을 건축시기, 구조 및 재료, 배치, 공간구성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 1) 재래형 농촌주거공간의 특성

재래형 농촌주거의 건축시기는 해방이후부터 1970년까지 건축된 주거이다. 재래형 주거의 구조와 재료는 기본적으로 전통민가의 목조 양식을 유지하고 있으며 출입형식은 현관 없이 개방된 구조를 가졌다. 부엌은 화덕구조로 안방과 분리되어 작은방에 인접된 측면배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부엌이 살림공간인 안거리에 배치되어 있질 않고 별동으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도 나타났다.

재래형 농촌주거의 원형은 전통적인 민가의 몇 가지 형태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지내형에서 변화한 사례는 16가구이고(G45, N48, S48, M49, G50, U55, M60, K61, SA62, O62, O68, SA64, G65, M67, O67, K70), 4칸형에서 변화한 사례는 4가구이고(SA51, N56, K62, K65), 한 칸형에서 변화한 사례는 1가구(S50), 안거리에 부엌이 없고 별동부엌이 있는 사례 2가구(S60, O60)이다.

배치에서 좌향은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주동배치는 병렬형과 ㄷ자형이 나타나는데 안거리이외에 창고, 쇠막, 생활공간등 주동수가 3동 이상으로 나타났다. 부속사는 농업용 창고와 쇠막등이 배치되고 생활공간인 밖거리에 생활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거주하거나 부모자식세대가 분리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다. 마당은 부속공간등 주동수가 많음으로서 준 폐쇄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주동배치 전경



밖거리 전경



안거리 전경



[그림 3-18] 재래형 농촌주거의 평면1(사례N48)



안거리 전경



밖거리 전경



마루 전경



[그림 3-19] 재래형 농촌주거의 평면2(사례U55)

공간구성에서 평면형태는 장방형의 일자형으로 마당과의 개방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평면구성은 3칸형의 겹집배치를 기본으로 마루가 전후로 개방되어진 형태를 나타냄으로서 마루가 주거의 중심공간인 전통적인 주거형을 지속하고 있었다. 부엌, 안방, 마루의 실 인접방식에 의한 평면구성은 부엌이 안방하고 분리되어 작은방과 인접된 형태를 취하고, 굴목을 통한 개별난방을 하고 있었다. 취사와 난방은 분리되어 있으며 부엌이 별채로 독립되어 있는 별동형도 나타나고 있었다.

## 2) 개량형 농촌주거공간의 특성

개량형 농촌주거는 농촌주거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971년부터 1985년까지 건축된 농촌주거로서 새마을운동을 배경으로 지금까지의 민가형식에서 탈피한 근대적 개념의 주거형이다.

구조 및 재료는 전통민가의 목구조에서 시멘트 블록구조로 바뀌게 되었고, 지붕형태는 박공지붕으로, 지붕구조는 목조틀로 만들어 슬래트나 기와를 얹는 형식으로 지붕상부에 파라펫(parapet)<sup>87)</sup>을 설치하여 빗물을 받아 홈통으로 처리하였다. 외벽재료는 블록 위에 미장으로 수성마감이나 본타일 마감을 한 단순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에 목조가 블록조로 급속히 변화한 이유는 정부주도의 농촌근대화 정책에 따른 건축재료의 대량공급과 시공상 블록사용의 편리성에서 비롯되었다. 시멘트 블록구조는 시공의 간편성 등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통주거에 비하여 단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정부주도의 강력한 주택개량사업의 추진은 기존 목구조의 채래형주거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한 계기가 되었다. 배치에서 좌향은 각 지역의 전통적 관습이 유지가 되었다.

주동배치는 ㄷ자형과 병렬형의 분포도가 높았으나 마당은 주동수가 채래형에 비하여 감소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반개방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공간구성에서 평면형태는 일자형이 대다수이며, 안방과 마루가 전면으로 돌출한 ㄱ자형 평면도 나타나고 있으나 전통형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었다. 평면구성은 현관·홀형과 거실중심형이 나타나 초기에 마루가 개방된 형태에서 점차 마루후면이 분화되는 반개방적 공간구조로 변화되었으며, 새마을운동 이후 취사난방 겸용으로 부엌, 안방, 마루가 조합되는 형태가 나타내다가 점차 취사난방 분리로 인해 안방과 부엌이 분리되는 안방·부엌분리형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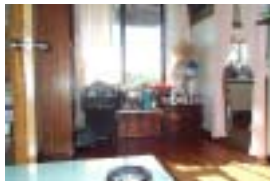
87) 개량주거에서 나타나는 형식으로 지붕이 슬래트나 기와인 경우 물받이 홈통을 만들지 않고 난간 벽체로 지붕주변을 돌린 형태



외부 전경



안거리 전경



마루 전경



[그림 3-20] 개량형 농촌주거의 평면1(사례G82)



외부전경



안거리 전경



마루 전경



[그림 3-21] 개량형 농촌주거의 평면2(사례M83)

### 3) 현대형 농촌주거공간의 특성

현대형 농촌주거는 198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되어진 농촌주거를 말한다. 이 시기는 농촌의 사회, 경제적 환경이 향상되고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의 타율적인 농촌주거 개선정책에서 농민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 다양한 농촌주거의 형태가 등장하였다.

구조 및 재료는 블록조에서 시멘트 벽돌조를 사용하여 재료의 변용과 시공이 간편한 근대화된 주거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외부에서 행해지던 위생행위가 설비의 발달로 내부의 욕실과 화장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부엌은 입식화되었고 주거후면에 배치되어 마당과의 연결관계에서 거실과의 관계에 더욱 중요시되었다. 지붕의 형식은 기와지붕도 나타나지만 대부분 슬라브지붕으로 난간형태에 따라 벽형, 눈섭 지붕형, 난간형으로 구분된다. 슬라브 지붕은 간단한 농작업, 세탁물건조, 휴식공간 등 전통적으로 마당공간 기능을 나타내며 유희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외벽재료는 거주자 취향에 따라 치장 타일, 적벽돌 타일, 제주 석타일 등을 사용하여 다양화, 고급화 경향이 나타났다. 배치에서 안거리의 좌향은 기존마을의 관습에 따른 배치를 따르고 있다. 주동배치는 꺾임형과 ㄷ자형 배치가 나타나는데 점차 주동수가 줄어드는 단일 일자형 배치가 나타나고 있어 부속사가 농지로 이동하여 생활공간만 있는 형태와 생활공간과 부속공간이 수평적 형태에서 수직적 형태로 1, 2층으로 일체화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주거배치와 마당관계는 점차 개방형과 반개방형을 나타내어 마당과 주거와의 관계가 기능적으로 단절이 되고 있다. 난방설비가 기름보일러와 가스를 이용한 취사난방분리 요인에 의해 평면형태는 일자형과 ㄱ자형은 적게 나타나고 ㄱ자변형, 부정형의 평면형태가 증가하는 다양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면구성은 거실단부형, 거실중심·복도형 등과 같은 공간구성이 나타나고 방, 거실, 부엌 등의 배치가 자유스러워지고 부엌이 주거 후면에 배치되고 입식화 되어 거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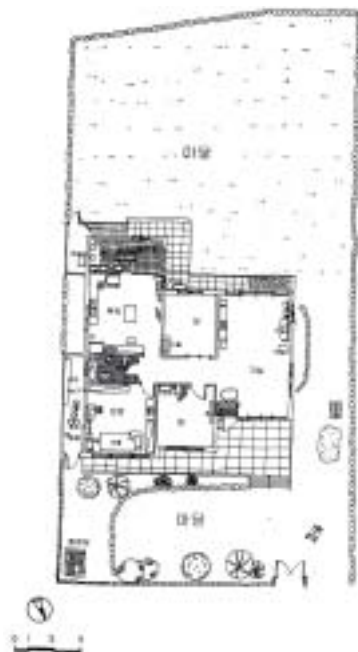
외부전면 전경



외부후면 전경



거실 전경



[그림 3-22] 현대형 농촌주거의 평면1(사례G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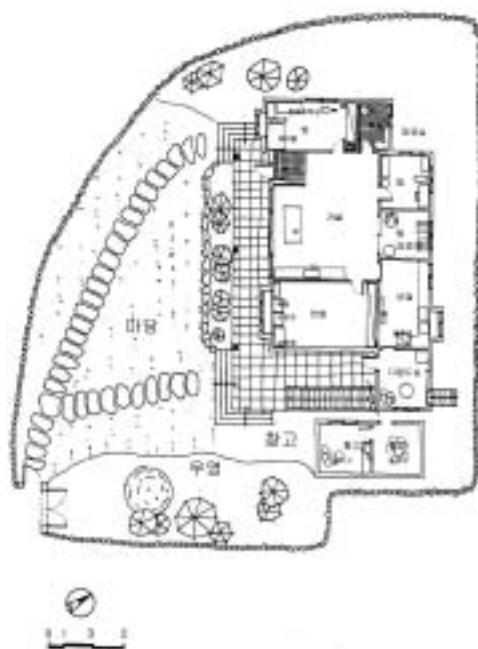
외부 전경



테라스 전경



거실 전경



[그림 3-23] 현대형 농촌주거의 평면2(사례N99)

### 3.4 소결

본 조사지역에 나타나는 농촌주거는 구조, 평면형태, 입면형태에서 다양성을 띄고 있었다. 이는 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요인과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주거형태가 다양하게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주거를 건축시기, 건축구조, 건축재료, 실구성으로 파악한 결과 재래형 농촌주거, 개량형 농촌주거, 현대형 농촌주거 3가지 주거로 분류되었다.

첫째, 재래형 농촌주거는 새마을운동이전에 건축되어진 전통민가형으로서 근대화에 따른 주생활의 변화로 전통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변화되어온 주거이다. 이 주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배치에서 좌향은 지역적 차이를 나타나며 각 지역의 전통적 관습에 따른 좌향이 유지되고 있었다. 주동배치는 ㄷ자형과 병렬형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축사나 창고 등 부속사의 배치가 많아 주거와 외부공간의 관계는 준 폐쇄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공간구성에서 평면형태는 장방형의 일자형태를 나타내고 평면구성은 마루중심 3칸형으로 전후가 개방되어 외부와 각 실이 유기적 관계를 나타나고 있었다. 부엌은 작은방과 인접되고 찻방과 마루가 연결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개량형 농촌주거는 농촌개량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1971년 이후부터 1985년까지의 농촌주거로서 이전까지의 민가형태에서 벗어나 근대화된 개념에 의해 건축되어진 주거이다. 배치에서 좌향은 각 지역의 전통적 관습에 따라 배치되고 주동배치는 ㄷ자형과 병렬형의 분포도가 높았으나 주거와 외부공간과의 관계는 반개방 형식을 나타내었다. 공간구성에서 평면형태는 일자형과 ㄱ자형이 나타났으며 대부분 일자형으로 전통적 형태가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공간구성은 마루중심 3칸의 전통민가의 형태에서 전면에 출입문을 설치한 현관·홀형과 마루후면에 실이 배치되는 거실중심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취사난방 겸용으로 부엌이 안방의 후면에 접속되는 형태를 취하여 부엌이 전통적으로 마당과의 관계에서 마루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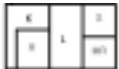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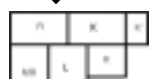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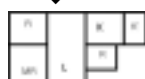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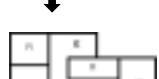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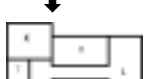
셋째, 현대형 농촌주거는 1980년대 중반이후 1990년대 말까지 건축되어진 농촌주거로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거주자의 자유의사에 입각하여 건축되어진 도시적 성향을 나타내는 주거이다. 좌향은 마을의 관습에 따른 전통적인 배치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주동배치는 농업형태와 영농방식의 변화로 부속사수가 감소하여 단일형 배치를 나타냄으로서 주거가 생활공간화하고 있으며 개방적 구조를 나타내었다. 평면형태는 일자형에서 ㄱ자변형, 부정형의 다양화 경향을 나타

내고 평면구성은 거실 단부형, 거실중심·복도형 등과 같은 자유로운 평면배치가 가능해졌다. 그 이유는 취사난방겸용에 따른 안방과 부엌이 인접한 획일적 배치에서 난방설비가 기름보일러와 가스를 이용한 취사로 취사난방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3가지의 주거는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통시적 변화과정단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주거공간구성은 일련의 시 계열적 변화의 과정으로 파악되었다. (표 3-18, 표 3-19 참조)

〈표 3-18〉 조사대상 농촌주거공간의 특성

항목	주거형	재래형	개량형	현대형
시기 및 구조	건축시기	1971년이전	1971-1985년	1986-1999년
	건축구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시멘트벽돌조
	외벽재료	석재	블럭	벽돌
배치	좌향	마을단위 좌향유지	마을단위 좌향유지	마을단위 좌향유지
	주동구성	별동형	별동형	별동형, 단일형
	주동배치형	ㄷ자형, 병렬형	ㄷ자형, 병렬형	ㄷ자형, 병렬형, 일자형
	마당개방성	폐쇄적구조	반개방적구조	개방적구조
공간구성	평면형태	-자형	-자형, ㄱ자형	ㄱ자변형, 부정형
	실 연결방식	난간·홀형	현관·홀형, 거실중심형	거실중심형, 거실단부형, 거실·중심복도형
	실 인접방식	부엌분리형	완전조합형, 안방·부엌조합형	부엌분리형, 완전조합형, 안방·부엌분리형

〈표 3-19〉 공간구성의 변화 특징

주거형	년도	공간구성의 변화	주공간의 특징
재래형	90년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루중심 3칸형</li> <li>마루의 개방적 구조</li> <li>안방, 부엌분리구조</li> <li>일자형평면</li> </ul>
개량형	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루중심 3칸형 지속</li> <li>마루의 개방적 구조</li> <li>안방, 부엌인접구조</li> <li>일자형과 ㄱ자형 평면형태</li> </ul>
현대형	9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실중심 3칸형 지속</li> <li>거실의 개방적구조 유지</li> <li>안방, 거실, 부엌 자유로운 공간구성</li> <li>ㄱ자변형, 부정형 평면형태</li> </ul>

《범례》 MR:안방, L:거실(마루), K:부엌



## 제4장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

현장연구 결과, 사례대상 지역의 농촌주거공간은 주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좌식 지향의 개방적 공간구성, 접객·의례중심의 공간구성, 세대별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제주도 농촌주거공간의 주공간과 주생활의 상호대응관계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 4.1 좌식지향의 개방적 공간구성

본 절에서는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주생활양식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좌식지향의 생활과 개방적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 4.1.1 주생활행위

본 절에서는 거주자의 좌식생활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사, 단란, 접객, 취침을 중심으로 생활행위와 장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 1) 식사

식사는 가족의 단란이 유지되는 행위로서 식사장소는 가족의 단란 및 주부의 가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주거형별 식사행위 장소를 보면, 재래형 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30.4%(7/23), 방 17.4%(4/23), 부엌 13.0%(3/23), 개량형 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41.4%(12/20), 찻방 21.4%(7/29), 현대형 주거는 식당 50%(10/20)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일상적인 생활에서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의 식사행위 장소는 계절변화에 따라 방과 마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현대형 주거는 계절적 행위의 이동은 감소하고 점차 식당에서의 식사행위가 증가되고 있었다.

〈표 4-1〉 식사

행위장소 주거형	방	거실 (마루)	식당 (찻방)	부엌	방(M)+ 거실(S)	부엌(M) +거실(S)	방(M) +부엌(S)	계
재래형	4	3	2	3	7	2		23
개량형	1	2	7	4	12	3		29
현대형		3	10		3	1	3	20

《범례》 M:주로 사용, S:보조로 사용

## 2) 단란

농촌지역에서의 단란행위는 주로 저녁 식사 후 TV시청과 간단한 담소 정도로 볼 수 있다. 주거형별 단란장소를 보면, 재래형 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52.2%(12/23), 마루 34.8%(8/23), 개량형 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65.5%(19/29), 마루 20.7%(6/29), 현대형 주거는 거실 45%(9/20), 안방과 마루 혼용이 45%(9/20)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단란장소는 방과 마루에서 계절적 변화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단란

행위장소 주거형	방	거실 (마루)	식당 (챗방)	부엌	방(M)+ 거실(S)	계
재래형	3	8			12	23
개량형	1	6	1	2	19	29
현대형	2	9			9	20

《범례》 M:주로 사용, S:보조로 사용

## 3) 접객

일반방문객을 기준으로 접객은 재래형 주거는 방과 마루 겸용 56.5%(13/23), 마루 26.1%(6/23), 개량형 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65.5%(19/29), 방 26.1%(6/29), 현대형 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5.5%(11/20), 거실 30%(6/20)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접객장소는 계절적 변화에 의해 방과 마루 혼용으로 현대형 주거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안방의 개실화가 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3〉 접객

행위장소 주거형	방	거실 (마루)	식당 (챗방)	부엌	방(M) +거실(S)	계
재래형	4	6			13	23
개량형	6	2	1	1	19	29
현대형	3	6			11	20

《범례》 M:주로 사용, S:보조로 사용

이상과 같이 식사, 단란, 접객의 생활행위와 장소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안방과 마루(거실)의 전용화(轉用化) 경향을 볼 수 있으며, 이

는 개방구조에 따른 좌식지향의 전통적 주생활양식이 현재까지 지속되는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4) 취침

전통적으로 제주도 주거의 취침은 구들에서 이루어졌는데 고팡에 접한 구들을 큰구들, 나머지를 작은구들이라 불렀다. 실제로 구들의 크기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집안의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고팡이 접하고 있는 방이 큰구들로 집안의 가장이 사용한 것이다.<sup>88)</sup>

취침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방(큰구들) 사용자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주거형별 분석결과를 보면, 재래형 주거는 빈방으로 있는 경우가 34.8%(8/23), 부부취침 21.7%(5/23), 자녀취침 21.7%(5/23)로 나타나 안방이 부부공간이 아닌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침실이 안방을 고수하기보다는 취사난방 겸용 시기에 부엌에 접해있는 작은구들을 안방으로 사용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량형 주거는 빈방으로 있는 경우가 31%(10/29)이고 부부취침인 경우가 48.3%(14/29)로 부엌에 연접한 방이 안방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대형 주거는 안방의 70%(14/20)가 부부침실공간으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재래형 주거나 개량형 주거에서 안방이 부부침실로 전용(專用)되지 않고 난방이 이루어진 작은방으로 이동하는 것과, 현대형 주거와 같이 가장 큰방을 안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방이 가족의 공적생활의 수용과 접객을 위한 생활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공간의 전용성(轉用性)과 좌식지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4〉 안방사용행태

세대구성 주거형	조부모	부부	손자녀	조부모+ 손자녀	부모+ 손자녀	빈방	계
재래형	1	5	5	1	3	8	23
개량형		14	4		1	10	29
현대형	2	14			3	1	20

#### 5) 주생활상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주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취침, 식사, 접객, 단란 행위

88) 김홍식, 『제주의 민속 IV』, 주생활 편, 제주도, 1996, p. 508.

를 공적행위와 사적행위로 구분하여 생활행위와 장소에 따른 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안방중심형, 안방·부엌중심형, 부엌중심형, 거실중심형(L-DK)의 네가지 유형이 나타났다.<sup>89)</sup>(표 4-5) 전체사례의 주생활상은 안방중심형이 37.5%(27/72), 안방·부엌중심형 29.2%(21/72), 거실중심형 26.4%(19/72)로 안방중심형이 가장 높고 부엌중심형이 가장 낮은 분포로 나타났다. 주생활 별로 보면, 안방중심형은 재래형 주거, 개량형 주거, 현대형 주거 모두에서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으며, 안방·부엌중심형은 재래형 주거와 현대형 주거에서는 비슷한 분포였으나 개량형 주거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거실중심형은 현대형 주거가 다른 주거형보다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부엌중심형은 개량형 주거에서만 나타나는 일반적이지 않은 생활상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제주지역 농촌주거는 식사, 접객, 단란, 취침 등 생활행위의 분화가 덜 이루어진 안방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재래형 주거의 공적공간은 생활행위가 적게 나타나고 안방과 같은 사적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량형 주거의 공적공간은 식사행위의 분포도가 높으나 좌식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공간의 전용적(轉用的)의 생활양식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형 주거는 식사장소가 부엌 겸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단란과 접객이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실중심으로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제주지역 농촌주거는 식사, 접객, 단란, 취침 등 생활행위의 분화가 덜 이루어진 안방중심형에서 거실중심형으로 완만하게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통적인 좌식지향의 전용적(轉用的) 생활양식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89) 생활상의 분류기준에서 1)안방중심형은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 없이 특정실로 중복, 통합되는 주생활 형태, 2)부엌중심형은 중복, 통합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에서 식사행위만이 분리되는 주생활 형태, 3)안방·부엌중심형은 DK를 확보하고 식사실을 전용하고 주공간의 사용자에 따라 안방은 부부또는 가족만이 사용하는 가족공유공간 및 부부실로 사용하는 주생활 형태, 4)거실중심형은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나아가 공적행위를 내용에 따라 상호 독립된 공적공간을 확보하는 주생활 형태로 설정하였다. 이순희, 『연료전환에 따른 도시주거공간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7, pp. 144~148, 재인용.

〈표 4-5〉 주생활상

분류	주생활상	재래형	개량형	자주형	계
안방중심형		11  (47.8%)	10  (34.5%)	6  (30%)	27  (37.5%)
안방-부엌 중심형		5  (21.7%)	10  (34.5%)	6  (30%)	21  (29.2%)
부엌중심형			2  (6.9%)		2  (2.8%)
거실(마루) 중심형		7  (30.5%)	4  (13.8%)	8  (40%)	19  (26.3%)
기타		0	3 (10.3)	0	3 (4.2%)

#### 4.1.2 주생활재

생활재를 파악하는 것은 거주자의 생활양식<sup>90)</sup>을 파악 수 있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본 절에서는 공간별 생활재의 배치 및 사용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90) 생활양식은 크게보면 입식과 좌식생활양식으로 분류되는 기거양식에 속하는 것으로 기거양식은 기거·행동에 관한 것으로 바닥에 앉는 생활인가 의자에 앉는 생활인가의 문제이다. 住田昌二(1984)는 앉고 서는 동작(기거동작)의 기본적인 동작이 기거양식으로 좌식은 바닥에 직접 앉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는 동작양식이며 입식(의자식)은 의자와 소파, 침대등의 가구를 지지하여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일련의 동작양식이라고 정의 하였다. 澤田知子(1992)도 이러한 관점에서 기거란 앉고 서는 행동인 기거동작, 또는 일상생활의 의미로 정의하고 좌식 기거양식은 바닥면을 신체 지지구조로 하는 기거행동의 행동양식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생활행위시 자세는 인간의 행동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본 신체의 형태이며 가구는 기거양식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다. 기거양식은 일반적으로 좌식과 입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상옥,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 박사논문, 1996. pp. 7~8, 재인용.

## 1) 거실(마루)

거실의 기거양식을 나타내는 소파배치는 재래형 주거 13%(3/23), 개량형 주거 24.1%(7/29), 현대형 주거 30%(6/20)로 주거형별 소파 보유수가 서서히 증가하지만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현대형 주거의 공간구성은 거실의 배치로 입식 위주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파 등의 배치는 일반화되어 있질 않았으며 소파가 배치된 경우에도 소파 사용의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의 외형적 근대화에 비해 생활의 입식화는 늦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파가 배치된 사례에서도 의례적인 접객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소에는 입식화된 거실공간에서 좌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사례G73과 같이 마루 전면공간은 좌식의 생활행위가 일어나며, 소파를 마루 후면에 배치하여 비 일상적 접객시에만 이용하는 형태나 사례G85와 같이 소파와 좌식탁자를 겸용하는 혼용의 생활행위가 일반적이었다.



[그림 4-1] 마루후면소파배치  
(사례 G73)



[그림 4-2] 소파와 좌식탁자의  
혼용사용 (사례 G85)

## 2) 부엌 및 식당(챗방)

가사작업의 입식화를 나타내는 작업대의 도입은 재래형 주거 91.3%(21/23), 개량형 주거 100%(29/29), 현대형 주거 95%(19/20)로 가장 빠른 입식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일상 가사행위가 아닌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경조사시 조리 등 비 일상시 가사행위는 입식작업대와 바닥면을 같이 사용하는 혼용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일상적인 조리와는 다르게 넓은 면적이 필요함으로 작업대의 수용이 불가능하여 좌식과 입식이 혼용되는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비 일상시의 조리행위는 부엌만이 아니라 다용도실이나 챗방으로 연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재래형 주거의 챗방은 냉장고, 식기장 등 주방관련물품 및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개량형 주거의 챗방은 주방 관련물품의 보관이 이루어졌으나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식사행위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식사의 입식화를 위해 식탁유무를 파악한 결과, 재래형 주거 17.4%(4/23), 개량

형 주거 27.6%(8/29), 현대형 주거 40%(8/20)로 부엌이 점차 식당의 기능을 갖춘 DK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사를 위한 기거양식은 식탁과 함께 밥상도 겸하여 사용하는 혼용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 일상시의 식사는 여전히 좌식의 밥상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것은 주생활이 공간한계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융통적 공간사용을 위한 좌식생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그림 4-3] 경조사  
시부엌바닥사용  
(사례M83)



[그림 4-4] 책방 가구  
및 가사물품보관(사례K70)

### 3) 침실

부부침실은 주로 안방이 사용되고 주생활제는 개인생활을 보조하는 수납가구류, 침대 등과 같은 휴식용 가구류, 화장대 및 책상의 작업 가구류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TV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사례분석결과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는 안방에 가구류가 적게 배치되는데, 이것은 장롱 등의 수납가구를 안방에 두지 않고 작은방이나 빈방으로 이동하거나 굴목 상부 벽장을 붙박이장으로 만들어 바닥면적을 최대한 넓게 활용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며, 현대형 주거는 장롱을 안방에 배치하여 집안의 상징성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4-5] 기존 굴목위 벽장에  
수납붙박이장 설치(사례K61)



[그림 4-6] 안방의 상징적 장롱  
배치(사례SA92)

실별 TV보유 상태를 보면, 재래형 주거는 부부침실 73.9%(17/23), 자녀침실

30.4%(7/23), 마루 10%(2/20), 개량형 주거는 부부침실 79.3%(23/29), 자녀침실 30.4%(8/23), 마루 30.4%(3/29), 현대형 주거는 부부침실 60%(12/20), 자녀침실 17.2%(5/29), 거실 30%(6/20)로 나타났다. 단란의 수단으로 TV가 각 실로 보급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부침실의 보유수가 높게 나타나 단란행위가 부부침실인 안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부부침실 침대 보유는 재래형 주거 13%(3/23), 개량형 주거 10.3%(3/29), 현대형 주거 5%(1/20)로 모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취침형태는 전통적인 관습이 지속되는 것으로 안방이 단란, 접객, 식사 등 다용도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결과로 침대 등의 배치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안방의 입식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입식화장대, 문갑 등의 기타 가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안방의 입식화는 매우 느린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자녀침실의 침대 보유는 재래형 주거 26.1%(6/23), 개량형 주거 27.6%(8/29), 현대형 주거 30%(6/20)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식책상과 책장 등이 대부분 배치됨으로 부부침실에 비해 입식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부부침실과 자녀침실의 입식화 정도는 자녀침실은 비교적 빠른 입식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안방은 여전히 좌식지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욕실 및 화장실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에서는 세면대와 욕조가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어, 다용도실에서 위생행위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형 주거는 이러한 위생행위가 욕실 및 화장실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행위의 입식 경향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세면대는 설치되었으나 세면대 밑 부분에 수도를 설치하여 세수대야를 이용한 좌식행위를 하고, 욕조는 목욕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릇의 보관 및 빨래, 배추 절임 등의 다용도활용을 보이고 있었다.

변기설치는 재래형 주거 4.3%(1/23), 개량형 주거 3.5%(1/29), 현대형 주거 75%(15/20)로 나타나고 있어, 화장실의 입식화는 현대형 주거에서 점차 실내화장실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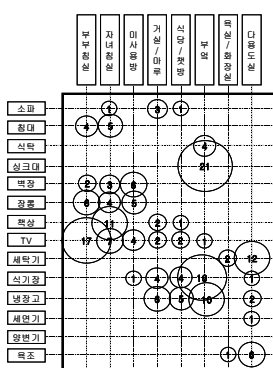
[그림 4-7] 좌식의 위생행위  
(사례M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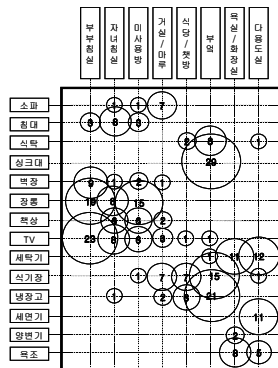
[그림 4-8] 욕조에 그릇보관  
(사례M83-1)

## 5) 다용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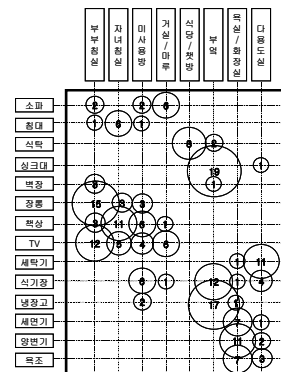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의 다용도실은 가사 보조공간뿐 아니라 위생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위생행위가 나타나는 복합적 생활공간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용도실은 일상적인 세탁과 가사, 세면이나 목욕 등의 행위가 나타났다. 일상적인 세탁행위는 세탁기와 손빨래가 혼용하고 가사행위는 주로 채소 다듬기, 씻기 행위가 나타나는데 바닥에 꾸그리고 앉는 좌식을 나타낸다. 또한 농작업 후 탈의, 세면과 여름에 목욕 등이 좌식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다용도실의 전반적인 생활양식은 모든 주거형에서 좌식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용도실의 주요한 기능은 가사 보조공간으로 부엌이 입식화 되면서 입식작업대에서 모든 가사행위들이 선 자세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엌이 입식화 되더라도 우리의 조리문화는 여전히 물을 많이 쓰는 형태로 좌식의 작업관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입식 부엌 외에 좌식의 가사 보조공간이 필요하였다.



[그림 4-9] 재래형  
가구현황



[그림 4-10] 개량형  
가구현황



[그림 4-11] 현대형  
가구현황

이상의 분석결과, 주거공간별 기거양식은 다용도실<안방<작은방<거실<욕실 및 화장실<부엌 순으로 입식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거형별 기거양식은 재래형 주거<개량형 주거<현대형 주거 순으로 입식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거공간에 대한 물리적 입식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거주자 생활의 입식화는 매우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실제의 생활 속에서는 좌식 생활관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1.3 주요 공간별 구성

주요 공간별 구성의 분석은 거실, 안방, 작은방, 현관을 개폐방식에 따른 개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엌, 욕실 및 화장실은 배치관계에 따른 개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1) 거실(마루)

거실 개방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후 개방된 형태를 분류하면, 1)거실의 전,후면이 개방된 완전개방형, 2)후면에 실이 있지만 미서기문으로 문을 열었을 때 개방된 부분개방형, 3)거실 후면에 실이 배치되어 일부 개방된 반개방형, 4)거실 후면에 실이 배치되어 완전히 막히게 된 폐쇄형을 나누어진다.

주거형별 거실 배치형태를 보면, 재래형 주거는 완전개방형이 100%(23/23)이고 개량형 주거는 완전개방형 62.1%(18/29), 부분개방형 37.9%(11/29)로 나타났으며, 현대형 주거는 부분개방형 45%(9/20), 완전개방형 25%(5/20), 반개방형 20%(4/20), 폐쇄형10%(2/20)로 나타났다. 사례의 거실은 개방형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분개방, 반개방으로 점차 후면이 폐쇄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반개방형과 폐쇄형은 부엌이나 방들이 주거후면에 분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루가 건축재료 및 설비의 발달로 인해 내실화되고, 바닥 난방이 이루어짐으로써 통로의 기능 뿐 아니라 가족실 기능을 갖는 거실의 성격으로 변하는 것에 기인한다. 즉, 중앙에 배치된 거실은 공동생활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각 실과의 상관성이 큰 것으로 후면을 완전히 폐쇄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개방, 반개방형태가 나타나 전통 상방의 개방적 의식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표 4-6〉 거실의 배치형태

거실형 주거형	완전개방형	부분개방형	반개방형	폐쇄형
형태				
	▲	▲	▲	▲
재래형	23			
개량형	18	11		
현대형	5	9	4	2

《범례》 ▲: 출입구

## 2) 안방 및 작은방

안방의 개실화 여부를 파악 위하여 출입문 형식을 파악하였다. 출입문 형식을 보면, 재래형 주거의 미서기문 설치는 91.3%(21/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량형 주거의 미서기문 설치는 93.1%(27/29)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의 안방은 마루와 개방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형 주거의 미서기문 설치는 45%(9/20)를 나타내고 있어, 현대형 주거의 안방은 공적공간에서 부분적인 사적공간으로의 개실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방을 제외한 작은방의 출입문형식을 파악한 결과, 재래형 주거의 미서기문 설치는 57.8%(26/45), 개량형 주거의 미서기문 설치는 57.4%(39/68)로 여닫이문과 비슷한 분포가 나타났으나, 현대형 주거의 미서기문 설치 48.9%(22/45)로 안방과는 다르게 미서기문과 여닫이문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고있었다. 작은방에 여닫이문 설치의 분포가 높은 것은 재래형 주거의 큰구들 후면에 전통적으로 여닫이문 형식을 갖는 방인 고팡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근대화 이후 개량되면서 침실로 용도 변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창고와 침실의 융통적 사용<sup>91)</sup>을 위해 여닫이문을 설치하고 있었다.

## 3)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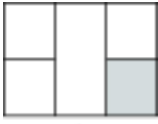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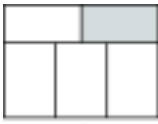

부엌의 배치는 거실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전면배치형, 후면배치형, 측면배치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부엌 배치형태를 보면, 재래형 주거는 측면배치형

91) 주민과 면담결과 창고방이라는 호칭으로 보아 창고와 방의 기능을 하는 고팡 의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52.2%(12/23), 후면배치형 39.1%(9/23)로 나타났으며, 개량형 주거는 후면배치형 62.1%(18/29), 측면배치형 34.5%(10/29)로 나타났다. 현대형 주거는 후면배치가 90%(18/20)로 대다수를 나타내고있었다.

분석결과는 측면배치형과 후면배치형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근대화에 따른 취사난방겸용이 개량형 주거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 부엌이 안방의 후면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 유형은 주거 전면에서 보이는 시선을 차단하며 가사 작업 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거실과의 개방적 연계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7〉 부엌의 배치형태

부엌형 주거형	전면배치형	후면배치형	측면배치형
형태			
재래형	2	9	12
개량형	1	18	10
현대형		18	2

《범례》 ▲: 출입구

#### 4) 욕실 및 화장실

제주도의 전통적인 화장실 공간은 통시라는 독특한 위생공간을 가지고 생활공간과 분리하여 외부에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이후 정부주도의 화장실개량사업<sup>92)</sup>으로 화장실은 콘크리트 판벽이나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고 대변실과 소변실이 각각 분리된 전국적인 공통의 형태로 증·개축 되었다.

주거형별 화장실 배치형태를 보면, 재래형 주거는 외부배치 95.7%(22/23), 실내외배치 4.4%(1/23)로 나타났고, 개량형 주거는 외부배치 96.6%(28/29), 실내외배치 3.5%(1/29)이며, 현대형 주거 외부배치 35%(7/20), 실내외배치 40%(8/20), 실내만 배치하는 경우 25%(5/20)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는 대부분 실외에만 화장실을 배치하고 있는데 반해, 현대형 주거는 실내화되고 있으나, 내·외부에 동시에 배치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92) 화장실 개량은 농촌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각 주택마다 2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어 표준설계도에 따라 각 주거마다 동일하게 건축 되었다.

## 5) 현관

출입을 위한 난간의 배치에서 주거가 점차 내실화되면서 내·외부공간의 중간 영역으로서 현관이 등장하게 되며, 현관의 배치형태는 거실과 마당의 개방적 관계에 따라 1)거실전면에 개방된 현관을 만드는 내부노출형, 2)거실 내부에 현관이 개별공간을 분리된 내부구획형, 3)현관이 거실에서 분리되어 외부에 확장된 외부돌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거형별 현관 배치형태를 보면, 재래형 주거는 난간의 형태에서 증·개축에 의해 난간 전면에 미서기문을 달아 현관을 만드는 내부노출형이 100%(23/2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량형 주거는 내부노출형 86.2%(25/29)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내부구획형이 13.8%(4/29)로 나타났으며, 현대형 주거는 내부노출형 35%(7/20), 내부구획형 30%(6/20), 외부돌출형 35%(7/20)로 점차 현관에 의해 마당과 주거내부공간의 연결관계가 분리되고 있었다. 현관문의 형식은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는 마루전면에 미서기문을 달아 마당에서 현관을 통해 바로 마루로 진입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현대형 주거는 현관이 별도의 실로 배치되고 있었으나 개방화하려는 공간분화가 덜 진행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4-8〉 현관의 배치형태

현관형 주거형	내부노출형	내부구획형	외부돌출형
형태			
재래형	23		
개량형	24	4	
현대형	7	6	7

《범례》 ▲: 출입구

## 4.2 접객 · 의례중심의 공간구성

### 4.2.1 비 일상 공간사용

농촌주거에서 접객과 의례를 위한 공간은 주로 비 침실공간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비 침실은 타 지역의 농촌과 같이 인구감소에 따라 일반화되고 있었으며,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으로 농촌이 도시와 크게 격리되어 있지 않은 가까운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어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직장, 학교 등으로 인하여 자녀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농촌의 자녀방은 비 침실화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비 침실화에 대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안거리를 중심으로 침실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침실 보유 수는 재래형 주거 2.86개, 개량형 주거 2.96개, 현대형 주거 3.17개를 보유하고 있어 현대형 주거의 방 수는 다른 주거형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수는 현대형 주거 3.04명, 개량형 주거 3.32명, 재래형 주거 3.44명이고, 비 침실 수는 재래형 주거 1.12개, 개량형 주거 1.18개, 현대형 주거 1.34개로 방의 보유 수에 비해서 사용하는 침실수가 적어 비 침실화의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sup>93)</sup>

〈표 4-9〉 비 침실 현황

주거형 항목	재래형	개량형	현대형	합계
방 보유수	2.86	2.96	3.17	2.93
가족수	3.04	3.32	3.44	3.27
사용침실수	1.74	1.78	1.83	1.78
비 침실수	1.12	1.18	1.34	1.21

비 침실공간의 사용은 빈방으로 비워두고 있다가, 경조사 시 접객의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의례를 위한 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의례를 위한 방은 평소에는 젓상이나 제사용품을 보관하는 제사방<sup>94)</sup>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제사방은 근대화 이후 작은방에 취사난방겸용이 되면서 부부침실이 큰구들에서 작

93) 현재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자녀의 이동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 침실화는 더욱 증가된다.

94) 제주도 농촌주거에서는 제례용으로 사용되는 방을 일반적으로 제사방 이라 부르고 있다.

은구들로 이동하였지만 의례공간은 큰구들에서 지속되고 있었다.

제주지역 농촌주거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비 일상 공간사용 중 경조사는 타지역 보다 전통 문화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조사는 매우 중요한 행사로 집안에서 행하려는 의식이 강하고 제사인 경우에도 친척뿐 아니라 인근주민까지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협동경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례는 일반가구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의례행사로 사례조사 결과, 90.3%(65/72)로 대부분의 가구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독특한 관습은 분할제사와 돌림제사<sup>95)</sup>형식을 갖는 것으로 제례가 장남만의 행사가 아니라 자식 모두에게 분배되어 행해지는 일상가정의 의례적 행사의 성격을 갖는다. 사례대상가구의 조사결과, 각 가정 중 제례는 일년에 평균 6회 정도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사에 참석하는 켄당<sup>96)</sup>은 6촌 내지 8촌의 범위까지 제사에 참석하고 있어, 가족공동체의 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간혹 10촌 이상과 가까운 이웃까지 참석함으로써 참여인원수는 상당히 많은 경우도 있지만 현장조사결과 15~20명 내외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사는 제례횟수에 비해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으므로 공간규모의 확대의식과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개방적 구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10〉 년중 제례횟수

횟수 유형	3회미만	3-4회	5-6회	7-8회	9-10회	11회이상	합계
합계	2	24	37	4	2	3	72

이렇듯 제주도 농촌의 독특한 생활문화로 접객 및 의례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은 평소에도 비 일상 시 접객을 위한 공간을 대비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 거주자의 가족 수는 감소하는데 반하여 주거의 규모와 방수는 축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거주자의 면담<sup>97)</sup>을 통해서도 경조사를 대

95) 분할제사는 조상제사를 직계자손들이 고루 나누어서 지내는 제사이며 돌림제사는 직계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조상제사를 모시는 경우로 조선중기까지 남아 있던 윤화봉사와 유사한 형태이다.

96) 제주도는 육지부에서 흔히 사용되는 집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대신 켄당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켄당은 혈통으로 연결되는 부계친 뿐아니라 혼인으로 연결된 모든 친척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97) 사례대상 거주자의 면담결과 희망하는 주택규모는 30평 ~ 35평사이를 선호하였으며 방의 수는 4개 정도를 원하여 현재 상주 가족 수보다 큰 규모를 선호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가 접객 및 의례를 위한 여유있는 공간의 대비이고 둘째는 가족들의 사용

비하는 주의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2 접객 · 의례공간 배치

접객 · 의례를 위한 제례는 켄당이 모이는 가정의 중요한 행사로서 평소 공간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접객 · 의례공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 1) 의례공간 배치

제례공간은 큰방(안방)을 제례형 주거 95%(19/23), 개량형 주거 3.5%(1/29), 현대형 주거 25%(6/20)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방을 사용하는 경우는 개량형 주거 88.9%(24/27), 현대형 주거 67.8%(11/16)로 나타나 주로 작은방이 제례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마루에서의 제례행위는 제례형 주거 4.6%(1/22), 개량형 주거 7.4%(2/27), 현대형 주거 6.3%(1/16)로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어 마루는 주로 의례 후 식사와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11〉 제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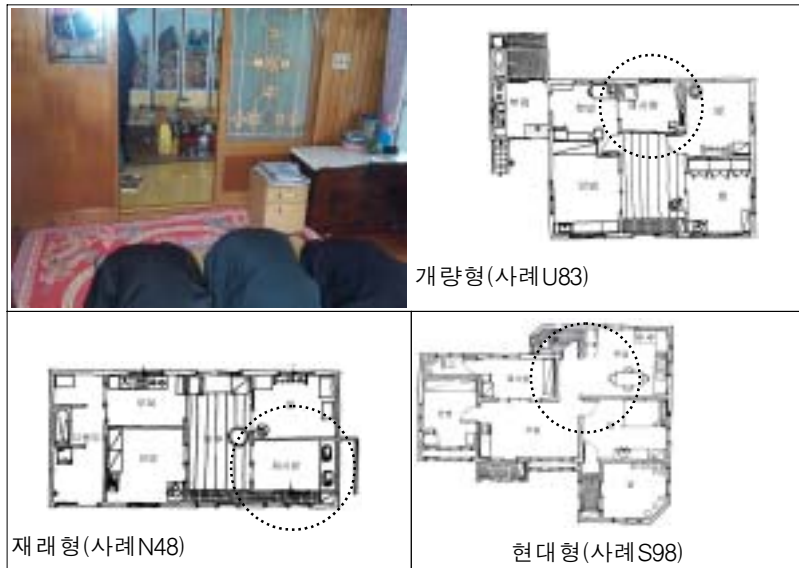
장소 주거형	큰방(안방)	마루	작은방
제례형	19	1	
개량형	1	2	24
현대형	4	1	11
계	24	4	35

제사방의 배치에서 제례형 주거는 전통적으로 안방으로 사용하던 부엌 건너편 전면에 위치한 방인 큰방을 주로 제사방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개량형 주거와 현대형 주거는 마루 후면 작은방을 사용하는 경우와 안방의 건너편 작은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제사방은 평소 자녀가 사용하거나 자녀의 출타 등으로 빈방인 경우 의례에 대비한 공간적 성격을 나타낸다.

이 공간은 마루와 연계되어 개방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제사방 전면의 마루는 안방이나 다른방과 연결하여 접객 및 식사를 위한 융통적 공간으로 사용되며, 그 앞의 마당과도 연결됨으로써 의례시 공간의 확장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었다.

에 대한 공간의 대비로 나타났다.





[그림 4-12] 제사방 배치사례

제사방의 형식은 미서기문 2짝이나 4짝을 기본으로 하며 여닫이문은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미서기문은 양쪽을 열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고 있었다. 제사방은 평소에 미혼자녀가 기거하거나 그냥 비워두고 있는데 이것은 성관계를 갖는 부부가 사용하는 방은 제사방으로 쓰기에는 부정하다고 믿기 때문이다.<sup>98)</sup>

의례 대기장소는 남녀의 구분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의례의 절차는 남성중심으로 일어나고, 의례준비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접객 시에도 남성인 경우는 안방이나 마루에서 머무르며 여성, 어린이인 경우는 부엌이나 후면의 작은방에서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의례행사시에는 전통적인 남녀공간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의례 후 식사장소는 참여 인원수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부분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제사방 전면의 마루와 안방을 사용하고 있으며, 식사시에는 좌식의 식사행위가 나타나 공간영역의 구분이 없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방의 출입문 형태가 미서기문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의례 참석인원수가 많은 경우 방의 출입문을 제거하여 공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밖거리에 생활공간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밖거리 공간도 접객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이용되고 있었다.

제기를 두는 장소는 부엌과 마루, 작은방으로 나타났는데, 전통적으로 찻방이

98) ibid., pp. 56~57.

나 상방의 후면에 장방을 설치하여 제기를 보관하였으나, 현재는 부엌에 두는 경우가 많았고 재래형 주거인 경우는 부엌이나 챗방의 수납장에 보관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그러나 제사방으로 사용되는 작은방에 제기, 병풍, 젓상, 젓자리 등 제사용품을 보관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개량형 주거에서는 제기를 수납장에 두어 마루에 배치하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주로 부엌이 협소하거나 제사의 횟수가 잦은 가구인 경우에 나타나는 사례였다.

## 2) 접객 및 가사공간배치

접객을 위한 융통적 공간의 확보로서 거실은 주거의 중심적 생활공간으로 사용되며 응접실, 거실보다는 마루 또는 거실마루라는 실명으로 호칭되고 있어 가족의 단란보다는 통로, 접객 및 경조사 시 사용되는 공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주거공간이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비 일상시의 공간사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요인에 의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오히려 주거 내에서 가족의 단란행위는 감소하는 대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에 의해 접객, 의례행위는 많아지고 있는 주생활의 경향에 공간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접객을 위한 일반적 공간으로 안방과 마루가 사용되는데, 이는 아직까지 안방의 개실화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안방과 거실이 상호연계성을 갖는 것과 관련이 된다. 이것은 안방의 출입문 형식이 여닫이문보다 미서기문으로 유지되는 것과 마루 공간사용에서 마루의 응접공간과 생활공간의 분리사례가 나타났다. 마루사용은 대외적인 접객과 가족 공간사용에 차별화를 두는 것으로 전면공간은 통로와 가족의 공간, 후면은 접대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루에서 공적, 사적행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한 공간에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4-13] 가변형 문과 마루후면 접객공간(사례G73)

또한 경조사를 위한 공간대비 중 가사공간의 확보의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엌은 일상조리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 규모를 크게 하여 경조사를 대비하

는 것으로 재래형 주거, 개량형 주거에서는 증·개축을 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으며, 신축되는 주택에서도 규모가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부엌과 연계하여 경조사 시 가사보조공간으로서 다용도실이 배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었다.

다용도실은 음식의 다듬기, 씻기 등 입식부엌에서 할 수 없는 큰 가사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전설비를 제외한 특별한 시설은 배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바닥은 타일 등으로 마감하여 물을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있는 단순한 공간으로 계획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다용도실의 기능은 가사용품의 수납기능을 들 수 있는데 일상가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가사용품을 부엌에 보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용도실 상부에 선반을 설치하여 보관하거나 수납장을 배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출입방식은 대부분 마당 방향으로 개방되어 있어 개방과 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서기문으로 마당에서 직접 다용도실로 출입하고 다시 부엌으로 연결되는 내외 개방적 형태로 마당으로 접객공간이 확장될 때 원활한 공간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듯 제주지역 농촌주거에서의 접객·의례의 의미는 중요하며 경조사를 큰 규모로 치르려는 의식이 아직까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의식이 다용도실의 필요성을 높이게 된 요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14] 재래형 다용도실  
(사례M67)



[그림 4-15] 개량형 다용도실  
(사례G85)



[그림 4-16] 현대형 다용도실  
(사례U91)



[그림 4-17] 다용도실의 배치  
(사례U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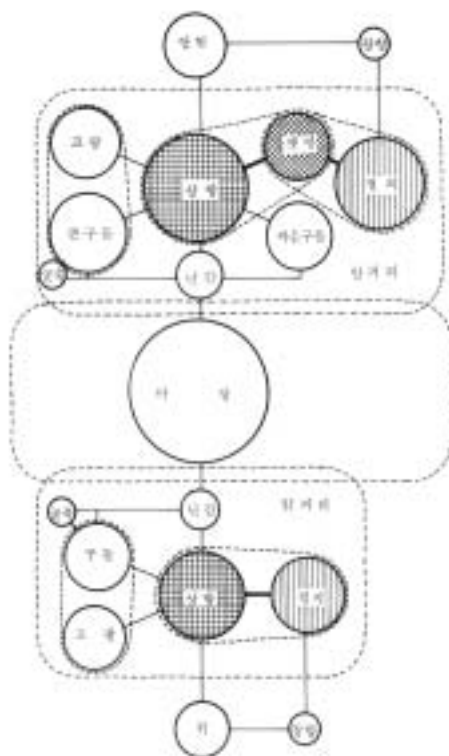
### 4.3 세대분리 가족중심의 공간구성

제주도에 나타나는 주동의 사용 중에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한 울타리 내에 각각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개별생활을 하는 관습이 있다.<sup>99)</sup>

이 세대분리 생활관습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선행 연구에서 조사되고 있다.<sup>100)</sup> 본 절에서는 주동사용의 특징 측면에서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의 공간 사용실태와 주거형태별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1)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주동별 거주형태와 2)주동별 공간구성 및 주생활관계를 분석하였다.

#### 4.3.1 거주형태

표 4-12에서와 같이 주동별 세대간 거주형태에서 재래형 주거는 부모세대의 안거리 거주가 60%(9/15), 밖거리 거주는 40%(6/15)이며, 개량형 주거는 안거리 거주가 31.8%(7/22), 밖거리 거주는 63.6%(14/22)이며, 현대형 주거는 안거리 거주가 22.2%(2/9), 밖거리 거주가 77.8%(7/9)로 나타났다. 재래형



[그림 4-18] 안·밖거리 주거의 공간구조

99) 쓰하(律波:1990)는 한국 본토에서 직계 가족중심인데 반해 제주도에서는 부부 가족중심이며 본토에서는 同食同財임에 대해 제주도는 장남 부부와 부모세대가 한 대지 내에 살고 있어도 주거동을 따로 나누며 식사도 따로하고 있는 이른바 부모와 자식 세대간의 경제적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본토와 크게 다른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광희석, 이경락, '분가 관습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세대간의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1호(통권 147호), 2001. 1. 재인용.

100) 최재석(1979)과 김혜숙(1999)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김혜숙의 연구에서는 제주전역을 대상으로 한 분가형태의 조사에서 4가지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데 다른마을로 분가하는 경우 36.4%, 동일마을로 분가하는 경우 31.6%, 한집안에서 생활하는 경우 18.1%, 안·밖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 13.9%로 나타나 제주도의 세대간 분리의 주생활 관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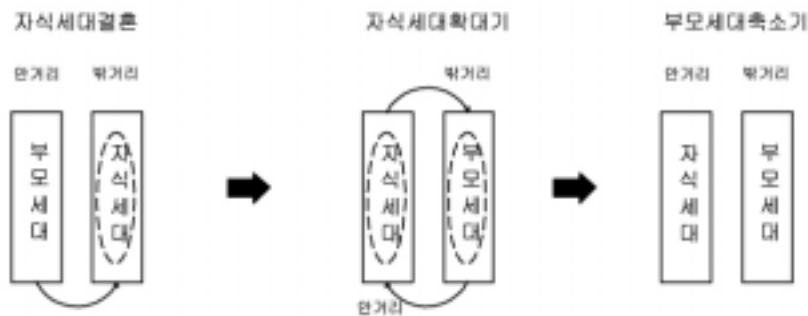
주거를 제외한 개량형 주거와 현대형 주거에서는 부모세대가 밖거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부모세대가 축소기 가족이고 자녀가족이 확대기 가족으로 가족주기와의 관계에 따라 거주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래형주거는 부부나 1인 가족인 경우에도 부모세대의 안거리 거주율이 높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식 결혼에 의한 한 울타리내 분가이거나 출가하여 분리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본가로 입주한 자식세대인 경우가 많아 전통적인 공간사용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개량형 주거와 현대형 주거는 부모세대가 1인 가족이거나 노부부로 축소기의 가족형태로 안거리에 거주하다 밖거리로 거주위치를 교체한 경우로 파악되었다.

〈표 4-12〉 주동별 세대간 거주형태

주거 형	사례	안거리			밖거리			주거 형	사례	안거리			밖거리		
		궤 형	궤 수	궤 세	궤 형	궤 수	궤 세			궤 형	궤 수	궤 세	궤 형	궤 수	궤 세
재래형	G45	sCm	3		궤	1	●	개량형	O81	sC	2	●	궤	3	
	N48	sC	2	●	sCm	3			M83	sC	2		S	1	●
	M49	S	1	●	sC	2			M83-1	궤	5		S	1	●
	SA51	궤	4		S	1	●		M83-2	sC	2		S	1	●
	N56	sS	2	●	궤	4			U83	sC	2		S	1	●
	M60	S	1	●	sC	2			M83-3	sC	4		sC	2	●
	SA62	S	1	●	sC	3			O83	궤	3		S	1	●
	O62	궤	3	●	sC	3			S83	sC	2	●	궤	5	
	K62	sC	2		S	1	●		M84	sC	2		S	1	●
	SA64	sC	2		sC	2	●		N84	궤	6		S	1	●
	G65	궤	3	●	sC	4			M85	궤	5		S	1	●
	K65	S	3		궤	1	●	현대형	O86	궤	4		S	1	●
	M67	sC	2	●	궤	4			U87	궤	5		S	1	●
	O68	sC	2	●	궤	3			U88	궤	6	●	sC	2	
개량형	K70	sS	2		S	1	●		G90	궤	3		sC	2	●
	O71	궤	4		S	1	●		SA92	궤	3		sC	2	●
	G73	sC	4		sC	2	●		O93	궤	4		sC	2	●
	M73	S	1	●	궤	3			M95	궤	4	●	sC	2	
	O74	S	1	●	궤	3			K96	궤	2		S	1	●
	SA77	궤	2		sC	4	●		S98	궤	3		sC	2	●
	O77	sC	2		S	1	●								
	M78	sC	7		S	1	●								
	S78	sC	2	●	궤	4									
	O80	sC	2	●	궤	3									
	U81	궤	3	●	궤	4									

《범례》 ●:부모세대 거주위치, 가족형: p. 59. 도표참조

이상과 같이 부모, 자식세대간 거주위치는 안거리에 노부모세대가 이용하고 밖거리에 자식세대가 사용하는 경우와 안거리에 자식세대가 사용하고 밖거리에 부모세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사례분석 결과,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주동의 어디에 거주하는가에 대한 관습적인 규범은 부모세대가 안거리이고 자식세대가 밖거리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 가족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시되어 거주형태는 세대별 가족 수에 따라 거주장소가 정해지는 것으로 가계승계의 양도에 따른 이동이 아니었다.<sup>101)</sup> 그림 4-19에서와 같이 어린 살림이었던 밖거리의 자식세대가 가족확대기에 이르러 방의 숫자가 적어 생활이 곤란해지면 대개 축소기에 처한 부모세대가 밖거리로 옮기고 찬살림이 된 자식세대가 안거리에 거주하게 된다. 이렇듯 세대간 거주형태는 주거형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근대화에 다른 몇 가지 변화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수에 의한 거주형태는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4-19] 세대간 거주위치 변화

#### 4.3.2 주동별 공간구성과 생활특성

다음으로 주동의 공간구성과 생활특성을 파악하였다. 우선 분류기준을 선정하기 위해 3대 가족형 주거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기존연구의 분석 기준은 동일 평면의 1)거주유무에 따른 주호 2)출입문을 공용하는 여부의 출입과 접근 3)수평, 수직배치의 방향 4)노인영역구성 5)노인영역접속 6)거실, 식당, 부엌의 양 세대 공용여부의 노인 세대영역의 6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sup>102)</sup>

101) 최재권, 이현호, '세대간 생활문화를 통해 본 제주도 안·밖거리주거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4호, 2000. 9, p.131.

102) 이연숙, '삼대가족 아파트의 단위주거 유형화', 『한국형 노인주택연구』, 1993, pp. 27~33.

본 연구는 한 울타리 안에 인거하는 거주형태로서 생활의 분리에 관점을 맞추어, 주동의 공간구성은 각 주동별 부엌과 침실의 유무가 식·침분리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거실, 현관, 창고 등 나머지 공간들은 하위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분류의 기준은 침실, 부엌, 거실의 공간분리의 정도로 설정하였으며,<sup>103)</sup> 노부모의 건강 정도는 생활의 공동과 분리를 나타내는 주생활의 영향요소로서 2차적인 분류기준으로 설정하였다.<sup>104)</sup> 이상과 같은 공간구성과 생활분리의 기준을 통하여 사례분석을 한 결과, 표 4-15에서와 같이 침실·부엌·마루분리형(A형), 침실·부엌분리형(B형), 침실분리형(C형), 침실·마루분리형(D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침실·부엌·마루분리형은 기본적으로 취사공간과 취침공간이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안거리, 밖거리에 각각 마루가 배치되어 채마다 완전히 독립된 생활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평면구성상 생활영역에 대한 독립성이 크기 때문에 세대별 개별성이 강한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었다.

침실·부엌분리형에서 안거리는 부엌, 마루, 침실 등 완전한 살림채를 형성하나 밖거리는 하나의 간이부엌과 침실이 있는 최소 공간형태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일부공간은 안거리에서 함께 하는 경우가 있으나 취사와 취침은 명확히 구분된다. 이 형태는 최소한의 생활공간구성으로 밖거리의 창고를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침실분리형은 세대간 취사를 안거리에서 공동으로 하는 형태로서, 안거리는 부엌, 마루, 침실 등 독립된 살림채를 형성하고 있으나, 밖거리에는 단지 취침공간만 계획되어 있었다.

침실·마루분리형은 안거리, 밖거리 모두에서 마루, 침실 등 생활공간이 확보된 살림채를 형성하고 있으나, 밖거리에 취사공간이 없으므로 식사는 공동으로 이루어진다.

주거형태별 분포에서 재래형 주거는 A-1형 25%(3/12), A-2형 50%(6/12)로 나타났다. B-1형은 25%(3/12), B-2형은 16.7%(2/12)이며 D형은 8.3%(1/12)로 나타났다.

103) 제주도 가족의 유형은 연구자마다 가족을 보는 단위기준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생활하면서 취사를 분리할 때 거주단위로 보면 1가족, 경제중심으로 보면 2가족이 된다. 이와 같은 제주도 가족의 특성을 고려 이광규는 주거와 경제의 두 조건에서 경제생활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경제단위로 가족을 규정하였다. 최재석은 가족의 개념을 가계를 공동으로 하는 친족집단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정의는 제주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며 다만 육지와 다르게 제주도는 경제공동가운데 취사분리여부가 가족생활 확인의 기준이 될 수 있다.

104) 대한주택공사, 『3대가족형 공동주택 개발연구』, 1987, pp. 136~137.

다. 개량형 주거는 A-1형 9.5%(2/21), A-2형 38.1%(8/21)로 나타났고 B-2형은 42.9%(9/21)이며 C형이 4.8%(1/21) 나타났다. 현대형 주거는 A-2형 63.6%(7/11)로 나타났고 B-2형은 18.2%(2/11)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해 A형과 B형의 지속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특히 A-2형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으나 C형과 D형은 분포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4-13〉 배치형태와 생활분리

기호	배치형태	공간구성	생활 분리	주거형			계
				재래형	개량형	현대형	
A-1		침실·부엌·마루 분리형	공동	3	2		5
A-2			분리	6	9	7	22
B-1		침실·부엌분리형	공동	3			3
B-2			분리	2	9	2	13
C		침실분리형	공동		1		1
D		침실·마루분리형	공동	1			1
계				12	21	11	45

《범례》 K:부엌, L:거실, R:침실

주동별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주생활 관계는 주거형에 따른 커다란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A-2형과 B-2형은 경조사를 제외한 모든 생활의 분리의 개념을 가지므로 세대간의 생활유형은 개별형태를 나타낸다. 그러나 평소 어린자녀의 왕래와 반찬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생일, 제사, 명절 등은 공동식사가 행해졌다. 재래형 주거를 제외한 개량형 주거와 현대형 주거는 안거리에 자식세대가 거주하고 밖거리는 축소기의 부모세대나 결손부모로 모(母)일방만이 생존한 경우로 대개 노동력이 있는 한 자식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 취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A-1, B-1형은 부모세대가 연로하여 취침은 분리되었으나 취사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대개 건강이 나쁜 노모(老母)나 노부(老父)만 생존한 경우 공동취사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C형, D형은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형태로 부모자식세대가 생활은 분리되어



있지만 공동식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따라서 주생활 형태는 가족 수, 부모 세대의 결혼여부, 부모세대의 건강에 따라 변형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세대간 주동의 공간구성 및 주생활관계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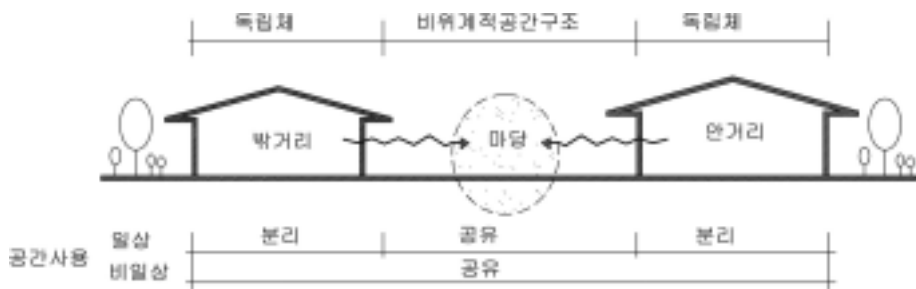
첫째, A형과 B형은 모든 주거형에서 일반화된 형태로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기존의 밝거리 공간은 여유 공간화 하였다가 가족의 변화에 따라 창고 등 부속사로 사용하거나 생활공간으로 용도를 변화시켜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사례 S98, 사례 SA92의 현대형 주거와 같이 최근에 건축되어진 주거에서도 안거리와 밝거리를 모두 신축하여 안거리에는 자식세대가 거주하고 밝거리는 축소기의 부모세대가 거주하는 별개의 생활을 유지하는 전통적 관습이 지속되고 있었다.

넷째, 사례G90과 같이 세대간 주동배치는 수평적 배치에서 1, 2층에 생활공간을 각각 배치하는 수직적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으며 거주형태는 외부계단을 통한 생활의 분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다섯째, 공간구조는 그림 4-20에서와 같이 공동생활공간인 마당을 중심으로 평탄한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여 배치되어 바닥의 고저차가 없는 수평적 형태를 갖는다. 또한 마당을 공유하면서 안거리, 밝거리의 주거가 각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대간의 생활을 수용하는 밀접성을 갖고 배치되어 있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생활영역을 분리하는 것은 최소한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도록 하는 개별적인 공간구성인 동시에 세대 상호간의 교류가 가능한 거리라고 볼 수 없었으며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 서열이나 위계적 질서를 나타내는 공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sup>10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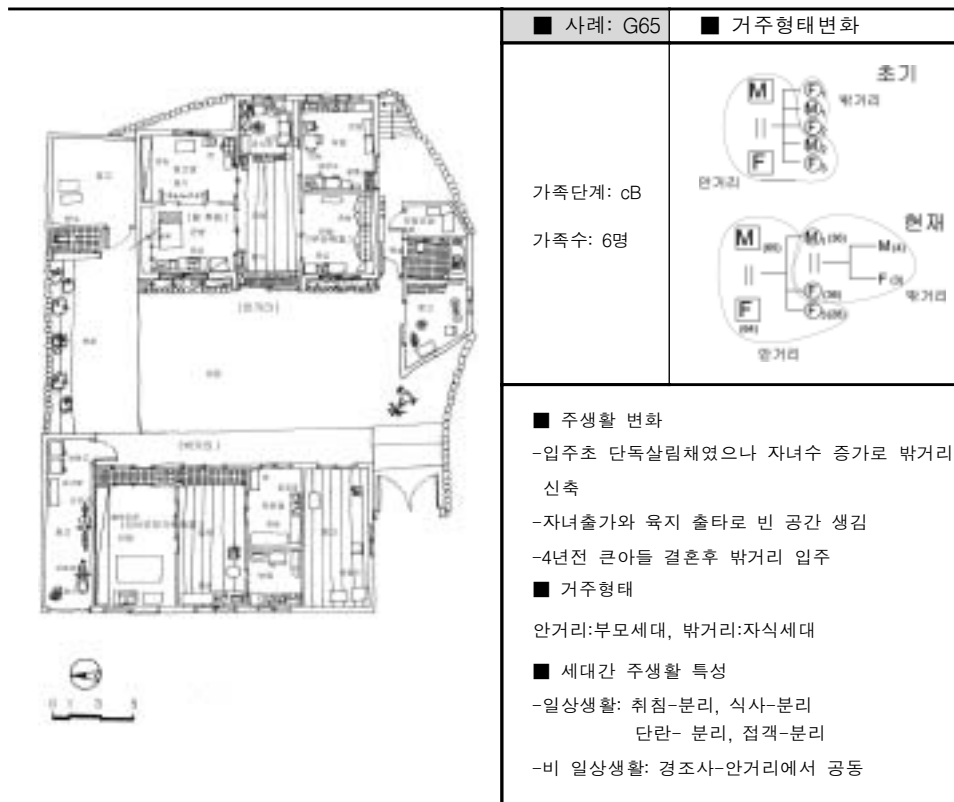


[그림 4-20] 세대간 주동의 공간구성 및 주생활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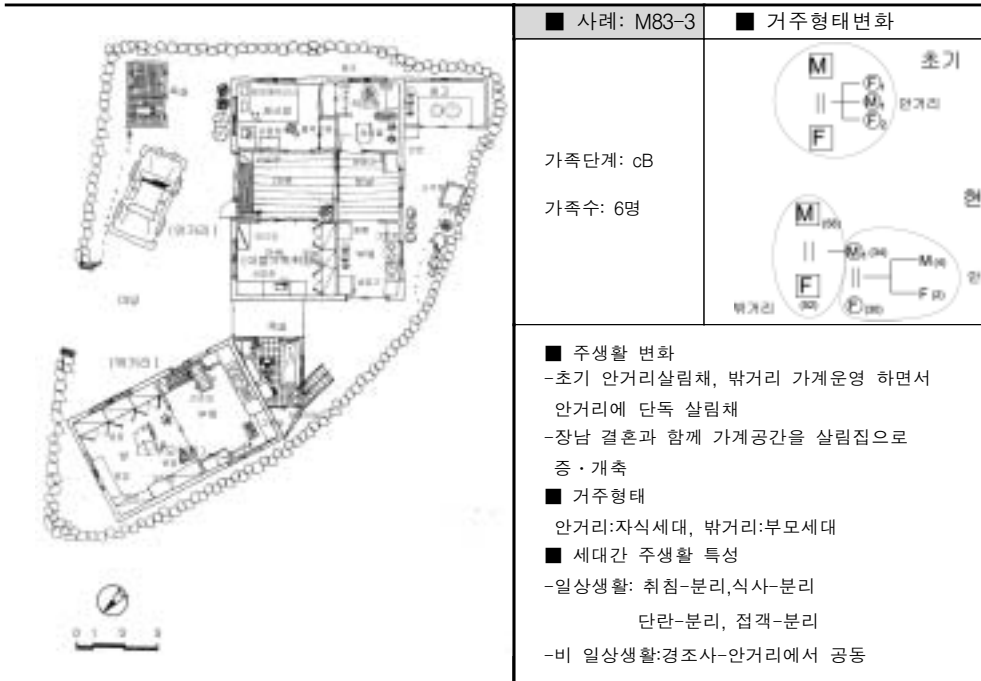
105) 최재권, 이현호, op. cit., pp. 134~136.

여섯째, 주생활 측면에서 부모세대가 노동력이 있는 한 자식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대간 반찬이나 음식의 교류는 이루어지고 생일이나 명절에 공동식사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따라서 세대간 생활은 일상 생활의 경우 대부분 각 세대단위별로 이루어지지만 공적인 행사 등 비 일상 생활의 경우에는 안거리와 밖거리의 구분이 없어진다. 특히 집안의 접객과 제사 등 경조사 시에 안거리는 집안을 대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용하고 있어 한 울타리 내에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생활구분을 통하여 공간사용의 분리와 공유의 유기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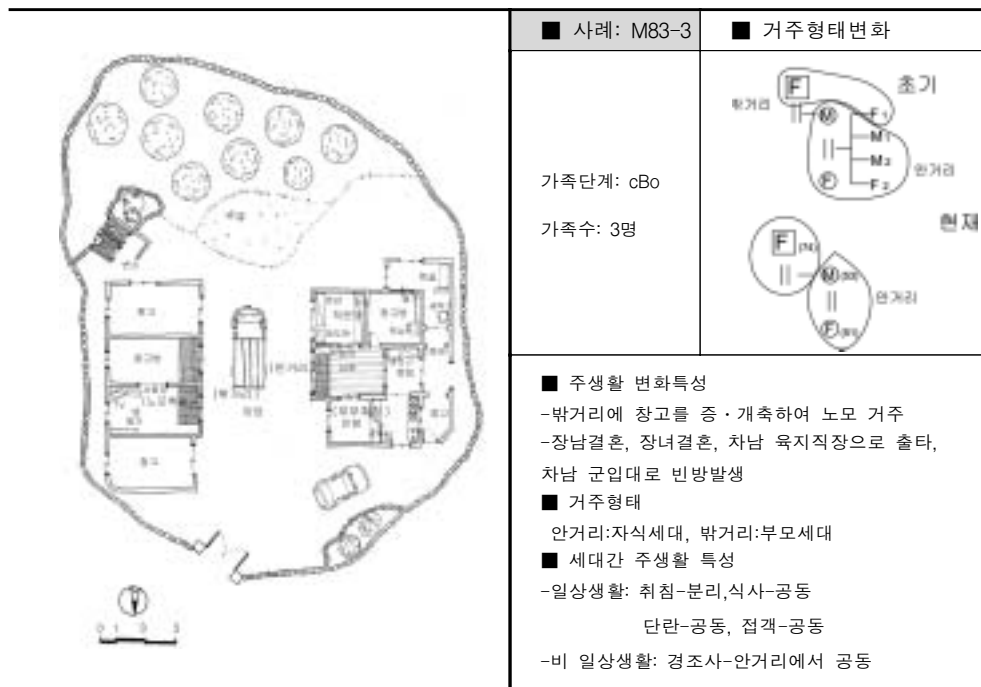
다음으로 사례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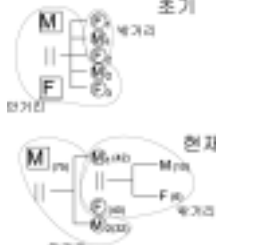
[그림 4-21] 침실 · 부엌 · 마루분리형 (A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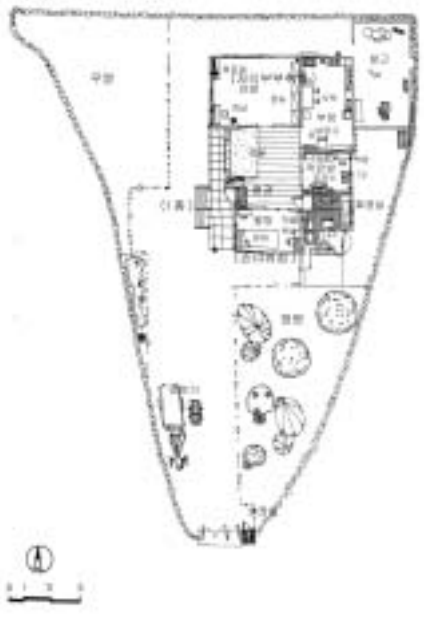

[그림 4-22] 침실·부엌분리형 (B형)



[그림 4-23] 침실분리형(C형)

	<p>■ 사례: N56</p>	<p>■ 거주형태변화</p>
	<p>가족단계: cB 가족수: 6명</p>	
<p>■ 주생활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 입주시 단독살림채 였으나, 자녀수의 증가로 밖거리 신축</li> <li>-자녀출가와 직장관계로 출타 빈공간 발생</li> <li>-10년전 큰아들 결혼과 함께 밖거리 입주</li> </ul> <p>■ 거주형태</p> <p>안거리:부모세대, 밖거리:자식세대</p> <p>■ 세대간 주생활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생활: 취침-분리, 식사-공동</li> <li>단란-분리, 접객-분리</li> <li>-비 일상생활: 경조사-안거리에서 공동</li> </ul>		

[그림 4-24] 침실 · 마루분리형(D형)

	<p>■ 사례: G90</p>	<p>■ 거주형태변화</p>
	<p>가족단계: cB 가족수: 6명</p>	
<p>■ 주생활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90년 입주초 부모세대가 1층 거주, 자식세대 2층 거주하여 1, 2층으로 외부계단을 통한 별거별식의 생활형유지</li> <li>-경제생활도 부모세대는 감귤과밭농사, 자식세대는 양돈으로 별개체계</li> <li>-자식세대의 자녀성장과 부모세대의 축소기로 1995년 거주위치 변경</li> </ul> <p>■ 거주형태</p> <p>1층:자식세대, 2층:부모세대</p> <p>■ 세대간 주생활 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생활: 취침-분리, 식사-분리</li> <li>단란-분리, 접객-분리</li> <li>-비 일상생활: 경조사-1층에서 공동</li> </ul>		

[그림 4-25] 침실 · 부엌 · 마루분리형 (A형)의 1, 2층분리 사례

## 4.4 소결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은 좌식지향의 개방적 공간구성, 접객과 의례중심의 공간구성, 세대별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사례분석 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좌식지향의 개방적 공간구성으로 제주지역 민가의 전통적 공간구성은 3칸형을 기본으로 중앙에 마루가 전후 개방된 배치가 되고 각 실이 겹겹으로 측면에 연결하는 상호개방된 형태를 띤다. 평면형태는 다습한 해양성기후를 견디기 위한 구조와 마루를 중심으로 각 실의 개방성을 부여하여 협소한 생활공간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과 공간의 적응 메카니즘의 한 형태이다.

이러한 마루는 근대화 이후 마루 후면의 공간이 분화되어 폐쇄적인 거실형 공간이 확보되는 형태로 변화되지만 후면 작은방에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안방의 출입문 형태도 미서기문을 사용하여 개실화가 덜된 공간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공간배치에서도 개방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화장실이 내·외부에 배치되어 외부와 개방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현관도 외부지향의 개방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근대화에 따른 취사난방분리는 농촌주거공간의 자유로운 구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 현대형에서는 각 실이 기능분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까지 식사, 단란, 접객의 생활행위가 계절에 따라 거실과 안방에서 중복되는 공간분화가 덜 이루어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생활상에 있어서 안방중심의 주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생활재의 이용에서 부엌 가사작업공간의 입식화가 빠르게 일어났으며 거실과 안방의 생활양식은 입식보다는 공간의 융통적 사용이 가능한 좌식지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서구적 근대화의 측면에서 공간의 기능분화 등 물리적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생활에서도 서구화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주생활에 있어서는 좌식지향의 생활관습에 따른 공간의 전용성(轉用性), 가변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역적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융통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접객과 의례 중심의 공간구성으로 제주도의 풍습 중에 독특한 생활관습은 조상신을 숭배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조상은 단순히 먼저 살다간 자가 아니라 자손의 길흉화복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절대자로서 신격화된다. 제주도의 조상제사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존하고자 하는 동기가 핵심을 이루

고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과 구별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용수를 중심으로 집성마을 형성이 되고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의식이 발달하여 제사 등 경조사행사가 집안행사뿐 아니라 지역공동체까지 참석하는 관습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접객 및 의례생활 중시의 경향은 농촌 거주자의 가족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신축되는 주거의 규모와 방수는 축소되지 않아 경조사를 대비하는 주의식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엌은 일상조리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규모가 크며 가사보조공간인 다용도공간을 설치하여 경조사 시 가사작업과 가사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었다.

특히 작은방 중 하나는 제사방이라 호칭하는 비 일상 의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제사방은 마루와 연계하여 미서기문을 설치하고 일상 시에 자녀의 방이나 빈방으로 있지만 비 일상 시에는 의례공간으로 사용된다. 공간사용 면에서 제사방은 켓상을 배치하는 의례공간이고 마루는 접객 및 식사공간이다.

접객과 의례의 측면에서 각 실의 공간구성은 가족의 일상적 생활측면의 고려와 함께 일상 시 접객 및 경조사 시를 대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주거공간이 일상 공간사용 뿐 아니라 비 일상 공간사용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른 농촌 특성상 오히려 주거 내에서 가족의 단란행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 요인에 의해 의례의 중요성에 따라 가족생활을 위한 주거공간뿐 아니라 경조사를 대비한 주거공간구성의 중요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비 일상 생활에 공간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제주도 농촌에서는 접객과 의례를 위한 공간의 대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위해 대비공간의 확보, 공간의 융통적 사용, 의례준비를 위한 부엌 및 다용도실의 가사공간확보 등이 중요한 생활공간요소로서 나타났다.

셋째, 세대분리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으로 제주도 가족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강한 독립생활 의지에 따른 철저한 분가주의로 부부가족 중심의 형태를 취하는데 있다. 이것은 육지와 구별되는 특유의 핵가족적 형태의 독립형 가족제도로서, 장남도 결혼을 하면 분가하는 형태로 자식이 부모와 한 울타리 내에서 분가할 경우에 바깥채에 별거하면서 부모와 별개의 독립생활을 하게된다.

이러한 안·밖거리 주거의 세대분리는 자식이 한 울타리 분가 시 별도의 밖거리에 생활공간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부속사에 생활공간을 증·개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배치형식은 마당을 중심으로 한 대칭적 별동배치를 들 수 있다. 즉, 각 채로 출입하기 위한 현관과 취침, 취사를 위한 생활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세대별 생활분리가 이루어진다. 거주형태는 세대별 가족 수에 따라 거주위치가 결정되는데 자식은 결혼과 함께 밖거리에 생활공간을 분리하여 거주하지만 자식세대가족이 확대기가 되어 가족 수가 증가하고 안거리의 부모세대가족이 축소기가 되면 자식세대가 안거리에 거주하고 부모세대가 밖거리로 거주위치를 이동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세대간 공간구조는 마당을 공유하면서 안거리, 밖거리의 주거가 각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배치되고 있었으며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 서열이나 위계적 질서를 나타내는 공간구성은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주생활 측면에서 부모세대는 노동력이 있는 한 자식에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취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대간 반찬이나 음식의 교류는 이루어지고 생일이나 명절에 공동식사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특히 집안의 접객·의례 등 경조사 시에 안거리와 밖거리의 구분이 없어지는 공간사용의 분리와 공유의 유기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

생활문화적 특성	주생활	요인	주공간
좌식지향의 개방적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성</li> <li>· 가변성</li> <li>· 융통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습한 해양성 기후</li> <li>· 주거의 온돌,마루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루의 전후개방</li> <li>· 마루와 방의 미서기문 설치</li> <li>· 실 배치의 외부지향</li> </ul>
접객·의례중심의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객중시</li> <li>· 제사중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체의식</li> <li>· 조상신 숭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사방의 배치 및 미서기문</li> <li>· 거실과 안방의 개방성</li> <li>· 부엌의 확대</li> <li>· 다용도실(물부엌)배치</li> </ul>
세대분리 가족중심의 공간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 및 취침 분리</li> <li>· 가족수에 따른 거주위치 교체</li> <li>· 일상생활분리/비 일상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저한 분가주의</li> <li>· 부부중심의 핵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당중심 별동배치</li> <li>· 동별 침실배치</li> <li>· 동별 부엌배치</li> </ul>

## 제5장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변화

본 장에서는 근대화에 따른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 측면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공시적 측면으로 주거공간에 대한 주생활의 대응관계 속에서 증·개축에 의한 주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근대화에 따른 농촌주거공간을 시 계열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활문화의 지속성과 변화성을 파악하였다.

### 5.1 증·개축에 의한 농촌주거공간의 변화

증·개축에 의한 주거공간의 변화는 주생활양식이 변화되어 공간과의 부적응을 일으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증·개축에 의한 주거공간의 변화는 공간의 조절과 적응 메카니즘으로 거주자의 생활문화의 변화과정을 나타낸다. 본 절에서는 증·개축에 의한 주거변화의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1)주동배치의 변화, 2)주거공간의 용도별 변화, 3)공간구성 단계별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5.1.1 배치의 변화

증·개축에 의한 배치의 변화는 표 5-1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채(원래 있던 건물)에 덧붙여 증축하는 것과 별채(원래 없던 건물)로 건물을 증축하는 방법, 그리고 용도변경의 경우이다. 먼저, 본 채에 덧붙여 증축하는 것은 본 채의 내부 기능이 확대되어 표출되는 경우이고 별채로 증축되는 경우는 본 채에 없었던 공간이 분리되어 배치되는 경우이다. 또한 생활의 변화와 영농방식의 변화로 용도 변경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1) 본 채에 붙여서 증축



















본 채에 붙여서 증축하는 경우는 내부공간의 확대와 단위 공간의 접합으로 나누어지는데, 내부공간의 확대는 공간의 협소로 기존의 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는 경우이며, 단위공간의 접합은 본 채와 일체화하여 증축하는 방법이다.


증축하는 방법은 주동과 대지경계선 사이공간을 연결하여 통합하는 방법으로 처마를 연장하여 담과 연결하거나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공간을 연결하여 그 사이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다. 증·개축에 따른 공간의 변화는 근대적 설비를 도입하여 보일러실, 가사보조공간인 다용도실, 영농변화에 따른 농기계 창고나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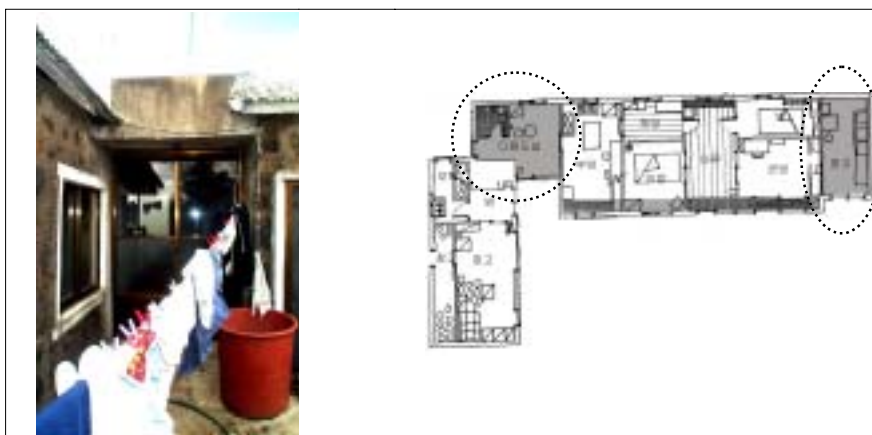
용 창고 등이 배치되고 있었다.

〈표 5-1〉 배치의 변화

변화방법	원형	변형	특징
본 채에 붙어서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기능이 확대되어 외부로 표출</li> <li>· 주동에 실이 접합하는 경우</li> <li>· 주동과 부속채를 연결하는 경우</li> </ul>
			
			
			
별채로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공간면적의 제약으로 외부로 분리하는 경우</li> <li>· 안거림에서 분리된 생활 공간</li> <li>· 농업용에 변화에 의한 영농공간</li> </ul>
			
			
			
용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방식의 변화</li> <li>· 가족주기의 변화</li> </ul>

《범례》 증축부위: 

사례K70은 내부공간의 협소로 안방이 전면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난간전면에 창호가 배치되어 현관 홀에서 마루와 방으로 직접 진입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주거측면에 농업용 창고를 접합하였으며, 부엌과 연계하여 밖거리와의 사이공간을 연결하였다. 이 사이공간은 다용도실 및 욕실을 배치하여 일상과 비 일상 가사보조 및 위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 5-1〕 내부공간 확대와 접합의 사례(사례K70)

## 2) 별채로 증축

별채로 증축하는 경우는 생활관련 별채 증축과 영농관련 별채 증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활관련 별채 증축은 안거리의 협소로 그 기능이 안거리와 연계성을 가지고 증축되는 것으로 다용도실, 수납창고 등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족수의 증가나 자식세대와 부모세대의 분가로 인해 밖거리에 생활공간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례G82는 생활관련 별채로 증축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하여 가사보조공간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외부공간이었던 수도시설을 내부화된 다용도공간으로 증·개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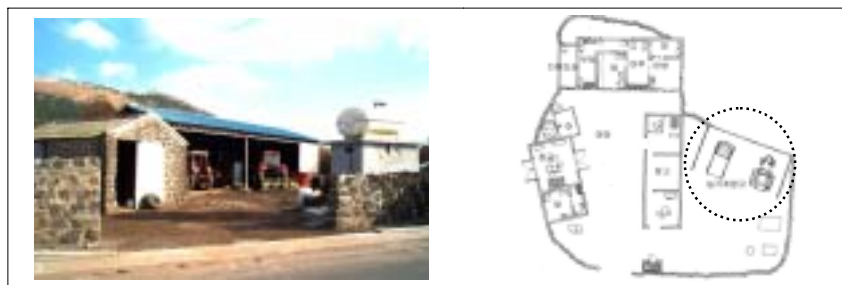
[그림 5-2] 생활공간의 증축(사례G82)

사례M73은 제주도 농촌주거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적 공간사용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사례는 분가하였던 자식세대가 재 입주하여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한 울타리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부모세대가 안거리에 거주하고 자식세대가 밖거리에 생활공간을 별채로 증축하여 생활에 필요한 침실과 취사를 위한 부엌을 만들어 세대간 각각 개별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림 5-3] 생활공간의 주동 증축(사례M73)

영농관련 별채 증축은 농업형태의 변화로 영농방식이 기계화됨에 따라 농기계 창고를 배치하거나 농기구나 농산물보관을 위한 창고를 증·개축하고 있는 경우로, 사례K65는 영농방식의 변화로 영농시설은 점차 농지로 이전되고 있으나, 농기계창고는 관리상의 문제로 별채로 증축하여 주거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림 5-4] 농기계창고의 증축(사례K65)

### 3) 용도변경

주거배치에서는 사용상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로 기능의 소멸과 새로운 기능의 부가로 용도변경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거형 별로 살펴보면, 재래형 주거는 대체적으로 안거리 이외에 밖거리가 창고, 쇠막, 생활공간으로 나타났으나, 생활공간이 가족수의 축소로 농기구창고나 농산물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쇠막 등은 영농방식의 변화로 생활재 보관이나 농업용 창고로 용도변경 되고 있었다. 개량형 주거는 밖거리가 창고나 생활공간으로 변화되어 안·밖거리에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 분리하여 거주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현대형 주거는 기존의 대지에 안거리를 신축한 경우가 대다수로 기존에 있던 밖거리를 살림공간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영농방식과 생활방식의 변화로 점차 별동이 소멸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밖거리와 부속사의 용도변경은 가족주기에 의한 변화로 자녀성장에 따라 방수가 부족할 경우에 창고 용도의 밖거리 일부를 증·개축하여 방으로 만들거나 예전에 가족의 생활공간이었으나 가족 수가 축소됨에 따라 생활공간이 창고화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부모·자식세대와 한 울타리 내에서 생활이 이루어질 경우 안거리 이외에 밖거리나 창고를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개별적 생활하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영농방식의 변화는 쇠막 등이 농업용 창고나 생활재 보관창고로 농산물, 생활용품, 농기계보관등 다용도 창고로 변화되었다.



〔그림 5-5〕 밖거리 창고를 생활공간으로 용도변경(사례G73)



〔그림 5-6〕밖거리생활공간이  
창고로 용도변경(사례O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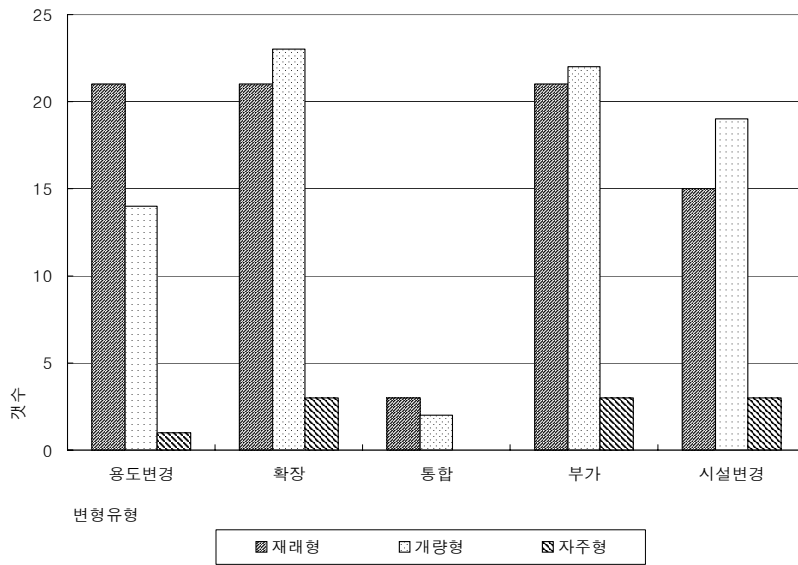
〔그림 5-7〕쇠막이 창고로  
용도변경(사례N48)

### 5.1.2 주거공간의 용도별 변화

사례분석 결과, 주거변화는 재래형 주거 100%(23/23), 개량형 주거 89.7%(26/29), 현대형 주거 15%(3/20)로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에서 분포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공간변화가 매우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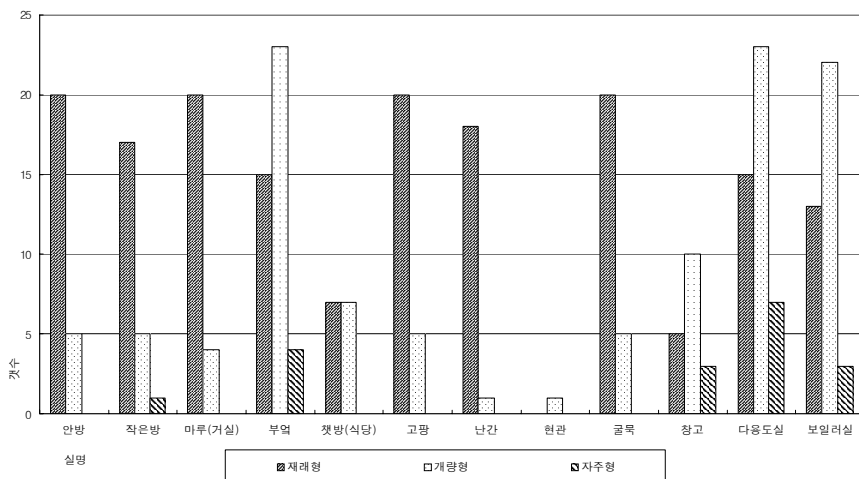
용도별 주거변화의 방법을 살펴보면, 1)원래의 기능에서 다른 기능의 용도로 변화된 용도변경, 2)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에 면적이 증가한 확장, 3)타실과 합하여 넓어진 통합, 4)증·개축부분이 새로운 용도를 갖는 부가, 5)시설물을 제거, 폐쇄, 변형하는 시설물 변경으로 나눌 수 있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그림 5-8에서와 같이 재래형 주거는 용도변경 91.3%(21/23), 확장 91.3%(21/23), 통합 13.3%(3/23), 부가 91.3%(21/23), 시설물변경(15/23)로 대다수의 사례에서 증·개축이 활발하게 나타났으며, 개량형 주거는 용도변경 53.9%(14/26)이고 확장 88.5%(23/26), 부가 84.6%(22/26), 시설물변경(19/26)로 나타났으며, 현대형 주거는 용도변경 33.3%(1/3)이고 확장과 부가는 100%(3/3), 시설물변경(3/3)으로 나타났다.



[그림 5-8] 용도별 반응

구체적인 공간별 주거변화는 그림 5-9와 같다. 재래형 주거는 안방, 작은방, 마루, 부엌 등의 면적이 확대되고 고광은 용도변경 하여 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식당기능의 찻방은 부엌 공간으로 통합되었으며 굴목은 소멸되고 난간은 전면창호에 의해 실내화 하였다.



[그림 5-9] 공간별 증·개축 현황

또한 근대화로 인한 설비시설의 발달로 가사보조공간인 다용도실과 보일러실

등이 나타났다. 개량형 주거는 내부공간의 확대는 적었으며 주로 근대적 설비에 따른 가사작업인 부엌과 다용도실의 활발히 나타났으며 보일러실, 창고 등의 증축이 나타났다. 현대형 주거는 부엌, 다용도실을 제외하고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 1)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증·개축에 의한 면적의 변화 없이 실의 기능만 변화한 것으로, 사례O62의 경우 농산물 수장공간이었던 고광 기능은 생활의 근대화로 인하여 외부 창고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자녀들의 성장에 따라 침실로 사용하거나 자녀들이 직장이나 학교 등의 이유로 출타할 경우 생활용품이나 가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방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 5-10] 고광의 용도변경



[그림 5-11] 부엌의 용도변경

또한 가사공간의 용도변경은 전통적으로 부엌과 연계되어 가사작업 및 식사공간이던 챗방이 부엌공간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나 부엌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일반화되고 있었다. 개량형 주거에서 나타나는 사례로 근대화 이후 취사난방분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안방과 부엌의 인접관계가 분리되어 부엌이 별도의 공간으로 증축됨으로써 사례M83-1과 같이 기존 부엌공간을 챗방으로 용도변경 하여 경조사를 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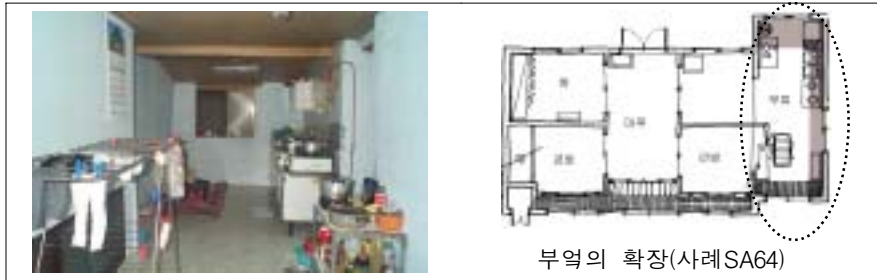
## 2) 공간의 확장

원형에서 면적만 늘어나는 확장은 주로 방, 마루, 부엌에서 나타난다. 사례G50에서와 같이 공간이 협소하여 기존의 공간이 외부로 확장되는 경우로 증축 방법은 전면과 측면 증축이 대부분으로 증축 시에는 지붕 개량이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전면 증축은 난간선 만큼만 증축하여 지붕의 처마 선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고 있었다. 증축의 이유는 근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생활공간의 협소와 생활재 증가에 따른 면적부족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특히 안방의 증·개축이 높게 나타나 안방이 사적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공적 공간으로 접객, 식사, 단란 등 주생활의 중심공간으로써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마루는 난간을 통해 접근되는 반 외적공간이었으나 전면에 창호를 설치하여 현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거를 내부화하고 있었다.



[그림 5-12] 내부공간의 확대(사례G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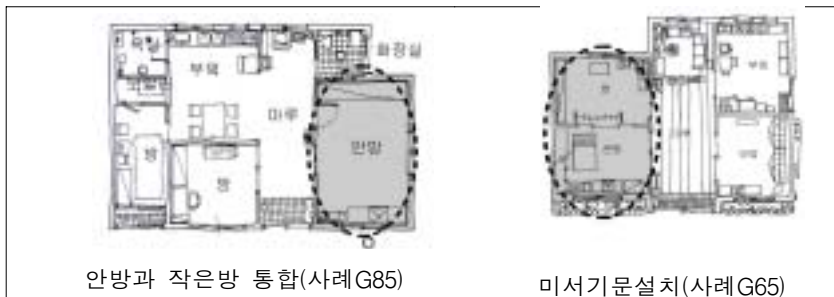
사례 SA64는 근대화에 따라 설비의 발달은 협소한 부엌공간을 후면과 측면으로 확장하고, 기존 재래부엌의 바닥에 온수보일러를 설치하여 바닥의 단을 높여 일상의 가사 및 경조사를 대비한 가사작업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림 5-13] 원형에서 면적만 늘어난 확장

### 3) 공간의 통합

타실과 결합하여 방을 넓히는 통합은 외부공간이 협소하여 방의 확장이 곤란하거나 가족수의 감소로 방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 나타난다. 사례G85는 안방을 후면의 작은방과 통합하여 넓힘으로서 안방의 공적생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례G65는 방 사이 벽을 철거하고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경조사 시에 두 개의 방을 통합하여 융통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4] 안방과 작은방의 통합

### 4) 공간의 부가

기존주거에 새로운 기능을 갖는 공간이 접속되는 부가는 근대화에 따른 설비의 변화로 새로운 기능의 보일러실, 부엌, 다용도실, 욕실 등과 같은 생활관련공간과 영농방식의 변화로 수납 및 농기계창고 등과 같은 영농관련공간이 기존주거의 측면이나 후면에 결합되는 경우가 있다.

사례 O67과 같이 주거측면에 다용도실을 배치하고 마루후면에 부엌공간을 배치하여 마루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평소 가사 및 식사에 편리성을 주고 경조사를 위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림 5-15] 마루후면의 부엌부가



[그림 5-16] 생활공간 측면의 다용도기능 부가(사례SA77)

사례 SA77은 주생활양식의 변화로 기존 주거측면에 다용도실, 보일러실, 생활창고가 하나의 연속공간으로 접속된 사례이다. 난방방식의 변화로 보일러실이 배치되며 일상가사보조 및 경조사를 대비한 다용도실이 배치되고 가사용품수납과 농산물보관을 위한 창고가 일체화되어 결합하고 있었다

## 5) 시설물 변경

근대화에 따른 주거변화는 공간의 변화뿐 아니라 생활을 위한 시설물의 변경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두드러진 시설물 변경은 출입문의 제거와 바닥재의 변경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미서기문을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 문을 제거하고 있었다. 특히 마루전면 난간에 설치된 미서기문은 대부분 제거되어 있었고 개방형 주거의 마루 후면 작은방과 현대형 주거의 측면의 작은방 문도 개방시켜 거실의 연장 공간화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례U87은 마루후면 작은방의 문을 제거하여 전면의 마루를 각 실의 통로나 가족의 단란으로 사용하고 작은방은 개방화하여 소파와 탁자를 배치하여 접객을 위한 사회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림 5-17〕 출입문의 제거후 접객공간화(사례U87)



〔그림 5-18〕 작은방 미서기문제거  
(사례SA92)



〔그림 5-19〕 마루후면 책방문제거  
(사례N85)

사례에서 나타난 마루의 바닥재는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의 대부분은 목마루로 바닥가감재의 변경을 살펴보면, 재래형 주거는 47.8%(11/23), 개량형 주거 41.4%(12/29)로 목마루가 온돌마루로 변경이 나타났고, 현대형 주거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온돌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바닥재의 변경은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에서 주로 나타나며 이것은 공간의 융통적 사용을 위한 것으로 거실을 방 기능의 연장으로 사용하는 전용성(轉用性)을 갖게 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의 중심을 거실과 안방에 두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전용성은 주생활양식의 입식화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목마루에서 온돌로 변경한 사례 O62는 마루가 방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안방에서의 행위가 마루로 연장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 N56은 목마루가 온돌로 변경됨으로써 가구가 마루에 배치되어 방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림 5-20〕 마루바닥의 변경 후  
안방행위가 연장  
(사례O62)



〔그림 5-21〕 마루바닥의 변경 후  
생활가구가 마루배치  
(사례N56)

### 5.1.3 공간구성의 단계별 변화

농촌주거의 변화는 가구마다 생활방식이나 경제적 사항 등의 차이에 의해서 증·개축이 동일한 방법이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주생활 양식 측면에서 파악한 결과, 주생활의 변화에 따라 농촌주거 공간의 증·개축은 상호대응관계를 나타내며 공통된 일련의 공간구성의 변화과정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변화과정을 주거의 원형형태에서 증·개축에 의해 공간이 재편성되는 과정을 기준으로 3단계로 규정하고 주공간과 주생활과의 상호대응관계 속에서 공간구성의 단계별 특성을 파악한다. 이것은 근대화에 따른 시기별 변화과정과도 관련성을 갖는다.

공간구성의 단계별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는 원형에서 공간구성의 재편 없이 각 실의 면적만 확대되는 경우로 내부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본래의 공간기능이 소멸되고 다른 기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다음으로, 2단계는 평면구성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존 평면에 새로운 기능의 공간이 부가되거나 연결하여 증축하는 것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근대화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큰 형태로 새로운 공간이 추가되어 기존의 평면구성이 재편성되는 변화를 보이는 경우이다.

주거형별 공간구성의 단계별 변화는 표 5-2와 같다.

재래형 주거는 1단계와 2단계, 개량형 주거는 2단계와 3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주생활과의 공간대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2단계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형 주거의 경우 변화 사례 수가 적었으며 3단계 과정에서 몇 사례가 나타났다.

〈표 5-2〉 공간구성 단계별 변화분포

주거형 \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재래형	8	14	1
개량형	2	18	6
현대형			3

### 1) 재래형 주거의 단계별 변화

#### · 재래형 주거 제1단계 사례1 : 그림 5-22

난간 전면에 출입문을 설치하여 마루가 내실화 되었으나, 기존의 목마루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안방과 작은방은 생활행위의 증가와 생활재의 증가로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생활의 중심이 실내로 이전되었다. 면적증가 방법은 난간선까지 전면이 확장되고 굴목을 제거하여 측면으로도 증축을 하였다. 안방후면의 고팡은 침실로 용도 변경되고, 취사난방 이후 부엌에 인접한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의 사용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안방을 큰방으로 호칭하고 일상 공간사용에서는 자녀방으로 사용하지만, 비 일상 공간사용은 큰방 제사방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부엌은 찻방까지 통합하여 경조사를 대비한 공간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전체적인 공간구성은 전통적인 마루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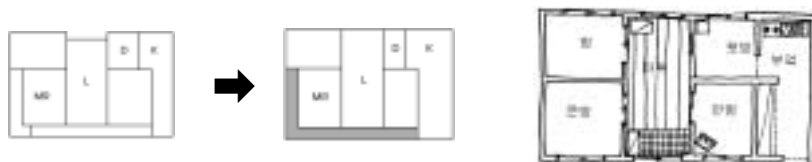
(사례 G50)

[그림 5-22] 재래형 제 1단계 사례1

#### · 재래형주거 제1단계 사례2 : 그림 5-23

안방은 처마선까지 전면 확장이 이루어지고 측면의 굴목이 소멸되어 방의 면적으로 통합되었다. 마루는 전면에 출입문이 생기고 후면이 장방까지 증축되어 내실화 되었다. 마루바닥은 기존의 목마루를 온돌로 바꾸고 안방의 기능이 마루까지 연장되었다. 작은방은 전면확장과 측면으로 부엌 전면공간까지 증축되고 부부침실로 사용되었다. 부엌은 설비의 발달로 좌식 부엌에서 입식 부엌으로 변화

되었으며 마당 방향으로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식사 및 수납공간인 챗방은 지속되어 가사용품 수납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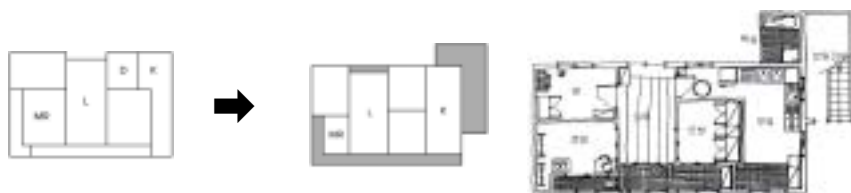


(사례O62)

[그림 5-23] 재래형 제 1단계 사례2

· 재래형 주거 제2단계 사례1 : 그림 5-24

난간전면에 창호를 설치하여 복도를 확보하고 각 실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통적인 진입의 연결성을 나타냈다. 마루는 목마루 형태의 전후가 개방된 구조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부엌은 가사공간의 협소로 전면과 측면으로 확장되었으며 바닥은 마루와의 단차를 없애고 작업대는 입식화 되었다. 챗방은 부엌공간으로 통합되어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좌식의 식사행위를 나타내고 있었다. 욕실은 내부공간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 후면에 배치하고 욕실 겸 다용도실 용도로 보일러실과 연계하여 배치되고 있었다.



(사례N56)

[그림 5-24] 재래형 제 2단계 사례1

· 재래형 주거 제2단계 사례2 : 그림 5-25

방은 전면을 증축하여 면적을 확대하고 주생활에 공간을 대응시키고 있었다. 부엌은 측면으로 확대하여 일상보다는 비 일상 시를 대비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챗방은 생활용품 및 가사용품의 보관 기능은 유지되었으나 식사기능은 소멸되었다. 가사보조공간인 다용도실은 부엌과 연계하여 일상가사 및 경조사를 대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농작업 후 위생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영

농방식의 변화로 주거의 측면에 농기계창고 등 새로운 용도의 공간이 배치되었다.



(사례O60)

[그림 5-25] 재래형 제 2단계 사례2

· 재래형 주거 제3단계 사례 : 그림 5-26

내부공간의 분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공간이 실내에 도입되어 주거내부공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마루는 목마루에서 바닥난방의 온돌로 교체되었다. 후면에 장식장과 소파를 배치하여 거실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나 전통적인 전후 개방형태는 지속되고 있었다. 근대화된 설비가 실내에 도입됨에 따라 욕실 및 화장실이 주거내부에 배치되고 부엌은 확장하여 부엌 겸 식당(DK)으로 사용하였다. 마루와 부엌을 개방하여 마당과의 관계보다 거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례G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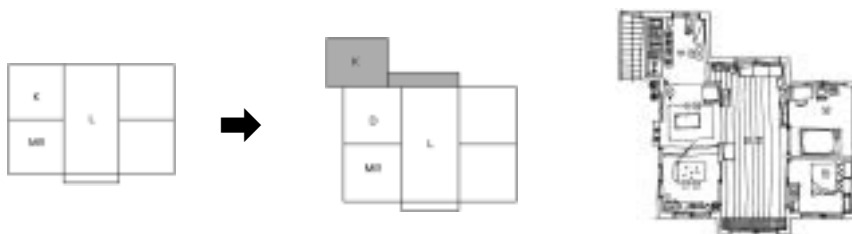
[그림 5-26] 재래형 제 3단계 사례

## 2) 개량형 주거의 단계별 변화

· 개량형 주거 제1단계 사례1 : 그림 5-27

평면구성은 원형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취사난방 분리로 부엌이 안방과 인접된 형태에서 벗어난 증축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기존부엌은 좌식 탁자를 놓아 식당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마루후면 공간을 증축하여 소파를 배치하고 입식 형태의 비 일상적 접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면공간은 통로 및 가족공간인 반면 후면은 접객을 위한 사회적 공간으로 영역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계는 생활의 근대화됨에 따라 가사작업공간과 주생활의 입식화가

추진되었으나 일상생활의 양식은 좌식 생활을 지향하며 전체적인 공간구성은 개방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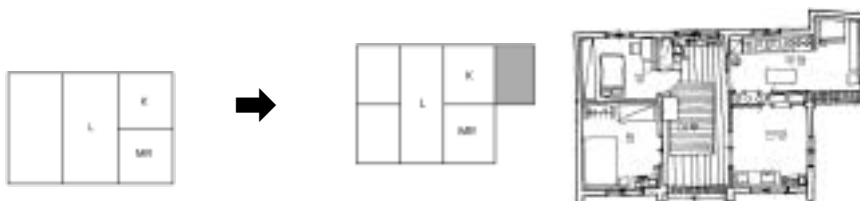


(사례 G73)

[그림 5-27] 개량형 제 1단계 사례1

· 개량형 주거 제1단계 사례 2 : 그림 5-28

마루를 중심으로 한 각 실의 배치는 원형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나 가사공간인 부엌은 본 채와 분리된 창고의 사이공간을 연장하여 증·개축하였다. 부엌은 취사난방분리로 바닥의 단차는 마루와 같아지고 입식화 되었으며 가사용품 등의 증가로 부엌 면적이 측면으로 증축되었다. 식사는 부엌에서 좌식으로 이루어지며 부엌과 마루는 출입문을 제거되고 커튼으로 차단하는 개방적 구조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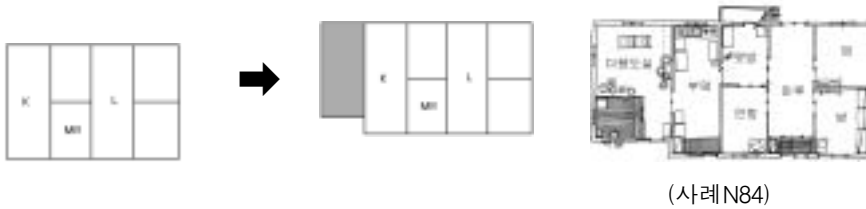


(사례 G82)

[그림 5-28] 개량형 제 1단계 사례2

· 개량형 주거 제2단계 사례1 : 그림 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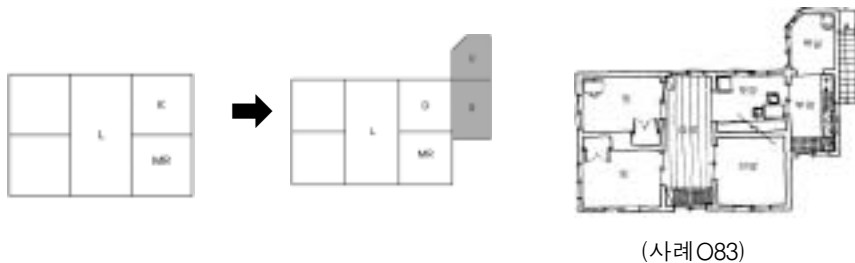
사례의 특징은 원형의 형태에서 다용도실이 본 채에 붙어 증축되었다. 찻방은 마루와 부엌 중간에 배치하여 가사용품 보관이나 경조사 시에 작업을 위한 예비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다용도실은 부엌과 연계되어 가사보조를 위한 공간을 증축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다용도실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구획하여 욕실 겸 다용도실과 생활용품을 수납하는 공간을 통합하여 배치하고 있었다.



[그림 5-29] 개량형 제 2단계 사례1

· 개량형 주거 제2단계 사례2 : 그림 5-30

원형의 주거공간은 변화가 없으나 본 채와 연결하여 가사작업공간 및 욕실을 증축하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 취사난방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부엌은 가사용품 및 비 일상 가사보조작업을 위한 챗방으로 사용하고 측면에 별도의 입식부엌을 증·개축하였다. 부엌 후면공간은 욕실을 배치하고 있으나 기능적 측면에서 다용도 기능을 나타내고 있었다. 출입방식은 부엌으로 진입하여 욕실과 챗방으로 연결되는 동선체계를 나타낸다.



[그림 5-30] 개량형 제 2단계 사례2

· 개량형 주거 제3단계 사례1 : 그림 5-31

전통적인 3칸형 평면에 외부확장이 활발히 진행되어 증·개축이 되었으며, 증축방법은 주로 주거 측면의 대지경계선까지 연장하여 침실, 욕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 근대적 개념의 실들이 배치되어 내부공간구성의 변화와 면적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기존의 부엌을 후면으로 확장하고 DK화하였으며 부엌과 연계하여 욕실을 배치하였으나 다용도실 기능이 많이 나타났다. 후면에 화장실을 내부화하고 마루를 확장하여 바닥에 온돌 난방이 된 개방형 거실의 기능을 갖추었다. 안방은 두 개의 실을 통합하여 식사를 제외한 접객과 단란이 좌식인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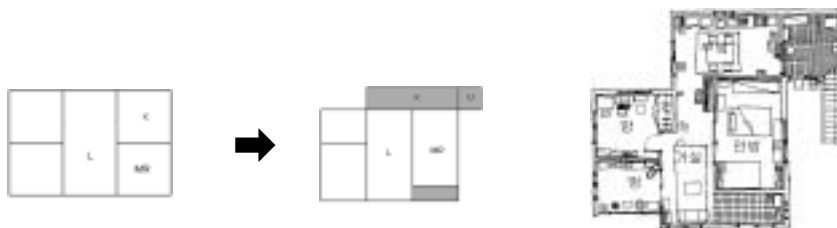


(사례G78)

[그림 5-31] 개량형 제 3단계 사례1

· 개량형 주거 제3단계 사례2 : 그림 5-32

기존 현관을 증·개축하여 별도의 현관을 배치하고 있으나, 여전히 마당과는 개방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부엌은 안방 후면에 배치하였으나 주생활 변화와 가사작업을 위한 공간의 협소로 거실후면을 외부로 연장하여 거실과 개방적 관계를 갖는 별도의 부엌공간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다용도실은 부엌과 연계하여 측면에 배치하여 가사보조 및 위생공간의 기능을 갖추었다. 거실은 바닥의 온돌 난방으로 소파 등을 배치하고 있으나 생활양식은 소파와 좌식을 겸용하는 혼용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안방을 통합하여 일상생활은 안방이 생활의 중심공간이 되는 좌식 생활을 나타내었다.



(사례G85)

[그림 5-32] 개량형 제 3단계 사례2

### 3) 현대형 주거의 단계별 변화

· 현대형 주거 제3단계 사례 : 그림 5-33

기존 주거공간이 근대화된 상태에서 생활의 필요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내부공간을 재편성하기보다는 본 체에 없는 공간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기능의 실을 본 체와 연계하여 증축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었다. 주로 방, 다용도실, 화장실 등 가족사용과 경조사를 위한 예비공간을 위한 공간으로 증축되는 경우를 나타내었다. 부엌측면에 통로를 두고 각 실들을 연결할 수 있는 배치형태

로 진입은 마당에서 개별적으로 진입하거나 본 채에서 직접연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례U87)

[그림 5-33] 현대형 제 3단계 사례

#### 4) 공간구성 단계별 변화 특성

이상의 공간구성 단계별 변화를 3단계로 분류하여 주공간과 주생활과의 대응 관계로서 분석한 결과는 표 5-3과 같다.

〈표 5-3〉 공간구성단계별 변화특성

주거형 \ 단계별	1단계	2단계	3단계
재래형	<p>■주거내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공간별 증·개축 (마루의 실내화, 현관발생, 방의 확대, 고평의 용도변경, 찻방의 소멸, 굴목의 소멸)</li> </ul>	<p>■주거내부화 및 가사공간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공간별 증·개축</li> <li>· 부엌의 확장</li> <li>· 다용도실 배치</li> </ul>	<p>■주거내부화 및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공간별 증·개축</li> <li>· 부엌의 확장 및 DK화</li> <li>· 욕실겸 다용도실 내부화</li> </ul>
개량형	<p>■가사공간외부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엌의 확장</li> <li>· 식당(찻방) 발생</li> </ul>	<p>■가사공간 별체확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엌 다용도실의 일체화</li> <li>· 생활창고 배치</li> <li>· 식당(찻방) 발생</li> </ul>	<p>■내부공간확장 및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의 통합과 신설</li> <li>· 부엌의 확장</li> <li>· DK화</li> <li>· 화장실 내부화</li> <li>· 욕실겸 다용도실 배치</li> <li>· 마루의 거실화</li> </ul>
현대형			<p>■별채로 증축 및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의 신설</li> <li>· 다용도실 배치</li> <li>· 욕실 및 화장실 내부화</li> </ul>

재래형 주거의 1단계는 전통적으로 반 외적 공간이던 주거가 내부화 됨에 따라 주생활이 실내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마루는 내실화되고 안방이 확장되어 생활이 마루와 안방에 집중되고 있었다. 또한 근대적 생활양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고팡, 챗방, 난간, 굴묵 등이 용도변경 되거나 소멸되었고 현관이 발생하였다. 근대화의 영향으로 건축재료와 설비가 적용됨에 따라 주거공간의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나 개방적 주거배치와 좌식 생활은 지속되고 있었다.

재래형 주거의 2단계는 근대화에 따른 가사생활의 변화로 부엌이 입식화되고 외부로 확대되었으며, 일상의 가사보조 및 경조사를 위한 다용도실이 나타났다. 부엌의 면적은 일상가사공간보다 크게 하여 경조사 시를 대비한 예비공간을 확보하고 다용도실과 연계되도록 하였다.

재래형 주거의 3단계는 부엌의 확장과 식당, 욕실 겸 다용도실 등이 내부화 되었으나, 면적의 확장은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사를 제외한 생활양식은 좌식생활을 나타내고 부엌 겸 식당이 마루와 개방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개량형 주거의 1단계는 마루나 방의 증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근대화에 따른 취사난방분리가 나타나면서 부엌의 입식화가 이루어졌으며 생활재 및 가사용품의 증가에 따른 면적의 협소로 부엌이 외부로 증가하였다. 증·개축의 규모는 일상의 가사공간보다 큰 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비 일상 시를 대비하는 예비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마루와 부엌의 관계는 종래 폐쇄적인 관계에서 바닥레벨이 같아지므로써 출입문을 제거한 개방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개량형 주거의 2단계는 가사작업공간의 협소로 마루 후면을 챗방 공간화 하거나 기존부엌을 챗방으로 경조사를 위한 예비적 공간으로 식사나 수납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다용도실과 부엌이 일체화된 확장이 일어났다. 또한 다용도실, 욕실, 창고가 일체화된 형태의 증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의 공간 안에 욕실 겸 다용도실과 예비적 창고 기능의 실이 배치되어 일상의 다목적 공간과 비 일상 가사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융통적 공간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대화에 따른 건축설비의 발달로 욕실이 내부에 배치되기 전 단계를 보이고 있다.

개량형 주거의 3단계는 외부로 새로운 공간을 확장하거나 공간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면적을 증가하였다. 예비공간으로서 작은방의 신설하고 방을 통합하여 안방을 확장하였다. 건축설비의 발달로 부엌 및 식당, 욕실, 화장실을 내부화 하여

주거의 기능성을 높이고 있었다. 주거면적의 확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식사를 제외한 생활양식은 안방을 중심으로 한 좌식 생활이 유지되며 마루의 소파는 접객용으로만 사용하며 평소에는 좌식 생활을 하는 혼용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현대형 주거의 3단계는 기존주거의 확장의 한계로 기존 주거측면에 부족하여 증축하는 경우이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예비적 공간의 성격을 나타낸다. 즉, 가족의 사용이나 경조사 시 접객을 위한 방이나 다용도실을 확보하고 화장실을 배치하고 있었다. 즉, 평소에는 기존주거를 사용하지만 비 일상 시에는 공간사용이 확장되는 것이다.

#### 5.1.4 증·개축에 의한 농촌주거공간의 변화 특성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증·개축에 의한 변화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동 변화는 영농방식의 변화로 창고가 농지로 이전되는 경향과 생활재의 증가로 생활관련 기능과 영농관련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창고나 밖거리를 생활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부모, 자식세대간 분리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었다.

둘째, 외부에서 이루어지던 생활이 근대화의 영향으로 내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주생활 변화는 안방을 중심으로 내부공간의 증축이 일어나 안방과 마루가 주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미서기문 사용과 출입문의 제거, 바닥재 변경 등으로 안방과 마루의 개방적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었다.

셋째, 가사작업공간인 부엌은 건축설비 및 주생활양식의 변화로 증·개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부엌의 증·개축은 취사난방 방식과 설비의 변화로 부엌이 입식화 되었고 일상 가사생활보다 비 일상 가사생활을 위해 면적이 증가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찻방의 기능을 통합한 가사용품 보관과 식사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나 좌식의 생활양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제주도 농촌주거공간의 증·개축 중 특징적인 것은 예비공간의 확보로 가사보조 및 경조사를 위한 다용도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 다용도실은 농촌의 일상 가사보조와 비 일상 가사보조 및 가사용품의 수납기능으로 전통적인 좌식 생활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기존 주거측면에 방이나 화장실을 배치하여 경조사 시 접객을 위한 예비공간을 확보하는 증·개축을 나타냄으로써 도시와 다른 농촌주거 생활문화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 5.2 농촌주거공간의 변화 특성

본 절에서는 근대화에 따른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시 계열적 변화와 증·개축에 의한 변화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적 측면의 지속성과 변화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 5.2.1 배치의 변화 특성

#### 1) 배치

주동배치의 시 계열적 변화는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에서 ㄷ자형, 병렬형이 가장 많았다. 현대형 주거는 지역에 관계없이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형의 단독배치가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 부속사와의 배치관계가 약화되거나 부속사를 줄여 1, 2층으로 생활공간과 부속공간을 단일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의 원인은 주거내 주생활과 영농을 분리하려는 경향으로 점차 주거를 생활공간화 하려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증·개축에 의한 주동배치 변화는 본 체에 붙여서 증축할 경우에는 내부기능이 외부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별채로 증축할 경우에는 외부로 기능이 분리되어 별동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생활과 영농에 필요한 공간으로 다용도실, 농업용 창고, 별동의 생활공간이 배치되고 있었다.



[그림 5-34] 농촌주거의 2층단일화(사례O96)



[그림 5-35] 2층주거의1층부속공간화(사례O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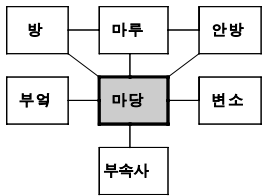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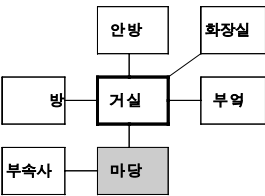
주동구성은 주로 두거리나 세거리로 배치되고 있었다. 초기부터 한 대지에 여러 채의 주거가 배치된 것이 아니라 영농이나 생활의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채 이외의 건물을 첨가하면서 증가되었다. 전체적으로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는 건물의 동 수가 많았으나 현대형 주거의 경우 주동수가 점차 감소하는 시 계열적 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증·개축에 의한 주동구성의 변화는 안거리 이외에 밖거리가 창고, 쇠막,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례에서 밖거리는 가족수의 축소로 생활공간이 농기구창고나 농산물 창고로 사용되고 쇠막은 생활재 보관이나 농업용 창고로 용도 변경되고 있었다. 또한 밖거리가 가족주기의 변화로 생활공간으로 변화되어 안·밖거리에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 분리하여 거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현대형 주거는 기존의 대지에 안거리를 신축한 경우 밖거리를 생활공간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 2) 주거와 외부공간

주거와 외부공간관계에서 주거는 마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안거리, 밖거리, 부속사의 구성형태에 따라 마당의 형태가 차이를 나타낸다. 농촌의 근대적 영농방식과 주생활의 요구로 인해 마당은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었다. 마당은 생활방식의 변화에 의해 주동과 관련성이 높은 폐쇄형에서 주동과의 관련성이 적은 개방형으로 변화하였다. 즉, 모든 내부공간이 마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근대화 이후에 마루가 내실화 됨에 따라 마당은 건물과 분리되는 변화를 나타내어 주거 내부공간과의 상관성이 약화되고 있었다.

〈표 5-4〉 마당공간의 성격 변화

	전통	현재
공간구성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용도공간</li> <li>· 마당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공간과 상관성약화</li> <li>· 영농기능약화</li> <li>· 정서적공간화</li> </ul>

또한 마당은 근대화에 따른 농업형태와 영농방식의 영향에 의해 영농공간으로서의 용도가 점차 감소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작업 행위나 농산물 건조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마당은 생활의 구심적 장소의 기능, 비 일상 시 주거내부의 한계성을 보완하는 다용도공간으로서 기능, 농작업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근대화에 따른 일상사용의 두드러진 변화는 주로 농기계보관이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현대형 주거의 경우에

서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례도 있어 영농공간으로서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생활 공간으로써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 3) 부속시설

첫째, 근대화 이후에 주거 내부에 있던 농산물의 수장공간인 고팡이 방으로 용도 변경되어 수장기능이 내부에서 외부의 부속공간인 창고로 이동하게 되었다. 또한 감귤, 채소 등 환금작물의 재배 등 농업에 따른 영농방식의 변화로 쇠막 등과 같은 공간은 기능이 소멸되거나 축소되어 창고로 변화되었다.

둘째, 제주도 농촌의 전통적인 부속공간 변화의 특징은 가족 수의 증감에 따라 밖거리의 창고를 증·개축하여 방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생활공간이 가족수의 축소로 창고로 다시 변환되는 가변적 공간사용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제주지역 농촌도 통과의례는 상당한 부분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지지 시설<sup>106)</sup>로 외부에서 치러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혼례잔치나 상례는 아직까지 집안행사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 경조사 시 특징적인 부속사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행사는 주거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마당에 천막을 치고 식탁과 의자를 배치하여 접객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음식준비는 부엌이 협소함으로 다용도실을 이용하고 밖거리 창고를 이용하는데 기존에 있던 창고의 수납물을 치우고 음식 조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 농촌주거에서 나타나는 부속공간은 농작업 용도의 단순기능이 아니라 제한된 주거공간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유공간으로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다기능의 생활보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 필요성이 한 동안 지속될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36〕 경조사 시 마당의 이용(사례O68)



〔그림 5-37〕 경조사 시 창고에서의 음식장만(사례O68)

106) 사회 지지시설(social support facilities)이란 결혼, 축제 등의 각종 예식을 위한 식당, 종교시설, 연회장, 식당, 영안실 등을 포함한 시설로 전통사회의 가정에서 해결하던 행사를 수용하는 사회적 시설이다.

## 5.2.2 주동의 공간구성 변화 특성

### 1) 평면형태

평면형태의 시 계열적 변화는 재래형 주거에서 개방구조를 유지하기 쉬운 일자형을 나타내었다. 마루를 중심으로 장방형의 단순한 배치가 외관형상에 영향을 미쳤으나 개량형 주거에서는 안방이나 마루가 돌출한 ㄱ자형이 나타나고 현대형 주거에서는 부엌이나 다용도실이 돌출한 ㄱ자변형, 부정형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전체적인 공간구성에서보다는 생활공간이 내부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방, 마루의 일부가 확장되거나 가사생활이 변화되어 부엌이나 다용도실이 측면에 결합되는 단순한 공간구성의 변화가 요인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농촌주거의 평면형태는 여러 변형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형태에서 일자형의 평면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고정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증·개축의 평면형태 변화는 기존 전통적인 일자형 평면을 고수하면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전통적 형식인 일자형의 평면형태에서 근대화 초기에 면적의 협소로 안방, 작은방, 마루 등이 외부로 확장되고 내실화 되었다. 따라서 초기 증·개축에 의한 평면형태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후 부엌과 다용도실, 방 등이 부가되면서 ㄱ자형, 부정형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평면형태의 시 계열적 변화와 증·개축에 의한 변화는 일자형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마당의 확보를 통한 개방적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형식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평면형태가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방, 거실 등 부분적인 공간의 면적확장과 부엌, 다용도실 등이 기존 평면에 부가되는 단순한 평면형태 변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종합하여 말하자면, 초기 변화는 안방, 마루의 면적이 변화되어 평면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것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내부 중심의 생활로 즉, 생활중심이 안방이나 거실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며, 이후의 변화는 부엌과 다용도실이 확장되거나 측면에 부가되어 가사생활의 중요성이 공간의 변화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2) 평면구성

평면구성의 시 계열변화에서 재래형 주거는 난간·홀형으로 마당과 주거 내부가 개방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개량형 주거 이후 마루가 실내화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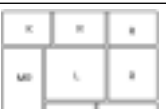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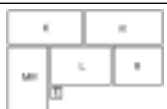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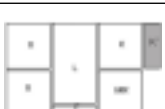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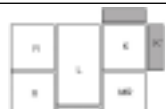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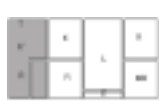
현관·홀형과, 마루의 후면이 점차 분화되어 마루가 거실화 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완전 폐쇄형은 드물어 마루의 후면이 미분화하여 방이나 찻방, 부엌이 배치되는 형태로 변화되었고, 마루 후면 방에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가변적 공간형태의 개방구조로 사용하고 있었다.

증·개축에 의한 평면구성의 변화는 마루중심 3칸형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전면에 창호를 설치하여 마루를 내실화하고 부분적인 실의 증축은 있었으나 공간구성 자체는 변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증·개축에 의한 평면 변화는 원형의 주거공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부엌을 중심으로 한 측면 확장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실간의 인접방식에 의한 평면구성은 전통적으로 안방과 부엌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취사난방 겸용으로 부엌이 안방의 후면에 인접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취사난방 분리 이후에는 안방, 부엌, 마루가 자유롭게 배치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특히 재래형 주거인 경우 취사난방 겸용 방식으로 증·개축이 되면서 작은방에서 집중적으로 생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평면구성의 시 계열적 변화는 마루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 공간구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며 특히 마루후면의 반개방적 구조나 미서기문의 설치는 전통적인 개방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증·개축에 의한 변화에서도 원형의 형태에 실 면적을 확대시키거나 새로운 실을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인 공간구성체계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공간구성을 파악한 결과, 표 5-5에서와 같이 기본구성 변화는 기존 일자형 평면에 각 공간이 부분적으로 확장되거나 공간이 추가되어 부정형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또한 기본형태 변화는 마루중심 3칸형의 겹집구조로 마루와 각 공간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증·개축에 의해 기존공간이 처마선까지 확장되거나 새로운 공간이 주거의 후면이나 측면에 추가되어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5-5〉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공간구성변화

	기본구성 변화		기본 형태의 변화	
전통				
70년대				
80년대				
90년대				

《범례》 MR:안방, R:작은방, S:고팡, D:젓방(식당), K:부엌, E:현관(난간), K':다용도실  
T: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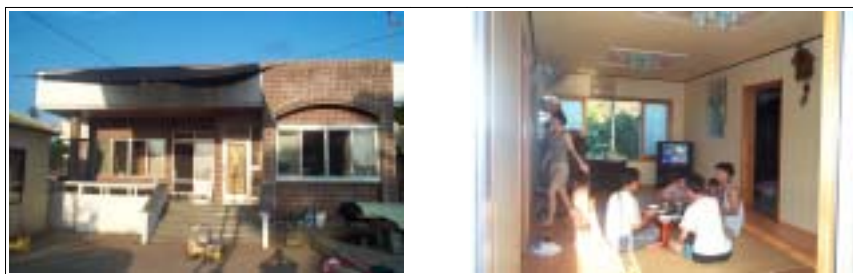
### 5.2.3 주요 공간별 변화 특성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은 근대화에 따라 새로운 건축재료 및 설비가 도입됨에 따라 과거 전통적인 주거공간에서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측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생활문화적 요소는 아직까지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본 절에서는 앞서 파악된 생활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주요 공간별 지속과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 1) 거실(마루)

전통적인 마루는 주거의 중심공간으로 전·후면이 개방된 반 외적 공간이었다. 그러나 마루가 실내화 된 것은 유리가 건축재료로 사용되면서부터이며 내실화 된 마루는 계절에 관계없이 생활행위를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마루와 각 실의 출입형태는 미서기문 등을 통하여 개방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후면이 분화되어 방이나 찻방, 부엌 등이 배치되고 각 실의 출입문이 여닫이문으로 폐쇄적인 공간구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후면방의 경우 가변적인 미서기문이나 반 개방 통로를 통하여 공간에 개방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간구성은 전통적 상방의 개념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개방적 구조는 경조사를 위한 융통적 공간활용을 위한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마루와 작은방을 연계하여 의례장소 및 접객장소로서 사용되고 있었다.

입식화 정도를 파악한 결과, 마루는 서구적 응접실의 개념이 도입되어 소파를 배치하는 거실개념이 일반적이었다. 공간구성에서 점차 거실이 일반화되었으나 소파 등 입식가구의 배치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거실로서의 사용이 아니라 좌식 마루로서의 의식이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소파배치에서도 거실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후면이나 측면에 배치하여 평소에 입식화 거실은 좌식의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소파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손님 접대 등 예의를 갖추는 경우에만 사용하고 된 거실공간에 좌식생활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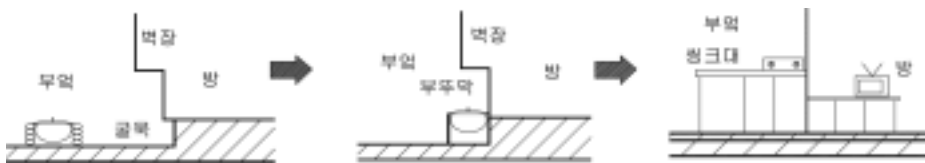


[그림 5-38] 현대형 주거의 거실에서의 좌식생활(사례M95)

생활관습의 영향으로 입식생활보다는 좌식생활을 유지하기가 용이한 것에서 비롯된다.

## 2) 부엌(정지)

제주도의 전통적인 정지는 바닥레벨이 낮은 형태로 욕지부에서 볼 수 없는 별도의 술걸이 취사와 굴묵 난방으로 취사난방이 분리되고 가사 및 식사를 위한 췌방 공간이 나타나 생활의 기능분화가 잘 이루어진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농촌주거가 근대화되면서 취사난방이 겸용이 되어 작은방의 벽 쪽에 부뚜막이 접속되는 직접 난방방식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온수보일러와 가스를 취사연료로 사용하면서 다시 취사난방분리가 이루어져 부엌은 완전 입식화 경향을 나타내게 되어 마당과의 연결관계에서 거실과 긴밀한 연결관계에 따른 개방적 구조로 변화되었다. 즉, 부엌은 바닥의 레벨이 거실과 동일해지고 입식작업대를 이용한 가사작업이 보편화되고 식당 겸용 부엌(DK)형태로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에서도 증·개축에 의해 부엌의 면적이 확대되면서 안방에서 이루어지던 식사행위가 점차 부엌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림 5-39] 부엌의 변화과정

특히 부엌면적의 확대는 일상가사공간보다 큰 규모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경조사를 위한 공간대비가 중요한 이유였으며 부엌과 연계하여 다용도실을 측면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또한 취사 및 식사공간으로서 부엌은 급속한 근대화가 진행이 되어 전통적인 조리문화와 식사문화와의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서구적 입식작업대는 우리네 음식조리에 필요한 공간과 기거양식과 불일치 되는 면이 많아 다용도실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었고, 특히 경조사 시에는 조리행위가 좌식으로 다용도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식사행위에서도 근대화에 따라 부엌에 식탁이 배치되고 있으나 식사방식이 완전히 입식화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바닥난방으로 부엌 바닥이나 거실에서 식사행위가 좌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병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급격한 부엌의 근대화에 따른 전통 생활

양식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물질적 변화에 생활문화가 수용되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한동안 이런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되리라 사료된다.



〔그림 5-40〕 부엌에서의 좌식  
식사행위(사례K70)



〔그림 5-41〕 식탁과밥상의혼용  
사용(사례U67)

### 3) 안방(큰구들)

안방은 전통적으로 생활의 중심공간으로서 가족의 단란, 접객, 식사, 경조사 행위등을 수용하기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서 마루와 연계성을 갖고 개방적 구조를 가져왔다. 전통적으로 안방은 부엌과 분리되던 형태에서 근대화 이후 취사난방이 겸용되면서 안방후면에 부엌이 인접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최근 취사연료의 변화와 난방방식의 변화로 다시 취사난방 분리가 이루어져 안방과 부엌이 분리되었고, 전체적인 주거공간이 기능별로 분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안방도 부부의 전용공간(專用空間)으로 개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관습이 지속되어 안방은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일상의 주생활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현대형 주거에서도 안방의 출입문을 여닫이문으로 설치하기 보다 사용 시에 개폐가 용이하고 분리와 해체가 가능한 미서기문의 사용이 지속되는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면적의 증대에서 근대화 이후 재래형 주거의 안방은 증·개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간확장을 이루고 현대형 주거에서도 안방의 면적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안방이 주거의 중심공간으로 다양한 생활행위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안방이 부부만의 전용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단란과 접객과 같은 공적행위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근대화에 따른 안방의 입식화를 파악할 수 있는 침대 등의 가구사용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안방의 입식화는 매우 느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일상, 비 일상 시에 공간을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구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안방은 근대화에 따라 점차 개실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접객과 의례를 위한 융통적 사용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이며, 특히 좌식의 생활관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4) 작은방(작은구들)

작은방은 주로 자녀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성장한 자녀들이 직장, 학교 등 출타로 인하여 평소 방이 비워 있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작은방은 비어있거나 주말이나 특정 일에 자녀들이 방문하여 사용하는 일상적인 생활공간이기보다 비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빈방은 평소 생활용품보관을 위한 창고 방으로 쓰이거나 제사를 위한 제사방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작은방의 빈방은 비어있는 방이 아니라 주로 비 일상을 대비한 공간사용에 융통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작은방의 공간 사용 중 특징적인 것은 근대화 이후 재래형 주거에서 부엌에 면한 작은방을 부부침실로 방을 바꾸어 사용하는 안방 바꿈으로 생활의 중심공간의 이동을 볼 수 있다. 기존의 안방은 자녀침실이나 빈방으로 남아 있으나 제사를 지내는 의례방으로서의 사용은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개량형 주거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즉, 부엌에 면한 방을 부부침실의 안방으로 사용하고 마루 후면에 별도의 방이 없는 경우 건너편 방을 큰방으로 제사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대형 주거에서도 제사는 부부침실인 안방에서가 아니라 작은방에서 치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 5) 다용도실(물부엌)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공간배치의 특징 중 하나로 다용도실 기능의 물부엌<sup>107)</sup>을 들 수 있다. 다용도실은 과거 가사노동이 외부의 마당이나 내부의 정지와 켓방 등에 걸쳐서 행해지던 것이 설비가 변화됨에 따라 내부화 된 것이다. 특히 부엌의 입식작업대 도입에 따른 기존 좌식의 조리문화에 부적합함으로 인해 좌식의 다용도실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다용도실의 기능은 재래형 주거나 개량형 주거에서 가사보조 기능뿐만 아니라 세면, 목욕 등 위생공간으로 사용되

---

107) 다용도실과 유사하나 제주도에서는 매우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한다. 물부엌의 용어는 부엌과 같으나 바닥이 타일등으로 되어 있어 바닥에 물을 마음대로 뿌릴 수 있다고 하여 물부엌이라 부른다. 이 용어의 사용은 제주도 지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어 욕실이 실내로 들어오기 전 단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물부엌은 도시주거의 다용도실<sup>108)</sup>과는 다른 개념으로 농촌 근대화 이후, 주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공간이다. 특히 제주도 농촌주거에서 다용도실의 특징적인 경향은 비 일상 의례행사시 음식의 조리나 설거지 등 입식부엌에서 행하기 어려운 비 일상 가사 보조 행위와 가사용품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상의 사용보다 큰 규모의 실로 배치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경조사를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생활문화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용도실은 일상가사 생활뿐만 아니라 비 일상시를 대비한 융통적 공간으로서 그 기능이 지속될 것으로 해석이 된다.

## 6) 욕실 및 화장실

전통적으로 외부에 배치되어 있던 욕실 및 화장실은 설비의 발달로 내부에 배치되고 있으나 그 배치와 사용에 있어서 도시주거와 차이를 나타나내고 있었다.

즉, 농촌주거에서 욕실은 화장실과 분리 경향을 나타내며, 다용도실의 개념으로 목욕, 세탁, 취사 보조 등의 기능을 가지며 도시주거와 같이 화장실과 욕실의 통합되는 경향은 약하다. 즉, 화장실은 가능하면 주거와 분리하고, 욕실은 부엌과 통합하여 다용도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근대화 초기 개량형 주거에서 나타나는 욕실 겸 다용도실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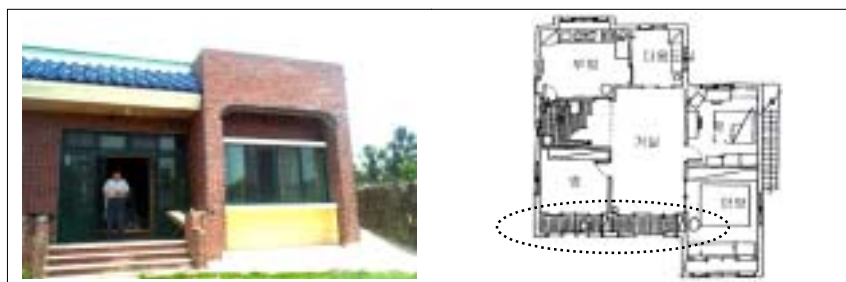
[그림 5-42] 욕실 및 화장실의 측면배치(사례 SA92)

108) 다용도실은 계획각론에서는 세탁, 다림질, 재봉일을 하는 일명 가사실 이라고 하며 독립된 방을 만드는 경우와 발코니와 주방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세탁, 걸레씻기 및 잡품창고를 겸하는 경우 다용도실이라 부른다. 이광로의, 건축계획, 문운당, 1993, p. 42, 재인용.

화장실 배치는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에서는 외부에 배치되고 있으나, 현대형 주거는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배치하려는 관습이 지속되고 있어 내부 화장실과 함께 외부화장실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현대형 주거의 경우 때문에 접속하여 배치되는 사례가 많았고, 화장실의 내부배치에 있어서도 거실과 연계한 주거의 중심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하여 주거와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화장실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과 경조사 시 손님사용을 고려하고, 농작업 시 주거내부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진입이 편리한 곳에 두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 7) 현관

전통주거는 별도의 현관이 배치되지 않았으나 근대화 이후 난간전면에 창호가 설치되어 마당과 마루중간에 현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관은 주택이 근대화되면서 주거내부의 생활공간과 외부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폐쇄적 형태의 현관이 별도의 실로서 배치되어 마당과 주거를 단절시키려는 도시적 경향의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방화하려는 전통적 경향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가능하면 마당과의 관계를 개방적으로 유지하여 주거내부의 통풍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경조사를 치를 때 현관의 협소함보다 통행이 원활함을 선호하여 개방적 형태의 현관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43] 개방적 현관 배치(사례N98)

## 8) 별동(밖거리)

별동의 공간구성에서 특징적인 면은 안거리뿐 아니라 별동에 식,침을 위한 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한 울타리 내에 부모, 자식세대가 거주할 경우 공간 분리와 함께 생활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도 가족제도의 특이성으로



남녀 분리보다는 부모, 자식세대의 분리를 우선하는 부부중심의 주거생활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밖거리 주거는 주동별로 개별적 현관과 부엌, 침실, 창고 등을 갖는 독립적 생활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주생활에서도 개별적인 생활을 나타내고 있으나 공적인 행사 등 비 일상 시에서는 세대간 구분이 없어지는 분리와 공유의 유기적 관계를 갖는 독특한 생활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현대형 농촌주거의 경우 1, 2층으로 단일화되지만 외부계단을 통하여 세대간 생활의 분리가 지속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사용의 배경에는 전통적인 제주도의 빈약한 자원과 열악한 기후풍토 속에서 가족노동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부부중심의 핵가족 형태를 유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공간구성과 사용에 있어서 제주도 주민은 육지부의 유교적 형식적인 면보다는 실질적인 효율성을 중시하는 생활문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다. 특히 세대간 거주위치의 교체가 바로 그것으로 육지부의 가부장적 가족구조와는 매우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주 위치는 부모세대나 자식세대의 가족 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주거공간을 가족의 생활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시켜 실질적인 공간 활용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화되어 있는 현재의 농촌주거에서도 공간구성이나 주생활에서도 유지되고 있으며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 5.3 소결

지금까지 근대화 이후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 측면에서 지속성과 변화성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배치는 재래형 주거와 개량형 주거에서 ㄷ자형, 병렬형이 가장 많았으나 현대형 주거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규모가 커지면서 일자형의 단독배치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주거내 주생활과 영농을 분리하려는 경향으로 점차 주거를 생활공간화 시키는 의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간구성은 안거리 이외에 밖거리가 창고, 쇠막, 생활공간으로 구성되고 밖거리는 가족수의 축소로 생활공간이 농기구창고나 농산물 창고로 사용되고 쇠막은 생활재 보관이나 농업용 창고로 용도변경 되고 있었다. 또한 밖거리가 생활공간으로 변용되어 안·밖거리에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간 분리되어 거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외부공간은 전통적인 농작업 행위가 축소됨으로써 거주자의 주거성을 높이는 녹지공간, 주차공간화하고 있으나 농기계보관, 농산물 건조 등 영농관련 행위는 유지되고 있었으며 마당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식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부속시설은 근대화이후에 영농방식의 변화로 창고가 농지로 이전되고 있어 생활재의 수납이나 영농관련 용도의 복합기능이 나타나고 있었다. 부속공간사용의 특징으로 가족수의 증감에 따라 밖거리의 창고를 방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수의 축소로 창고로 변화되는 가변적 공간활용 양상이 지속되고 있었다

둘째, 주동의 공간구성에서 평면형태의 시 계열적 변화는 방이나 마루의 일부가 확장되거나 실이 측면에 결합되는 형태가 부정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증·개축에 의한 주거의 변화는 기존의 장방형의 일자형을 지속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초기에는 일자형을 유지하다가 부엌, 다용도실, 방이 부가되면서 부정형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평면구성의 시 계열적 변화는 마루가 점차 미분화되어 개방된 마루가 거실화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즉, 마루의 후면이 분화하여 방이나 챗방, 부엌이 배치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후면이 미서기문을 설치하거나 통로로 개방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통적인 상방의 개념이 지속되었다. 증·개축의 변화에 의한 평면구성의 변화는 마루중심 3칸형 겹집의 개방적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부엌을 중심으로 한 측면 부분의 확장이 나타났다. 따라서 근대화의 변화에서도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공간구성은 평면형태는 기존 일자

형 평면의 측면에 실이 확장되거나 공간이 부가되어 부정형으로 변화되는 단순한 경향으로 전통적인 평면형태의 고정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평면구성은 마루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주거후면의 부엌을 중심으로 한 다용도실등이 부가되어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공간구성이 지속되고 있었다.

셋째, 생활문화 측면에서 각 공간별 지속성과 변화성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단위공간에서 마루는 미서기문을 통하여 각 실과 개방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근대화이후 마루공간은 후면이 분화되어 방이 배치되고 있으나 가변적인 미서기문으로 설치하여 공간의 융통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공간구성에서는 폐쇄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공간사용에서는 개방적 공간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것은 경조사를 위한 공간활용으로 마루와 연계하여 의례장소로서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생활양식에서 거실이 일반화되었으나 소파 등의 배치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일상생활은 입식화된 거실공간에 좌식 생활양식이 지속되고 있었다.

(2) 근대화에 의한 설비의 도입으로 인한 주거 변화는 부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제주도의 전통 부엌은 취사난방이 분리되던 솔걸이 취사와 굴뚝 난방 형태였던 것이 새마을운동 이후 취사난방 겸용으로 안방이 작은방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 마당과의 관계에서 마루와의 긴밀한 개방적 관계로 변화되었다.

(3) 안방이 생활의 중심공간으로 개실화가 덜된 것으로 파악이 되며 마루와 연계되어 개방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생활양식에서는 좌식의 관습이 유지되고 있었다.

(4) 농촌인구의 이동 현상이 매우 활발하여 작은방이 빈방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빈방은 생활용품보관을 위한 창고방이나 제사를 위한 제사방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5) 다용도공간은 부엌의 입식화에 따른 일상조리 및 비 일상 시를 대비하는 가사보조 공간과 가사용품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일상의 사용규모보다 크게 하여 경조사를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욕실 및 화장실은 설비의 발달로 화장실이 내부에 배치되고 있으나 화장실의 외부배치의 전통적인 관습은 지속되고 있어 내부화장실과 함께 외부화장실을 배치가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7) 도시주거와 같이 현관을 배치하여 내·외부공간을 폐쇄적 관계로 변화되고

있었으나 어느 정도 개방성을 유지하려는 양상은 지속되고 있었다.

(8) 별동의 특징적 변화는 안·밖거리형 주거를 형성하고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독립적 공간구성과 주생활이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안·밖거리에 취침과 취사를 할 수 있는 각각의 생활공간이 배치되어 생활의 분리가 이루어지지만 비 일상 시에서는 세대간 구분이 없어지는 공유를 나타내어 분리와 공유의 공간사용이 유기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근대화에 따른 생활문화 특성의 지속과 변화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수행한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8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 건축된 72개의 농촌주거를 조사하였다. 연구진행은 현장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사례 주거를 방문하여 주거공간의 현황과 거주자의 생활실태를 실측, 관찰, 면담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분석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대상 농촌마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건축시기, 구조 및 재료, 실 구성 등을 중심으로 시 계열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재래형 농촌주거, 개량형 농촌주거, 현대형 농촌주거로 분류하였다. 재래형 농촌주거는 해방 이후부터 1970년까지 건축되어진 농촌주거로서 새마을운동 이전 전통 민가형태의 주거라 할 수 있으며, 1971년 새마을운동 이후에 근대식 주거개념이 도입되면서 만들어진 개량형 농촌주거, 그리고 거주자 자유의사에 의해 도시적 개념으로 건축되어진 현대형 농촌주거 등 크게 3가지 주거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류를 토대로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6.1 요약 및 결과

주생활양식 측면에서 주공간과 주생활의 상호대응관계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 특성은 좌식 지향의 개방적 공간구성, 집객·의례중심의 공간구성, 세대분리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의 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좌식 지향의 개방적 공간구성은 다습한 해양성기후를 견디기 위한 구조와 한정된 공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마루와 각 실이 개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관, 화장실 등이 내·외부의 연결성을 나타내는 개방적 배치로 전통적인 외부지향의 양식을 나타냈다. 또한 개방구조에 따른 주생활은 안방 중심의 좌식 생활을 나타내며, 계절적인 변화와 함께 안방과 마루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생활재 사용을 통한 생활양식에서도 가사작업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간에서 좌식 지향의 생활양식이 나타났다.

둘째, 집객·의례중심의 공간구성은 비 일상적 공간사용을 대비하려는 생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일상의 공간사용보다 큰 규모의 공간을 확

보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의례공간으로서 작은방 중 하나를 제사방으로 사용하고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융통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엌은 일상생활의 가사활용 면적보다 큰 규모를 유지하며 가사 보조공간인 다용도 공간을 배치하여 경조사 시에는 조리를 하는 공간과 가사용품의 보관 장소로 활용되고 있었다.

셋째, 세대분리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은 한 울타리 내에서 자식세대가 분가할 경우 세대간 공간 분리와 주생활 분리의 생활양식이 나타났다. 세대간 안거리, 밖거리 거주형태는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가족 수에 따라 거주위치가 결정되고 있었다. 또한 세대간 공간사용은 일상생활에서는 별개의 생활이 이루어지지만 접객과 제사 등 비 일상 시에서는 공유되는 양상을 나타내어 주생활은 분리와 공유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농촌 주거공간의 생활문화 특성의 지속과 변화 측면에서 제주지역 농촌 주거공간은 근대화에 따른 건축구조, 재료, 설비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도서 문화적 특성상 전통적 생활관습이 지속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을 공시적 측면과 함께 통시적 측면으로 분석한 결과, 지속과 변화의 특성은 전통성, 실용성, 독립성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성 측면에서 농촌주거공간은 제주도의 지형이나 바람 등 환경적 특성에 의해 좌향이 지역별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배치는 별동형의 전통적 공간구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마당은 영농방식변화로 인해 거주성을 높이는 개방적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마당공간을 확보하려는 경향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거공간은 3칸형 겹집의 일자형 평면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마루중심의 개방구조로서, 마루가 동선과 생활 중심에 배치됨으로써 각 실과의 상관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근대화 이후 마루의 후면이 점차 폐쇄되어 거실형으로 변화되지만 완전히 폐쇄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개방형태가 나타나는 전통 상방의식이 지속되고 있었다.

근대화 이후 주거는 각 공간이 개실화되는 입식위주의 거실중심형으로 변화하지만 쇼파 등 입식가구의 활용도가 적게 나타나는 안방중심의 전통적 좌식 생활양식은 지속되고 있었다. 설비의 발달로 화장실이 실내에 배치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외부 화장실의 배치가 지속되고 있었다. 주거내부와 마당과의 관계는 폐쇄적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미단이문의 현관

을 설치하여 개방화하려는 경향은 지속되었다.

둘째, 실용성 측면에서 농촌주거공간은 일상의 가족생활과 함께 비 일상 경조사를 위한 전용적(轉用的) 공간사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안방은 일상 시에는 부부와 가족의 생활중심이지만 비 일상 시에는 접객의 장소로서 사용되며 마루후면의 작은방은 자녀 방이면서 제사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마루는 일상생활의 중심공간 뿐 아니라 비 일상 식사 및 접객의 장소로 전용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경조사 시 마당과 창고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출입문 형식에서도 공간사용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작은방이나 안방의 출입문은 여닫이문보다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가변성을 줌으로써 경조사 시에 공간의 구분을 없애 공간사용의 실용성을 최대한 높이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용도실은 가사생활을 위한 전용적(轉用的) 공간으로서 부엌의 근대화에 따른 입식 가사생활의 보조뿐 아니라 경조사를 위한 다기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주동별 공간사용에서 밝거리나 창고를 가족주기의 변화와 함께 생활공간으로 증·개축하여 사용하거나 가족의 수가 축소될 경우, 생활공간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공간을 가족주기 변화에 맞추어 융통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안·밝거리 주거에서 부모, 자식세대간 가족 수에 따라 거주위치를 교체하는 것은 제주민의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공간사용의 실용적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독립성 측면에서 농촌주거공간은 남녀 분리보다는 부모, 자식세대간의 분리를 우선하는 전통적 부부중심의 가족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 밝거리의 주거는 각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대간 개별적 공간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각 채로 출입하기 위한 현관과 취사를 위한 부엌 및 창고 등의 생활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경제단위의 분리를 나타내는 두 가족단위의 한 가족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독립성에 따른 주거공간은 현대형 주거의 2층 주거에서도 나타나는데 각층별로 부모, 자식세대가 거주하여 현관, 부엌, 창고, 화장실 등을 별도 배치하여 세대간 별개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대간 연결은 외부계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다.

## 6.2 시사점 및 추후과제

본 연구는 제주지역 농촌 주거공간의 생활문화 특성과 변화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결론적인 내용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사

항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발견된 내용 중 일부는 농촌 주거연구에서 이미 파악되어진 일반적인 내용들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내용이라도 지역적 측면에서 그 사회의 문화와 관련지어 재해석한 것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최근 들어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문화적 측면에서 하기 시작함으로써 농촌주거를 단지 근대화에 따른 건축 기술적 관점으로 파악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시야를 더 넓혀 사회, 문화적 측면으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주거를 문화적 산물로 보고 그 변화 개념을 연구의 틀로 삼정하여 근대화에 따라 전통적인 관습과 규범이 유지되는가를 생활문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화에 따른 지역의 전통문화의 지속과 변화 특성을 파악한데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제주지역 농촌주거는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지겠지만 도서의 특성상 전통적 생활관습이 상당기간 유지되는 보편적 특수성을 가지고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1970년대 새마을 사업에 의해 근대화된 서구적 양식이 유입되어 농촌주거를 변모시키면서도 그 근처에는 우리의 생활문화적 주거관이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지역 농촌주거에서 보여지는 변화는 비록 근대화 속에서 지역적 생활양식과 갈등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활문화의 주체적 수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근대적 공간에 대응한 전통적 주양식의 변형이 아니라 우리네 전통양식을 유지하면서 주공간을 변화시키려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생활문화적 측면을 공간과 대응시켜 볼 때 제주지역 농촌주거에 나타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내부의 개방적 공간구성에 따른 가족 간 프라이버시 확보의 문제와 좌식 지향의 생활양식에 따른 공간과 생활행위의 불일치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농촌주거에 보편화되어 있는 비 침실의 활용과 일상, 비 일상 공간사용의 융통성과 가변성을 주는 여러 가지 공간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세대간 분리주거의 관습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3대 가족형 주거모델인 안·밖거리 주거에 대한 현대화된 다양한 주거유형의 개발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한계점과 추후의 연구방향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낀다.

첫째, 지역성의 관점에서 타지방과의 비교를 통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였다.

둘째, 평면 위주로만 분석함으로써 주거공간의 변화 및 지속 양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해석이 부족하였다.



셋째, 타지역에 없는 제주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전통 주거요소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여 다루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통성 측면보다 근대화 측면을 강조하여 연구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타 지역과의 비교고찰을 통해 제주지역 주거문화의 명확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전통주거와의 세심한 비교를 통하여 그 변화를 유추해내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더욱 구체적이면서 실용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연구가 누적되어서 제주지역 농촌주거에 적합한 설계 지침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 1. 단행본

-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사, 1995.
- \_\_\_\_\_,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 강대기, 『현대도시론』, 민음사, 1987.
- 고영복, 『현대사회사』, 법문사, 1972.
- 김경동, 『한국사회 변동론』, 나남출판, 1995.
-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켄당』, 제주대학출판부, 1999.
- 김홍식, 『한국의 민가』, 한길사, 1992.
- 대한건축학회편, 『주거론』, 기문당, 1997.
- 손세관,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 열화당, 1995.
- 송성대,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1997.
- 라포르트 아모스, 이규목 역, 『주택의 형태와 문화』, 열화당, 1985.
- \_\_\_\_\_, 이영 역, 『건조환경의 의미』, 태림문화사, 1995.
- 왕인근, 『농촌사회학 개론』, 박영사, 1993.
- 유철인, 『한국의 발견 제주도』, 뿌리깊은나무, 1992.
- 유철인 외, 『제주사회론 2』, 한울아카데미, 1998.
- \_\_\_\_\_, 『제주사회론』, 한울아카데미, 1995.
- 이광규, 『한국 전통문화의 구조적 이해』, 서울대학출판사, 1990.
- 이연숙, 『한국형 노인주택연구』, 경춘사, 1993.
- 이재우 편역, 『주거학』, 건우사, 1998.
- 이재우, 『농가주택』, 건우사, 1986.
- 이진경, 『근대적 주거공간의 탄생』, 소명출판, 2000.

- 이창기,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9.
- 장보웅, 『한국 민가의 지역적 전개』, 보선제, 1996.
- \_\_\_\_\_, 『한국의 민가연구』, 보선제, 1981.
- 정지웅, 『한국의 농촌-그 구조와 개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4.
-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어 사전』, 제주도, 1995.
- 줄리아크레인·마이클앙그리시노, 한경구·김성례 공역,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 일조각, 1997.
-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 \_\_\_\_\_, 『한국농촌 사회연구』, 민중서관, 1969.
- 최재율, 『농촌사회학』, 예풍출판사, 1999.
-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출판사, 1997.
- 한상복, 『문화인류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1989.
- 홍동식 외, 『농촌사회학』, 법문사, 1984.
- 홍동식,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1996.
- Ching, F. D. K., "Architecture: Form, Space & Order"<sup>18</sup>, 도서출판창국사, 1985.
- King, A. D., Cultural Pluralism and Urban Form, in Rapoport, Amos ed, "The Mutual Interaction of People and their Built Environment"<sup>19</sup>, Munton, 1976.
- Larzer, W., "Life style Concepts and Marketing"<sup>18</sup>, Toward Scientific Marketing Proceeding of the Winter Conference of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963.
- Lee, Hee-Bong, "Space, Form and Subculture"<sup>18</sup>: The use of a Field Study Method, Ph. D. Dissertation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 Low, Setha M., Erve Chamber, 주거문화연구회 역, 『주거. 문화. 디자인』, 신광출판사, 1994.
- Long, Norman,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ural Development"<sup>18</sup>, Tavistock Publications, Inc, London, 1977.

Sanders, Irwin T., "Rural socitety"<sup>18</sup>,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ew Jersey, 1977.

Spradley, James P., "The Ethnographic Interview"<sup>19</sup>.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9.

Spradley, James P., 이희봉 역,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Weber, Ralf P., "On the Structure and Order of Perceived Architectural Space: Towards a Psychologically Based Aesthetics of Architecture"<sup>20</sup>, Inetrim Report No.34, Center for Environmental Design Research, 1982.

Zeisel, John, Inquiry by Design. Monterey, Calif: Brooks Cole, 1981.

吉野政治, 『生活様式の理論』, 光生館, 1987.

吉阪隆正, 이재우 역, 『주거학』, 건우사, 1986.

山邦郎, '都市化する農村地域構造', 『農村計劃論』, 農山漁村文化協會, 1984.

## 2. 학위논문

강행생, 『제주도 안·밖거리형 살림집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85.

고인룡, 『한국주거건축의 평면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5.

김미령, 『제주도의 기후환경이 민가형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8

김석윤,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 박사논문, 1996.

\_\_\_\_\_, 『제주도 주택의 의장적 특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1986.

김항원, 『제주도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송인호, 『주택의 건축언어 체계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신석하, 『제주도 민가의 구조부재 특성과 비례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1987.

-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2.
- 엄인섭, 『농촌주거공간 이용실태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91.
- 유복희, 『경남지역 신축 농촌주택의 건축적 특징 및 주생활에 관한 연구』, 울산대 석사논문, 1992.
- 이기옥, 『제주도 농민경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5.
- 이동락, 『농촌주거 실내생활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8.
- 이봉두, 『재래주거에 있어서 주생활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2.
- 이상정, 『한국 남부해안지역의 지역성에 적응하는 주거건축의 적정계획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1988.
- 이순희, 『연료전환에 따른 도시주거공간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7.
- 이현호, 『공동주거의 역사적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 이현희, 『한국에 있는 일식주거의 변천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3.
- 임창복, 『한국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 임호진, 『제주도 전통주거의 온열환경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91.
-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1.
- 최병숙, 『거주자 요구에 의한 농촌주택 개량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5.
- 최장순, 『영동지역 농촌주택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시립대 박사논문, 2000.
- 최찬환, 『한국의 농촌과 도시주거양식의 비교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87.
- 한필원, 『농촌지역 농가주택의 이용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허영숙, 『아파트 거주가구의 주생활양식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7.

현혜경, 『제주농촌마을의 기제사의례 변화』, 제주대 석사논문, 1998.

황준현, 『도시 단독주택의 공간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93.

### 3. 정기간행물

강영환, '민족과학적 방법을 원용한 전통주거문화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9.

\_\_\_\_\_, '한국 농촌주거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권 6호 1987. 12.

곽희석 외, '분가 촌락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세대간의 거주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7권 1호(통권147호), 2001. 1.

김석윤, '전통가옥', 『제주도 민속자료』, 제주도, 1987.

김성우 외, '공간사용을 중심으로 본 농촌주택의 근대적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 1996 .6.

김창민, '범주로서의 친족: 제주도 권당', 『한국문화인류학』, 제24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2.

김홍식, '가족구조와 민가크기의 변천에 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2집, 제주도연구회, 1985.

\_\_\_\_\_, '성읍리 공간 구성의 연구', 『제주도연구』, 제1집, 제주도연구회, 1984.

\_\_\_\_\_, '주생활편', 『제주의 민속 IV』, 제주도, 1996.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집합주택계획연구사』, 1993.

박서호, '농촌계획의 개념과 계획기법', 『농촌지역종합개발연구의 과제』, 한국농촌계획연구원, 1985.

박영기 외, '제주도 현대주택의 사용실태와 주요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2호, 1992. 10.

북제주군 문화공보실, 『북제주군 지』, 북제주군, 2000.

손세관 외, '평면의 형상으로 본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3호, 1998.

松本誠一, '濟州道家族의 檢討', 『탐라문화』, 제1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유철인, '일상생활과 도서성', 제주도문화에 대한 인지인류학적접근,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1984.

\_\_\_\_\_, '제주도사람들의 사회와 섬에 대한 인구이동과 제주사회관념',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회, 1992.

이기옥,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방향』, 제주도, 1990.

\_\_\_\_\_, '제주도 문화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21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9.

\_\_\_\_\_, '환경과 제주문화', 『탐라문화』, 제1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이상철, '제주도 개발과 사회문화변동', 『탐라문화』, 제1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7.

이중우, 이해성, '주생활 반응에 따른 주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권 4호, 1988. 8.

이희봉, '인간회복의 도시설계를 위한 부분문화 이론과 방법', 『국토계획』, 대한국토학회지 23권 1호, 1988.

전경수 외, '제주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13집, 제주도연구회, 1996.

전경수, 한상복, '제주도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제13집, 제주도연구회, 1996.

제주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제2집, 1992.

제주도, 『제주도 문화재 유적 종합보고서』, 1973.

\_\_\_\_\_, 『제주도 민속자료』, 1987.

\_\_\_\_\_, 『제주의 민속IV』, 1995.

조성기, '한국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권 112호, 1983.

조옥라, '인류학적 관점으로 본 한국농촌부락연구', 『한국문화인류학』, 제13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81.

대한주택공사, 『3대가족형 공동주택 개발연구』, 대한주택공사, 1987.

최양부,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전통농촌의 해체', 『한국사회학』, 제19집, 한국사회학회, 1979.

최재권, 이현호, '세대간 생활문화를 통해 본 제주도 안·밖거리 주거 연구', 『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4호, 2000. 9.



---

## ■ 부록

---

### ■ 부록1

제주지역 농촌주거 실태조사표

### ■ 부록2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사례현황

## ■ 부록1

### 제주지역 농촌주거 실태조사표

· 재래형 농촌주거												
번호	기호	세대주	연령	직업	건축연도	구조	외벽재료	주택향	대지 규모(평)	주택 규모(평)	가족 구성	가족 수
1	G45	김강노	52	농업 어업	안:1945 밖:1947 부속사:1945	안:목조 밖:목조 부속사:목조	안:돌,물탈 밖:돌 부속사:돌	안:동 밖:서 부속사:남	175	안:27.74 밖:21 부속사:6.36	cB	4
2	N48	고병찬	76	농업	안:1948 밖:1948 부속사:1948	안:목조 밖:목조 부속사:목조	안:돌,물탈 밖:돌,물탈 부속사:돌,물탈	안:목동 밖:남서 부속사:동남	150	안:23.64 밖:20 부속사:12.12	cC	4
3	S48	김애지	55	농업	안:1948 밖:1948	안:목조 밖:목조	안:돌 밖:돌	안:북 밖:남	200	안:16.66 밖:9.09	S	1
4	M49	양광익	48	농업	안:1949 밖:1986 창고1:1971 창고2:1990	안:목조 밖:블럭조 창고1:블럭조 창고2:조립식	안:돌,물탈 밖:블럭 창고1:블럭 창고2:판넬	안:북 밖:서 창고1:남 창고2:서	247	안:16.7 밖:16.97 창고1:12.27 창고2:17.73	cB	3
5	G50	장한진	52	농업	안:1950 밖:1978 창고1:1990 창고2:1990	안:목조 밖:블럭조 창고1:블럭조 창고2:목조	안:돌,물탈 밖:물탈 창고1:블럭 창고2:돌	안:서 밖:동 창고1:북 창고2:남	130	안:20 밖:15 창고1:3.54 창고2:9.84	sCm	5
6	S50	김상택	50	농업	안:1950 밖:1950	안:목조 밖:목조	안:돌,물탈 밖:돌	안:동 밖:북	84	안:20.76 밖:8.86	sCs	5
7	SA51	강순심	44	농업 자영업	안:1951 밖:1954 창고:1954	안:목조 밖:목조 창고:목조	안:돌,물탈 밖:돌,물탈 창고:돌	안:남 밖:남 창고:북	300	안:24.24 밖:9.85 창고:6.55	cBB	5
8	U55	이종상	43	농업	안:1955 창고1:1955 창고2:1955	안:목조 창고1:목조 창고2:목조	안:돌 창고1:돌 창고2:돌	안:서남 창고1:동북 창고2:동북	150	안:17.83 창고1:7.42 창고2:13.64	cB	6
9	N56	전희익	73	농업	안:1956 밖:1959 창고:1961	안:목조 밖:목조 창고:목조	안:돌 밖:돌 창고:돌	안:서 밖:동 창고:북	198	안:25.72 밖:17.27 창고:15.91	cB	6
10	M60	강행근	55	농업 자영업	안:1960 밖:2000 창고1:1960 창고2:1998	안:목조 밖:조립식 창고1:목조 창고2:하우스	안:돌 밖:판넬 창고1:돌 창고2:하우스	안:남 밖:서 창고1:북 창고2:동	299	안:20.83 밖:15.83 창고1:16.36 창고2:13.64	cB	3
11	S60	김경근	56	농업	안:1960 밖:1960	안:목조 밖:목조	안:돌,물탈 밖:돌,물탈	안:서남 밖:동남	137	안:16.74 밖:15.76	cB	6
12	O60	조순덕	53	농업	안:1960 밖:1960 창고:1970	안:목조 밖:목조 창고:블럭조	안:돌,물탈 밖:돌 창고:물탈	안:동 밖:남 창고:서	279	안:24.55 밖:13.33 창고:12.27	sS	2
13	K61	박순원	52	농업	안:1961 창고:1976	안:목조 창고:목조	안:돌,물탈 창고:돌,물탈	안:서북 창고:동남	400	안:25.7 창고:22.7	sCm	3
14	SA62	조남수	40	농업	안:1962 밖:1969 창고:1980	안:목조 밖:블럭조 창고:블럭H	안:돌,물탈 밖:물탈 창고:물탈	안:남동 밖:북서 창고:남서	200	안:18.41 밖:17.24 창고:3.3	cB	5
15	O62	김경일	41	회사원	안:1962 밖:1988 모:1985 창고:1985	안:목조 밖:블럭조 모:블럭조 창고:블럭조	안:돌, 물탈 밖:물탈 모:물탈 창고:물탈	안:남 밖:서 모:동 창고:동	120	안:21.67 밖:7.58 모:10.3 창고:3.64	cB	6
16	K62	박승준	54	농업	안:1962 밖:1977 창고1:1988 창고2:1992	안:목조 밖:목조 창고1:목조 창고2:블럭조	안:돌,물탈 밖:돌,물탈 창고1:돌,물탈 창고2:물탈	안:서 밖:동 창고1:남 창고2:북	150	안:22.58 밖:13.6 창고1:7.27 창고2:6.06	cB	4
17	SA64	김천택	60	농업 어업	안:1964 밖:1965 창고:1964	안:목조 밖:목조 창고:목조	안:돌,물탈 밖:돌 창고:돌,물탈	안:남 밖:북 창고:남동	200	안:25.46 밖:12.96 창고:8.49	cC	4
18	G65	강완순	65	농업	안:1965 밖:1965	안:목조 밖:목조	안:돌/물탈 밖:돌/물탈	안:서 밖:동	88	안:20.90 밖:24.55	cC	7

번호	기호	소유주	나이	직업	건축연대	구조	외벽재료	주택향	대지 규모(평)	주택 규모(평)	가족 구성	가족 수
19	K65	송대규	52	농업 축산업	안:1965 밖:1985 참고1:1965 참고2:1965	안:목조 밖:블럭조 참고1:목조 참고2:조립식	안:돌,물탈 밖:물탈 참고1:돌 참고2:판넬	안:서북 밖:남동 참고1:북동 참고2:서북	180	안:21.67 밖:12.27 참고1:14.55 참고2:14.40	cB	4
20	M67	김두호	69	농업	안:1967 밖:1968 참고1:1967 참고2:1969 참고3:1998	안:목조 밖:목조 참고1:목조 참고2:목조 참고3:하우스	안:돌,물탈 밖:돌,물탈 참고1:돌 참고2:돌 참고3:하우스	안:북 밖:남 참고1:남 참고2:북 참고3:남	400	안:25 밖:27.27 참고1:10.91 참고2:4.09 참고3:15.15	cC	6
21	O67	홍명삼	66	농업 어업	안:1967 밖:1977 모:1968	안:목조 참고1:블럭조 참고2:목조	안:돌,물탈 참고1:물탈 참고2:돌	안:남 참고1:남 참고2:서	200	안:23.93 참고1:9.70 참고2:12.5	sC	2
22	O68	김만승	71	농업	안:1968 밖:1980 참고:1968	안:목조 밖:블럭조 참고:목조	안:돌,물탈 밖:물탈 참고:돌	안:남 밖:동 참고:동	150	안:22.49 밖:10.30 참고:6.44	cC	5
23	K70	박민호	54	농업	안:1970 밖:1970 참고:1980	안:목조 밖:목조 참고:블럭조	안:돌 밖:돌 참고:물탈	안:서 밖:남 참고:동	100	안:29.85 밖:10.91 참고:20.83	cBB	3
· 개량형 농촌주택												
1	O71	홍원란	48	농업	안:1971 밖:1981 참고:1971	안:목조 밖:블럭조 참고:목조	안:돌,물탈 밖:물탈 참고:돌	안:남 밖:북 참고:동	395	안:29.45 밖:18.18 참고:4.55	cB	5
2	S71	이한열	71	무직	안:1971 참고:1971	안:블럭조 참고:블럭조	안:물탈 참고:물탈	안:서북 참고:동북	49	안:27.721 참고:9.09	sCm	3
3	G73	김화택	67	농업	안:1973 밖:1976 참고1:1973 참고2:1986 참고3:1998 참고4:1998 참고5:1973	안:블럭 밖:블럭조 참고1:블럭조 참고2:판넬식 참고3:하우스 참고4:하우스 참고5:목조	안:물탈 밖:물탈 참고1:돌,물탈 참고2:판넬 참고3:하우스 참고4:하우스 참고5:돌	안:동 밖:서 참고1:북 참고2:동 참고3:서 참고4:동 참고5:남	203	안: 21.34 밖:15.83 참고1:6.28 참고2:10.68 참고3:8.89 참고4:4.09 참고5:1.82	cC	6
4	M73	김혜영	44	농업	안:1973 밖:1997 참고:1999	안:목조 밖:블럭조 참고:하우스	안:돌,물탈 밖:물탈 참고:하우스	안:남 밖:북 참고:동	194	안:19.17 밖:12.95 참고:13.33	cBo	3
5	O74	현금란	72	농업	안:1974 밖:1987	안:목조 밖:블럭조	안:돌 밖:물탈	안:남 밖:남	208	안:21.34 밖:15.83	cB	4
6	G75	안영일	59	농업 어업	안:1975 참고1:1975 참고2:1990 참고3:1981	안:블럭 참고1:목조 참고2:블럭조 참고3:목조	안:물탈 참고1:돌 참고2:물탈 참고3:돌	안:동 참고1:동 참고2:동 참고3:동	153	안:26.36 참고1:15.30 참고2:4.24 참고3:3.70	sCm	3
7	SA77	이두백	42	농업 어업	안:1977 밖:1978	안:블럭조 밖:블럭조	안:물탈 밖:물탈	안:남 밖:서	140	안:27.42 밖:12.12	cC	6
8	O77	강성선	56	농업	안:1977 밖:1979 참고1:1978 참고2:1997	안:목조 밖:목조 참고1:목조 참고2:하우스	안:돌,물탈 밖:돌,물탈 참고1:돌,물탈 참고2:하우스	안:동 밖:남 참고1:북 참고:동남	210	안:25.46 밖:15.83 참고1:8.49 참고2:17.5	cBo	3
9	N78	진동준	59	농업	안:1978 밖:1953	안:블럭조 밖:목조	안:물탈 밖:돌,물탈	안:서남 밖:동북	80	안:38.78 밖:14.16	cB	4
10	M78	고군봉	34	농업 축산업	안:1978 밖:1980 참고:1985	안:목조 밖:목조 참고:블럭조	안:돌 밖:돌 참고:블럭	안:북 밖:동 참고:남	200	안:20.71 밖:15 참고:25.18	cB	7
11	G78	김석호	51	회사원	안:1978 밖:1976 참고:1978	안:블럭조 밖:블럭조 참고:블럭조	안:타일 밖:돌,물탈 참고:물탈	안:동 밖:서 참고:북	69	안:25 밖:19.70 참고:6.89	sCm	5
12	M78-1	정태수	69	농업	안:1978 밖:1999 참고:1968	안:블럭조 밖:벽돌조 참고:블럭조	안:물탈 밖:타일 참고:물탈	안:남 밖:동 참고:동	140	아:31.3 밖:25.46 참고:21.82	cC	6
13	O80	홍성구	65	농업	안:1980 밖:1961 모:1981	안:블럭조 밖:목조 모:블럭조	안:블럭 밖:돌 모:블럭	안:남 밖:북서 모:동	150	안:24.24 밖:16.67 모:20	cC	7
14	U81	이근창	69	농업	안:1981 밖:1973	안:블럭조 밖:목조	안:물탈 밖:돌,블럭	안:동 밖:동	400	안:32.19 밖:20	cC	7

번호	기호	세대주	연령	직업	건축연대	구조	외벽재료	주택향	대지 규모(평)	건축 면적(평)	가족 구성	가족 수
15	O81	부태규	69	농업	안:1981 밖:1983	안:블럭조 밖:블럭조	안:물탈 밖:물탈	안:동 밖:남	100	안:24.62 밖:17.88	cB	6
16	G82	김택휘	44	농업	안:1982 창고:1982	안:블럭조 창고:블럭조	안:물탈 창고:물탈	안:동 창고:서	55	안:19.1 창고:7.27	sCm	5
17	M83	오명봉	53	농업	안:1983 밖:1985	안:블럭조 밖:블럭조	안:물탈 밖:물탈	안:동 밖:서	500	안:29.09 밖:24.55	cBo	3
18	M83-1	강상중	58	농업	안:1983 창고1:1983 창고2:1978	안:블럭조 창고1:블럭조 창고2:목조	안:물탈 창고1:물탈 창고2:돌	안:서남 창고1:서남 창고2:남	500	안:30 창고1:20 창고2:38.79	cB	6
19	M83-2	강건일	59	농업	안:1983 밖:1949 창고1:1981 창고2:1985 창고3:1983	안:블럭조 밖:목조 창고1:블럭조 창고2:블럭조 창고3:목조	안:물탈 밖:돌 창고1:물탈 창고2:물탈 창고3:돌	안:남 밖:동남 창고1:북 창고2:북남 창고3:북	317	안:32.88 밖:17.42 창고1:20.91 창고2:11.59 창고3:7.88	cBo	3
20	U83	강희진	59	농업	안:1983 밖:1983 창고1:1973 창고2:1978	안:블럭조 밖:블럭조 창고1:목조 창고2:목조	안:물탈 밖:물탈 창고1:돌 창고2:돌	안:남동 밖:북서 창고1:북서 창고2:남동	270	안:22.73 밖:7.27 창고1:20.91 창고2:10.61	cBo	3
21	M83-3	김진두	58	자영업	안:1983 밖:1982	안:블럭H 밖:블럭조	안:물탈 밖:물탈	안:남 밖:서	51	안:19.85 밖:12.27	cC	6
22	O83	현대인	63	농업	안:1983 밖:1970	안:블럭조 밖:블럭조	안:물탈 밖:물탈	안:남 밖:동	88	안:27 밖:13.17	cB	4
23	S83	이명언	76	농업	안:1983 밖:1977 모:1977	안:블럭조 밖:블럭조 모:블럭조	안:돌 밖:물탈 모:물탈	안:남 밖:북 모:서	80	안:20.02 밖:12.12 모:16.97	cC	7
24	M84	오영삼	62	농업	안:1984 밖:1958 모:1954 창고1:1996 창고2:1989 창고3:1962 창고4:1958	안:블럭조 밖:목조 모:목조 창고1:블럭조 창고2:블럭조 창고3:목조 창고4:목조	안:물탈 밖:돌 모:물탈 창고1:물탈 창고2:물탈 창고3:돌 창고4:돌	안:동 밖:서 모:남 창고1:동 창고2:서 창고3:북 창고4:서	140	안:20.1 밖:15.83 모:8.21 창고1:12.12 창고2:16.67 창고3:4.17 창고4:6.36	cBo	3
25	N84	양태봉	64	농업	안:1984 밖:1974 창고1:1976 창고2:1974	안:블럭조 밖:블럭조 창고1:블럭조 창고2:블럭조	안:물탈 밖:물탈 창고1:물탈 창고2:물탈	안:서 밖:동 창고1:동 창고2:남	370	안:26.36 밖:19.70 창고1:10.23 창고2:4.09	cB	7
26	N84-1	진희복	60	농업	안:1984 밖:1984 창고:1985	안:블럭조 밖:블럭조 창고:목조	안:물탈 밖:물탈 창고:물탈	안:서 밖:동 창고:동	180	안:24.16 밖:24.47 창고:7.55	sCm	5
27	G85	고덕진	52	회사원	안:1985 밖:1994	안:블럭조 밖:블럭조	안:물탈 밖:물탈	안:동 밖:서	158	안:26.97 밖:12.12	sCm	5
28	N85	김순배	56	농업	안:1985 밖:1980	안:블럭조 밖:블럭조	안:물탈 밖:물탈	안:서 밖:동	98	안:26.09 밖:30.83	sCm	4
29	M85	홍병표	42	양돈	안:1985 밖:1970 창고:1980	안:블럭조 밖:목조 창고:목조	안:물탈 밖:돌 창고:돌	안:동 밖:남 창고:서	325	안:19.85 밖:21.67 창고:30.76	cB	6
· 현대형 농촌주택												
1	O86	강명주	47	양식업	안:1986 밖:1950	안:벽돌조 밖:목조	안:물탈 밖:돌	안:남 밖:동	150	안:21.82 밖:19.09	cB	5
2	U87	강우춘	55	농업	안:1987 밖:1985	안:벽돌조 밖:목조	안:물탈 밖:벽,물탈	안:동북 밖:서남	100	안:31.92 밖:30	cB	6
3	U88	강문식	63	농업	안:1988 밖:1971 모:1963 창고:1978	안:벽돌조 밖:목조 모:목조 창고:블럭조	안:물탈 밖:물탈 모:돌 창고:물탈	안:동 밖:서 모:북 창고:남	200	안:23.41 밖:23.48 모:18.33 창고:13.64	cC	8
4	O90	강길남	51	농업	안:1990 밖:1987 창고1:1987 창고2:1983	안:벽돌조 밖:블럭조 창고1:블럭조 창고2:목조	안:타일,물밖: 물탈 창고1:물탈 창고2:돌	안:동 밖:북 창고1:남 창고2:서	150	안:24.33 밖:15.15 창고1:15.15 창고2:7.73	cBo	3
5	G90	서기호	51	농업 축산업	1층:1990	안:벽돌조	안:돌	안:동	120	1층:31 2층:23	cC	5

번호	기호	세대주	연령	직업	건축연대	구조	외벽재료	주택형	대지 규모(평)	건축 면적(평)	가축 구성	가축 수
6	U91	강정휴	56	농업	안:1991 창고:1986	안:벽돌조 창고:블럭조	안:벽돌 창고:물탈	안:동북 창고:서남	400	안:29.5 창고:52.3	sCm	3
7	SA92	이현용	52	농업	안:1992 밖:1992	안:벽돌조 밖:조립식	안:타일 밖:판넬	안남 밖:남	144	안:37.58 밖:6.82	cC	5
8	O93	채진기	47	농업	안:1993 밖:1983	안:벽돌조 밖:블럭조	안:돌 밖:물탈	안:남 밖:서	160	안:22.73 밖:13.64	cC	6
9	U93	이중환	55	농업	안:1993 창고1:1980 창고2:1982	안:벽돌조 창고1:목조 창고2:블럭조	안:물탈 창고1:돌 창고2:물탈	안:동북 창고1:서남 창고2:서남	175	안:31.14 창고1:30.30 창고2:21.89	sC	2
10	K94	고운라	70	농업	안:1994 창고1:1983 창고2: 창고3: 창고4:	안:벽돌조 창고1:블럭조 창고2:하우스 창고3:목조 창고4:하우스	안:타일 창고1:물탈 창고2:하우스 창고3:돌 창고4:하우스	안:서 창고1:동 창고2:동 창고3:서 창고4:북	200	안:21 창고1:17.79 창고2:7.5 창고3:6.36 창고4:8.49	sCm	3
11	G95	문인호	40	자영업	안:1995	벽돌조	타일	안:동남	200	안:32	sCj	5
12	G95-1	양정수	38	회사원	안:1995	벽돌조	타일	안:서	245	안:35	sCj	5
13	M95	고수태	60	농업	안:1995 밖:1981 창고:1981	안:벽돌조 밖:벽돌조 창고:블럭조	안:타일 밖:물탈 창고:물탈	안:서 밖:남 창고:북서	200	아:36.98 밖:20.68 창고:5.83	cC	6
14	K96	김신생	58	농업	안:1996 밖:1970 창고1:1970 창고2:1996	안:벽돌조 밖:목조 창고1:목조 창고2:블럭조	안:타일 밖:돌 창고1:돌 창고2:물탈	안:서 밖:서 창고1:남 창고:동	100	안:20.92 밖:13 창고1:5.12 창고2:13.33	cB	3
15	O96	홍혜삼	59	농업	안:1996	벽돌조	타일	안:남	45	1층:19 2층:26	sC	2
16	N97	김경호	39	농업	안:1997	벽돌조	타일	안:동북	250	안:30	sCk	5
17	N98	김운옥	56	농업	안:1998 창고:1971	안:벽돌조 창고:블럭조	안:타일 창고:미장	안:서남 창고:서남	208	안:30.76 창고:33	sCm	3
18	S98	이용수	61	농업	안:1998 밖:1998	안:벽돌조 밖:벽돌조	안:타일 밖:타일	안:서 밖:남	140	안:36.97 밖:21.75	cC	5
19	S98-1	강수민	57	농업	안:1998	안:벽돌조	안:타일	안:남	93	안:30	sCm	4
20	N99	김상보	41	농업 직장	안:1999 창고1970	안:벽돌조 창고:목조	안:타일 창고:돌	안:서남 창고:서남	450	안:39.54 창고:5.5	sCJ	5

## ■ 부록2

###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사례 현황

재래 1 G45	세대주 : 김강노	건축년도 : 1945년
	주소 : 애월읍 고내리 943번지	



재래 2 N48	세대주 : 고병찬	건축년도 : 1948년
	주소 : 애월읍 남읍리 2247번지	



재래 3 S48	세대주 : 김애지	건축년도 : 1948년
	주소 : 조천읍 신촌리 2020번지	



재래 4 M49	세대주 : 양광익	건축년도 : 1949년
	주소 : 한림읍 영월리 351번지	



재래 5	세대주 : 장한진	건축년도 : 1950년
G50	주소 : 애월읍 고내리 1084	

재래 6	세대주 : 김상택	건축년도 : 1950년
S50	주소 : 조천읍 신촌리 2010번지	

재래 7	세대주 : 강순심	건축년도 : 1951년
SA51	주소 : 안덕면 사계리 1931-1번지	

재래 8	세대주 : 이종상	건축년도 : 1955년
U55	주소 : 애월읍 유수암리 1863-1번지	

재래 9 N56	세대주 : 진희익	건축년도 : 1956년
	주소 : 애월읍 남읍리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height: 300px; width: 100%;"></div>		

재래 10 M60	세대주 : 강행근	건축년도 : 1960년
	주소 : 한림읍 명월리 351-1번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height: 300px; width: 100%;"></div>		

재래 11 S60	세대주 : 김경근	건축년도 : 1960년
	주소 : 조천읍 신천리 2338번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height: 300px; width: 100%;"></div>		

재래 12 O60	세대주 : 조순덕	건축년도 : 1960년
	주소 : 성산읍 오조리 819번지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height: 300px; width: 100%;"></div>		





재래 13	세대주 : 박순원	건축년도 : 1961년
K61	주소 : 한림읍 금악리 819번지	


재래 14	세대주 : 조남수	건축년도 : 1962년
SA62	주소 : 안덕면 사계리 132-5번지	


재래 15	세대주 : 김경일	건축년도 : 1962년
O62	주소 : 성산읍 오조리 1475번지	

재래 16	세대주 : 박승준	건축년도 : 1962년
K62	주소 : 한림읍 금악리 1475번지	

재래 17	세대주 : 김천택	건축년도 : 1964년
SA64	주소 : 안덕면 사계리	
		

재래 18	세대주 : 강완순	건축년도 : 1965년
G65	주소 : 애월읍 고내리	
		

재래 19	세대주 : 송대규	건축년도 : 1965년
K65	주소 : 한림읍 금악리 2064번지	
		

재래 20	세대주 : 김두호	건축년도 : 1967년
M67	주소 : 한림읍 명월리 417번지	
		

재래 21	세대주 : 홍명삼	건축년도 : 1967년
O67	주소 : 성산읍 오조리 893번지	

재래 22	세대주 : 김만승	건축년도 : 1968년
O68	주소 : 성산읍 오조리 757번지	

재래 23	세대주 : 박민호	건축년도 : 1970년
K70	주소 : 한림읍 금악리 1880-2번지	

개량 1	세대주 : 홍원란	건축년도 : 1971년
O71	주소 : 성산읍 오조리 897-1번지	

개량 2	세대주 : 이한열	건축년도 : 1971년
S71	주소 : 조천읍 신촌리 2356번지	

개량 3	세대주 : 김화택	건축년도 : 1973년
G73	주소 : 애월읍 고내리 969-1번지	

개량 4	세대주 : 김해영	건축년도 : 1973년
M73	주소 : 한림읍 명월리 2003번지	

개량 5	세대주 : 현금란	건축년도 : 1974년
O74	주소 : 성상읍 오조리 770번지	

개량 6	세대주 : 안영일	건축년도 : 1975년
G75	주소 : 해월읍 고내리 938번지	

개량 7	세대주 : 이두백	건축년도 : 1977년
SA77	주소 : 안덕면 사계리 2464번지	

개량 8	세대주 : 강성선	건축년도 : 1977년
O77	주소 : 성산읍 오조리 844번지	

개량 9	세대주 : 진동준	건축년도 : 1978년
N78	주소 : 애월읍 남읍리 1493번지	

개량 10	세대주 : 고군봉	건축년도 : 1978년
M78	주소 : 한림읍 명월리 349번지	

개량 11	세대주 : 김석호	건축년도 : 1978년
G78	주소 : 애월읍 고내리 1204번지	

개량 12	세대주 : 고수태	건축년도 : 1978년
M78-1	주소 : 한림읍 명월리 2065번지	

개량 13	세대주 : 홍성구	건축년도 : 1980년
O80	주소 : 성산읍 오조리 750번지	

개량 14	세대주 : 이근창	건축년도 : 1981년
U81	주소 : 애월읍 유수암리 2013번지	

개량 15	세대주 : 부태규	건축년도 : 1981년
O81	주소 : 성산읍 오조리 237번지	

개량 16	세대주 : 김택휘	건축년도 : 1982년
G82	주소 : 애월읍 고내리 1064-2번지	

개량 17	세대주 : 오명봉	건축년도 : 1983년
M83	주소 : 한림읍 명월리	

개량 18	세대주 : 강상중	건축년도 : 1983년
M83-1	주소 : 한림읍 명월리 1622번지	

개량 19	세대주 : 강건일	건축년도 : 1983년
M83-2	주소 : 한림읍 명월리 485-1번지	

개량 20	세대주 : 강희진	건축년도 : 1983년
U83	주소 : 애월읍 유수암리 2028번지	



개량 21	세대주 : 김진두	건축년도 : 1983년
M83-3	주소 : 한림읍 명월리	

개량 22	세대주 : 현대인	건축년도 : 1983년
O83	주소 : 성산읍 오조리 192-1번지	

개량 23	세대주 : 이명언	건축년도 : 1983년
S83	주소 : 조천읍 신촌리	

개량 24	세대주 : 오영삼	건축년도 : 1984년
M84	주소 : 한림읍 명월리 1747번지	

개량 25	세대주 : 양태봉	건축년도 : 1984년
N84	주소 : 애월읍 남읍리 219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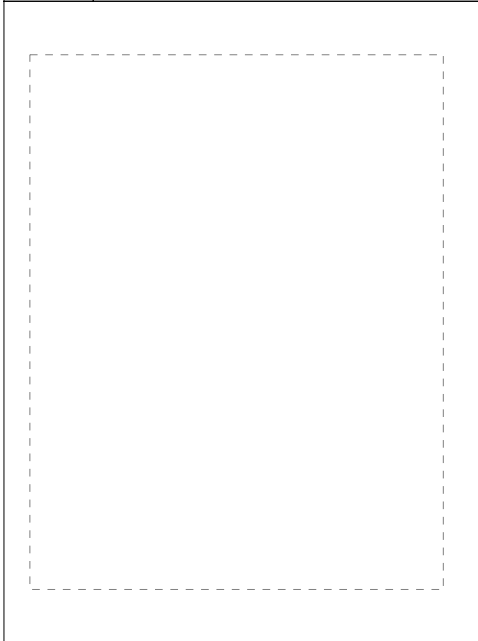
개량 26	세대주 : 진희복	건축년도 : 1984년
N84-1	주소 : 애월읍 남읍리 2197번지	

개량 27	세대주 : 고덕진	건축년도 : 1985년
G85	주소 : 애월읍 고내리 864번지	

개량 28	세대주 : 김순배	건축년도 : 1985년
N85	주소 : 애월읍 남읍리 1638번지	

개량 29	세대주 : 홍병표	건축년도 : 1985년
M85	주소 : 한림읍 명월리 1726번지	

현대 1	세대주 : 강명주	건축년도 : 1986년
O86	주소 : 성산읍 오조리 1035-13번지	



현대 2	세대주 : 강우춘	건축년도 : 1987년
U87	주소 : 애월읍 유수암리 630-2번지	



현대 3	세대주 : 강문식	건축년도 : 1988년
U88	주소 : 애월읍 유수암리 12-128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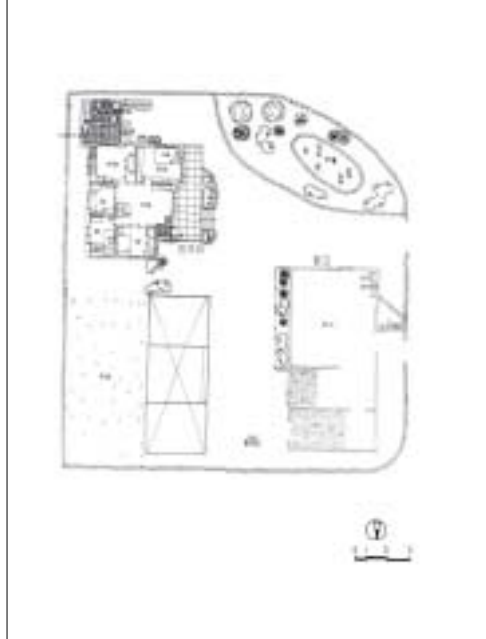
현대 4	세대주 : 강길남	건축년도 : 1990년
O90	주소 : 성산읍 오조리 769번지	



현대형5	세대주 : 서기호	건축년도 : 1990년
G90	주소 : 애월읍 고내리 1007-1번지	



현대 6	세대주 : 강경휴	건축년도 : 1991년
U91	주소 : 애월읍 유수암리 634-2번지	



현대 7	세대주 : 이현웅	건축년도 : 1992년
SA92	주소 : 안덕면 사계리 2370-4번지	



현대 8	세대주 : 채진기	건축년도 : 1993년
O93	주소 : 성산읍 오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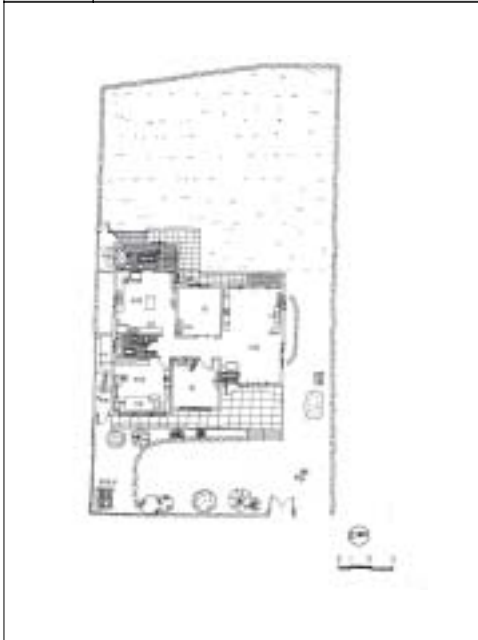
현대형9	세대주 : 이종환	건축년도 : 1993년
U93	주소 : 애월읍 유수암리 1994번지	



현대 10	세대주 : 고운라	건축년도 : 1994년
K94	주소 : 한림읍 금악리 1746번지	



현대11	세대주 : 문인호	건축년도 : 1995년
G95	주소 : 애월읍 고내리 570-5번지	



현대 12	세대주 : 양정수	건축년도 : 1995년
G95-1	주소 : 애월읍 고내리 570-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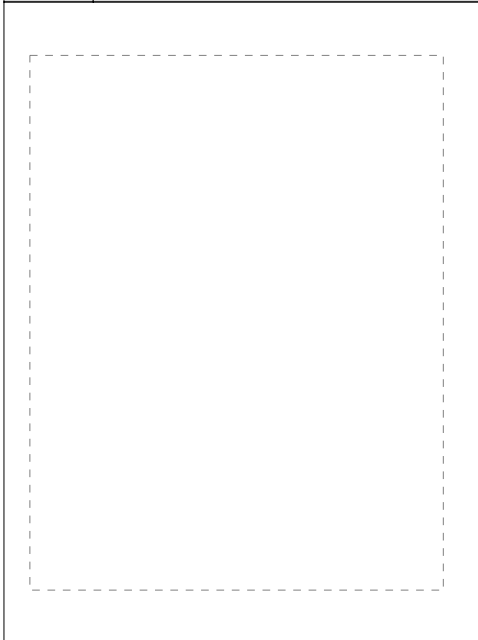
현대 13	세대주 : 고수태	건축년도 : 1995년
M95	주소 : 한림읍 명월리 1643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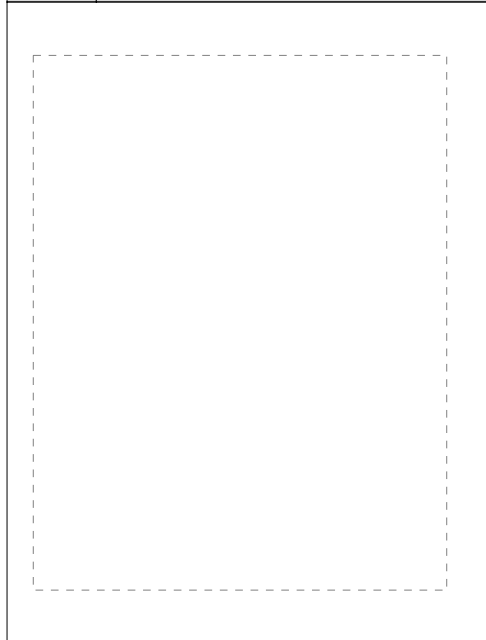
현대 14	세대주 : 김신생	건축년도 : 1996년
K96	주소 : 한림읍 금악리 20960-1번지	



현대 15	세대주 : 홍혜삼	건축년도 : 1996년
O96	주소 : 한림읍 오조리 731-1번지	



현대 16	세대주 : 김경호	건축년도 : 1997년
N97	주소 : 애월읍 남읍리 2288번지	



현대 17	세대주 : 김운옥	건축년도 : 1998년
N98	주소 : 애월읍 남읍리 1751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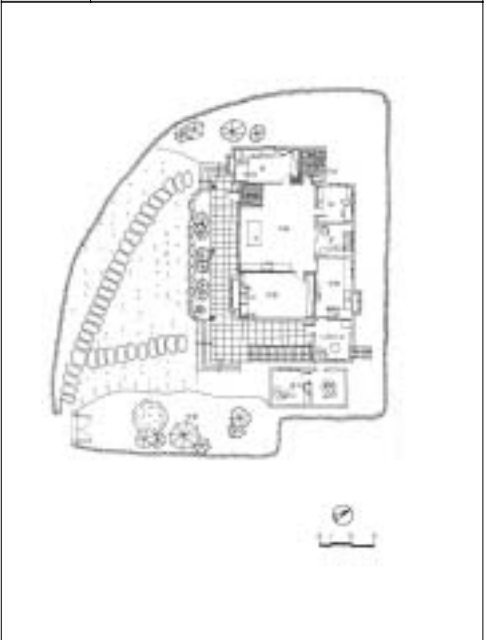
현대 18	세대주 : 이용수	건축년도 : 1998년
S98	주소 : 조천읍 신촌리 2124번지	



현대 19	세대주 : 강수민	건축년도 : 1998년
S98-1	주소 : 조천읍 신촌리 2213-3번지	



현대 20	세대주 : 강상보	건축년도 : 1999년
N99	주소 : 애월읍 남읍리 1685번지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적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최재권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본 연구는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분석을 통하여 생활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활문화적 특성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위치한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8개 마을 72개 주거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조사방법은 대상 주거를 직접 방문하여 실측조사, 관찰조사, 면담조사의 현장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대상 농촌마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주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건축시기, 구조 및 재료, 실 구성 등 시 계열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재래형 농촌주거, 개량형 농촌주거, 현대형 농촌주거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류를 토대로 실시된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의 생활문화 특성은 좌식지향의 개방적 공간구성, 접객·의례중심의 공간구성, 세대분리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으로 나타났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좌식지향의 개방적 공간구성은 다습한 해양성기후를 건디기 위한 구조와 한정된 공간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마루와 각 실이 개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주생활은 계절적인 변화와 함께 안방과 마루가 주로 사용되는 안방 중심의 좌식 생활을 나타내고 있었다.

둘째, 접객·의례중심의 공간구성은 경조사 시의 공간사용을 대비한 생활의식의 반영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상의 공간사용보다 큰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의례공간으로서 작은방 중 하나를 제사방으로 사용하고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융통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다용도실을 배치하여 일상의 사용 뿐 아니라 경조사 시 조리나 가사용품의 보관하고 있었다.

셋째, 세대분리 가족중심의 공간구성은 한 울타리 안에 자식세대가 분가할 경우 세대간 공간 분리와 주생활 분리의 생활양식이 나타났다. 안거리, 밖거리의 세대간 거주형태는 부모세대와 자식세대의 가족 수에 따라 거주위치가 결정되고 있다. 세대간 공간사용은 일상생활에서는 별개의 생활이 이루어지지만 접객과 제

사 등 경조사 시에서는 주공간이 공유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농촌주거공간은 근대화에 따른 건축구조, 재료, 설비의 영향으로 급격한 변화의 경향을 나타내지만 생활문화적 특성의 지속과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전통성, 실용성, 독립성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성측면에서 농촌주거공간은 제주도의 지형이나 바람 등 환경적 특성에 의해 주동의 좌향이 지역별로 일정한 패턴이 지속되고 배치는 별동형의 전통적 공간구성이 유지되고 마당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식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거공간은 근대화에 따라 여러 변형이 나타나지만 3칸형의 겹집 평면형태와 마루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 구조는 지속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근대화 이후 주거공간구성은 각 공간이 개실화하는 입식위주의 거실중심형으로 변화하지만 안방중심의 전통적 좌식 생활양상은 지속되고 있었다.

둘째, 실용성측면에서 농촌주거공간은 일상의 가족생활과 함께 경조사를 위한 전용적(轉用的) 공간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안방은 일상 시에는 부부와 가족의 생활중심이지만 비 일상 시에는 접객의 장소로서 사용되며 마루후면 작은방은 자녀 방이면서 제사방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루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비 일상 식사 및 접객의 장소로 전용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다용도실은 가사생활을 위한 전용적(轉用的) 공간으로서 부엌의 근대화에 따른 입식 가사생활의 보조뿐 아니라 경조사를 위한 다기능 역할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주동별 공간사용에서 밖거리나 창고를 가족주기의 변화와 함께 생활공간으로 증·개축하여 사용되는 것과 세대분리 안·밖거리 주거에서 부모자식세대간 가족 수에 따라 거주위치를 교체하는 것은 공간사용의 실용적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셋째, 독립성측면에서 농촌주거공간은 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 밖거리의 주거가 각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대간의 생활을 수용하는 개별적 공간구조를 지속하고 있다. 이것은 각 세대간 독립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채로 출입하기 위한 현관의 배치와 취사를 위한 부엌 및 창고 등의 생활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앞으로 제주지역 농촌주거는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이루어지겠지만 도서의 특성상 전통적 생활관습이 상당기간 유지되는 보편적 특수성을 가지고 변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제주, 농촌주거, 생활문화, 지속, 변화

# A Study on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Transformation of Jeju Rural Houses

By  
Choi, Jae-Kweun  
Dissertation Director : Professor Rhee, Hyoun-Ho Ph.D  
A dissertation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to the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June 28, 2002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continuation and change of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which is expressed in the modernization course, and to recognize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Jeju Rural Houses.

For this study, the examples of 72 residences in 8 villages which are changed by the spontaneous will of the inhabitants who live in Jeju area were chosen as the subjects. As for the research method, after visiting the subject residence directly, and the field study such as the actual estimation research, observation research, and interview research were performed.

In order to analyze systematically the various forms of the rural houses which can be found in the rural village of the subject example, the analysis result focused upon the time sectional aspect through the construction time, structure and material, room composition, the existing rural house, improved rural house, and modernized rural house were classified.

Based upon these classification in the above,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ural dwelling space in Jeju area was expressed as the spatial composition of the opened spacial composition of the sitting-inclinati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welcoming guest and family ceremony, and the spatial composition of the generation-separated family, and the concrete content is as follows.

Firstly, the opened spatial composition of the sitting-inclination is composed of the form which has the individual opened room and floor

with the mechanism to grant the flexibility to the limited space and the structure for enduring the much-humid oceanic climate. The living life shows the sitting life which is focused upon the An-bang which usually uses the An-bang and floor with the seasonal change.

Secondly, the spatial composition of welcoming guests and family ceremony shows the high reflection of the life recognition which prepare the spatial use in the various ceremony. This made the tendency that the big size of the space should be obtained, and the room only for the ancestral rite was arranged as the ceremony space, and the sliding door was established, and the flexibility should be secured. Additionally, with the multi-use room was arranged for the daily use as well as to cook in the space or to store the household tools.

Thirdly, the spatial composition of the generation-separated family focused was shown as the life pattern which divides the space and living life between the generations in case that the child generation branches another family out of the fence. The dwelling pattern between main building living family and subordinate building living family is being decid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family of the parent generation and child generation. The spatial use in each generation is composed of the extra lives in the daily lives, however the pattern that in welcoming guests or family event, the living space is owned jointly is being shown.

Besides, the rural dwelling space in Jeju area shows the tendency of the rapid change by the effect of the construction structure, material, and equipment according to the modernization, however it also the traditional cultural continuation. This can be recognized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ition, practice, and independence. The detailed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tinuation and change of the rural dwelling space in the traditional aspect, the left-directing in the main position continues as the fixed pattern by the environment characteristics such as the ground and wind in Jeju area. As for the arrangement of the house, the traditional spatial composition of the extra room style is maintained, and the recognition of securing the space for the floor is continuously expressed. The dwelling space is changed according to the modernization variously, the opened structure which is focused upon the 3 compartments folded house and its plane form, and the floor shows the tendency to be continued. The dwelling spatial composition after the modernization was changed into the pattern which focused upon the floor with mainly used for the standing movement which make each space individual, however

the traditional sitting-focused life pattern which is focused upon the An-bang is still being continued.

Secondly, in the aspect of the utility, the continuation and change in the rural dwelling space made the spatial use of the traditional use for the family event with the daily family lives still continued. Though An-bang is focused upon the married couple and the family lives, it is used for welcoming guest in the non-daily time, and the small room behind the floor is used for the children and also used for the ancestral rite. The floor has the continuous tendency that the space is used for the family life as well as for the dinner in the family event and visitation of guest. This tendency can be recognized through the maximum use of the floor and warehouse in the family event.

The multi-room is the converted space for the household life, and it continuously shows the multi-functional role for the family event as well as the assistance of the standing household life according to the modernization of the kitchen.

In the spatial use in each main movement, along with the change of the family period, the warehouse is used as the living space after enlargement or renovation, and replacement of the dwelling location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family between the parent generation and child generation in the separated generation main building and subordinate building are expressing the useful recognition on the spatial use.

Thirdly, in the aspect of the independence, the continuation and change of the rural dwelling space maintains the definite distance between each the main building and subordinate building centering the floor, and the individual spatial structure in each generation is continued. This means the independence in each generation, the life spaces such as kitchen for cooking and warehouse, and the arrangement of the porch for the entrance and exit into each room are prepared separately.

As seen in the above, when summarizing the results in the above, the future rural dwelling in Jeju area will be somewhat balanced in the stream of the modernization, however by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lands area, the traditional life customs is thought to be maintained for the some time, and finally be changed with the general specification.

Key words: Jeju, Culture, Rural House, Continuation, change

## 감사의 글

멀고도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작은 결실을 맺으려 합니다.

이 논문은 시작부터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도와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항상 자상한 지도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신 이현호 교수님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심사과정에서 상세한 지도와 세심한 지적을 해주신 이규목 교수님, 임창복 교수님, 이연구 교수님, 양우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이명호 교수님, 정현수 교수님, 박찬식 교수님, 이은택 교수님, 강재훈 교수님, 이정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미소로 지켜봐 주신 손세관 교수님과 연구방법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희봉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사과정과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제주관광대학의 교수님들과 같은 학과의 김상근 교수님, 이정립 교수님, 제자들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격려와 도움을 준 후배 경호, 주석, 호식, 영호, 우재, 진욱, 광석, 충현, 은영, 형진, 종대, 연주, 진우와 주장건 사장님, 하해진 의원님, 박효철 교수님, 김성일 후배님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랜동안 같이 공부하고 논문진행에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김경순 교수님과 김경섭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낳아주시고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끊없는 사랑과 격려로 지켜봐 주신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막내사위를 걱정하시는 장모님의 건강이 쾌유되기를 바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박사과정 동안 인내와 사랑으로 부족한 남편을 내조와 격려를 해주신 아내 신만희 님과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준 사랑하는 호진, 진주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온 마음을 받쳐 감사 드립니다.

2002년 6월

최 재 권

## 감사의 글

멀고도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작은 결실을 맺으려 합니다.

이 논문은 시작부터 완성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지도와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의 부족함에도 항상 자상한 지도와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신 이현호 교수님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심사과정에서 상세한 검토와 세심한 지적을 해주신 이규목 교수님, 임창복 교수님, 이연구 교수님, 양우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이명호 교수님, 정현수 교수님, 박찬식 교수님, 이은택 교수님, 강재훈 교수님, 이정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미소로 지켜봐 주신 손세관 교수님과 연구방법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이희봉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사과정과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제주관광대학의 김창희 학장님, 김성규 이사장님, 박상수 부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같은 학과의 김상근 교수님, 이정립 교수님, 제자들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같은 연구실에서 격려와 도움을 준 후배 경호, 주석, 호식, 영호, 우재, 진욱, 광석, 충현, 은영, 형진, 종대, 연주, 진우와 주장건 사장님, 하해진 의원님, 박효철 교수님, 김성일 후배님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랜동안 같이 공부하고 논문진행에도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경순 교수님과 김경섭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낳아주시고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로 지켜봐 주신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막내사위를 걱정하시는 장모님의 건강이 쾌유되기를 바라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박사과정 동안 인내와 사랑으로 부족한 남편을 내조와 격려를 해주신 아내 신만희 님과 아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준 사랑하는 호진, 진주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주님의 은총에 온 마음을 받쳐 감사 드립니다.

2002년 6월

최 재 권